The Korea Times Toronto

(일간) No. 589 1981년8월11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uesday, August 11. 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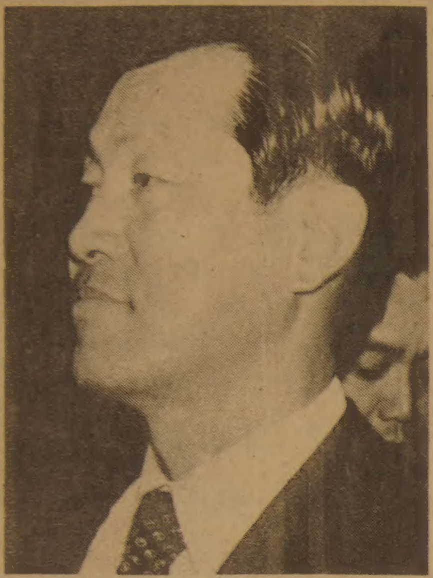
EAST ASIAN LIBRARY AUG 20 1981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토론토인쇄인 : 김 형 근
The Korea Times of Toronto (or Hankookilb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Subscription fee $90. per year $8. per month
ISSN 0319 2962
구독료 : 연 $90, 월 $8.00
SECOND CLASS MAIL N P 9184

「請託배격」에 걸린 大魚

朴世直수경사령관 電擊해임의 波長



▲6일 청탁관계에 얽혀 전격적으로 해임, 예편된 박세직 수도경비사령관. 사진은 지난해 10월 6일 LA에 들렀을 당시.

〈서울본사〉 박세직수도경비사령관에 대한 전격적인 해직·예편조치는 청탁풍조를 뿌리뽑아 깨끗한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실증으로 풀이된다.

박장군은 육사12기중 가장 촉망을 받던 선두주자이자 전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던 장군중의 한사람으로 5·17이후 수경사령관에 발탁됐었다.

예편조치의 배경은 박장군이 수도경비의 중책을 맡은 주요 지위관 신분으로 청탁배격 운동에서 솔선수범의 자세를 잊고 육사동기생의 사업을 위한 청탁에 개입, 이운동에 역행하는 결과를 빚은데 있다.

박장군의 예편은 군인이든 민간이든 최고위층의 신임을 받고 있다하더라도 청탁배격 운동에 있어서는 그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것도 된다.

박장군은 동기생인 이규환씨의 고위층을 통한 청탁사건 수사가 지난달 30일 군수사기관에 의해 착수된 이후 지방에서 있는 행사에 참석중 수사요원에 의해 서울로 소환돼 수사를 받았다.

이사건은 4일 청와대에 보고 됐고 5일 낮 예편건역이 결정됐는데 보고를 받은 전대통령은 고민끝에 큰것을 위해 작은것을 희생시킨 입장으로 해임결정을 내린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들은 전대통령의 결심을 읍참마속의 고사에 비유하고 있다.

경북 칠곡이 고향이며 독실한 기독교신자이기도 한 박장군은 빈농에서 태어나 부산사범을 거쳐 육사12기생으로 임관,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해 임무를 수행해온 군인이었고 육사졸업후 위탁생으로 서울대 문리대 영문과를 수료 영어실력이 뛰어났다.

사단장 재직때에는 위캄유엔군사령관이 전방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때면 으레히 그를 찾아 브리핑을 들을 만큼 친한 사이이며 헤이그 미국무장관과도 친분이 두터워 이따금 서신을 교환하기도 했다.

작년 12월에는 방미 당시 재야에 있던 헤이그 미국무장관을 비롯, 미군장성들과 교포들을 만나 한국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정부소식통은 이번 사건의 책임은 박장군과 이규환씨 두사람에 그치고 더 이상의 문책이나 연사는 없다고 밝혔다.

陸士12期선두주자 美조야에도 넓은안면
전대통령 읍참마속 심정으로 결재후문 문
지난달30일 地方行事참석중에 連行수사

문제의 人物 이규환씨

〈뉴욕지사〉 이권청탁으로 박세직 수도경비사령관의 해임 및 예편의 불씨가된 이규환씨는 12·12사태 이후 한국의 군수실력자와 잘아는 인사로 통해온 예비역 육군대령.

육사 정규2기 출신으로 박세직소장과 동기생이며 한때 선배인 전두환대통령과는 지난번 전대통령 방미시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본국의 고위층과 인맥이 닿은 군출신으로 행세해 왔다고 주위사람들이 전했다.

특히 지난 10월 도미한 박세직소장이 이규환씨와 뉴욕서 접촉을 가진후 공관에『이씨를 잘봐주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진후 이씨 주변에는 항시 10여명의 교포가 뒤따르며 이씨가 한국에서 큰 사업을 할 것이라고 말해왔다는것이다.

주미 군수근무단 요원으로 워싱턴에서 근무중 미국회사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소환명령을 받았으나 불응하고 미국에 주저앉은 이씨는 지난 68년 뉴욕에 온후 부르크린에서 수퍼마켓을 경영하다 지난해 봄에 팔고 맨하탄의 236W 40ST(7애비뉴와 8애비뉴 사이)에 있는 3층건물을 75만달러에 매입, KASCO사를 설립했다는 것.

이씨는 금년 1월께 외환은행에 거액의 융자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외환은행 뉴욕지점측은 6일상오 이씨에 대한 융자여부에 대해 함구, 그 규모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우편물 소통 시작

노조원들 계약안 동의, 정상화에 1개월 ?

42일간 끌어온 우편파업은 마침내 종료됐다.

우편노조원(CUPW소속)들은 노조협상진이 정부와 맺은 2년간의 잠정계약을 「투표자의 83·1%찬성」이라는 높은 비율로 채택, 11일자정 근무노조원부터 출근을 시작했다. 이날아침 우편배달부들은 파업시작전 배달하지 못했던 우편물을 돌렸다.

우편파업은 지난-6월29일부터 시작됐다.

23,000명 노조원들은 9일과 10일에걸쳐 계약안에 대한 찬성·반대투표를 전국적으로 실시, 결과는 10일밤 9시 발표됐다.

우편당국은 당분간 우편국에 밀린 우편물 때문에 성탄때 같이 혼잡할것을예상했다.

우편국의 큰 고객인 벨·캐나다및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차젝스(비자)등 크레딧·카드회사와 미국이나유럽 우체국에서 보류했던캐나다행 우편물이 몰려오면 전국에서 가장바쁜 토론토 우편국은하루 2천만개의우편물을 처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우편국 직원은 우편업무가 정상화되려면 1개월이 걸릴것 이라고 내다봤다.

우편국은 주요 고객회사들이 발송할 우편물중 40%는 그간 사설배달회사(커리어·서비스)를 통해처리 했으나, 나머지 60%는 우편국에 가져올 것으로예상했다.

우편국에서 처리하는 우편물의 80%는 사업관계우편물이다.

한편 이번 2년간의 새계약으로 노조원들은 시간당 임금 70센트인상과 시간당 40센트씩의 생계비 수당을 받아 이들의 시간당소득은 9·33달러(2년근무자)에 서 10·43달러가 되었다.

금년말 노조원들의 평균 연봉은 현$19,471에서 $21,760이 된다.

임신노조원들은 17주휴가중 순소득(넷·인컴)의93%를 받는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15주 휴가중 총소득의 절반 또는 3분의 2를 받았다.

노조가 주장한「5년후 4주휴가」는「8년후 4주휴가로 타협했다.

이제까지는 10년을 지나야 이같은 자격이 있었다. 노조가 주장한 연 12번 째의 공휴일 요구는 거절됐다.

작업장내의 감시카메라 설치는 서서히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금년초 체결된 배달부노조의 계약을 모방한 임금인상조항은 정부나 노조가 애초부터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이번 장기파업으로 노조가 실질적으로 얻은것은 거의 없다.

스파다이너 보궐선거
투표일은 17일 3명 각축

트론토스파다이너 선거구의 연방의회의원 보궐선거가 오는17일(월) 열린다.

한인상가등 불루어·스트릿과 차이나·타운이있는 던다스 지역을 포함한 이 선거구에서는 자유당의 제임스·쿠츠(Coutts)보수당의 로라·사비아(Sabia), 신민당의 다니엘·힙(Heap)씨등 3명 치열한 경쟁을벌이고 있다.

트루도 수상의 총애를받는 1급 참모였던 쿠츠(42)씨는 "현 자유당정부는 메켄지·킹수상 이후 35년만에 처음보는 최선의 정부"라고 말했다.

신민당의 힙(55)씨는 토론토시의원, 사비아(64) 여사는 전온타리오주 여성지위 위원회장 이었다.

스파다이너 선거구 출신인 자유당의 피터·스톨러리(45)의원은 지난 7월2일 트루도수상으로부터 갑자기 상원 의원으로 임명되어 정계를 놀라게 했다.

쿠츠씨는 지난46년중 39년간 이 지역의 의석이 자유당에게 돌아간점등에 크게 기대하고 있으나 최근의 우편파업에대한 정부의 실책, 사상최고의 이자율, 사상최저의 달러가치등 때문에 고전할 것이라고 정계서는 보고있다.

◇정치란 더러운 것? 스파다이나 보궐선거 후보자로 나온 보수당의 주자 사비아 여사가 "정치에서 냄새가 난다"는듯 코를쥐고 있고, 자유당의 짐·구츠 후보는 멍청한 표정이다. 이들은 10일밤 공동정견 발표회에 나왔다.

체육회 이사회 임원 보강

지난7일(금)하오8시 한국관에서 체육회 긴급이사회가 열렸다.

이사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석인 부이사장에는 원장호씨를 선출(김만구부이사장은 유임), 신임 이사로 변의섭(불루어 하드웨어경영), 김용섭(은하보석상경영), 장기철(복덕방), 구본모(삼미광고), 정혁씨로 뽑고, 신임감사로는 변의섭, 황재필씨를 각각선출했다.

이날 8·15체전을 위한측석모금에서 4,300달러가걷혔다.

한편 동우회는 체육행사를 위해 금일봉을 기중했다.

우대이자율 22.75%

8개 시중은행은 6일 최우대고객 이자율(프라임·레이트)를 종전보다 1% 올려 22.75%로 인상했다

이것은 80년8월 이자율의 2배이다

1~3년 모기지 이율은 21.25~21.75% (로열뱅크)가 되었다

한편 캐나다달러 가치는 바닥이 빠진듯 자꾸 내려 이날 시세는 미화 80.73센트였다. 5일 시세는 미화 80.90센트였다.

社告

파업 종료에 즈음한 말씀

42일간 계속된 우편파업이 드디어 끝났음을 독자와 함께 감사하는 바입니다.

(1)그간 본사는 파업종료시의 신속한 신문발송을위해 신문에 주소를 찍고 우편백에 넣는등 재발송에만 전을 기해 왔읍니다.

오늘 본사의 밴트럭은 5번 우편국을 왕래하며 밀린 신문을 우편국으로 날랐읍니다.

우편국이 이제 문은열었으나 업무가 정상을 찾기까지에는 어느정도 시일이 걸릴것 입니다.

이 기간중 신문은 2종우편물인 때문에 배달이 지연되는것은 물론 발행순서대로 배달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즉 파업이 해제되었다해도 당분간 신문배달은 순조롭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2)본사는 신문배달 상태가 어느정도 정상을 찾기까지는 파업중과 같이 2일분 신문을 총 16면으로 같은날 발행할 것입니다.

(3)지금까지 각 식품점및 교회등을 통해 무료배부되던 본 한국일보는 식품점에서 종전과 같이 1부당30센트씩 판매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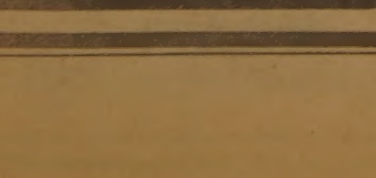
상기사실을 이해 하시고 계속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한국일보사 드림 —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각종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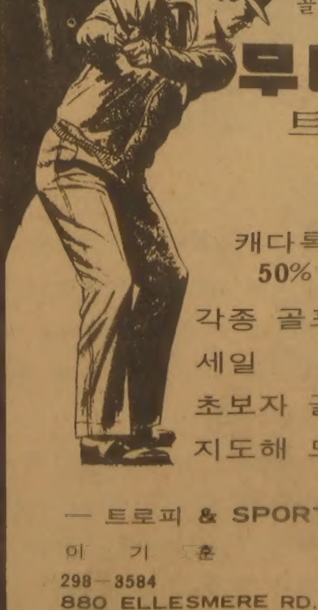
백 용 빈
SUNLIFE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B)497-3800
(R)284-9052

제일여행사
■모국방문 특별요금
요금 : 성인왕복 $1180+(세금) $12.50
어린이 왕복 (2~12세) $645+(세금)$6.25
출발일자 : 8월7. 14. 21. 28일
대한항공 뉴욕경유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각종단체 관광요금
유 지 원
621 BLOOR ST. W.
(B)535-2377
(R)366-0864


• 생명교육보험
• RRSP(세금공제 은퇴저축)
• 은퇴연금
• 사업보험
• 화재, 자동차보험

김 흥 량
(B) 482-0166
(R) 624-2103
IMPERIAL LIFE
covers you for life

KAWAI KEYBOARD CENTRE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피아노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카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카나다 통계국 발표〉
■카나다 최고이고, 유일한 한국인 딜러가 교민들에게 특별 할인 판매 합니다.
MARKHAM PLACE MALL
2900 STEELES AVE. EAST. THORNHILL
881-8211
윤 호 섭


트로피 골프 프로샵
무나미
트로피
상패
매달
캐다록에서 50% OFF
각종 골프장비
세일
초보자 골프
지도해 드립니다.
— 트로피 & SPORTS —
이 기 훈
298-3584
880 ELLESMERE RD. UNIT 1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 (416) 533-236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M5S

내쇼날리그 올스타팀 10년연승

카터, 2홈런 최우수선수로

근 2개월간 선수들의 파업으로 여름밤을 더욱 무덥게했던 프로야구는 9일밤 올스타 게임을 서두로 리그후반의 막을 올렸다.

이날 게임에서 내쇼날리그 올스타가 또 어메리칸리그 올스타를 5：4로눌러 10년째 패권을 차지 했다.

올스타게임 사상 최대의 72,806명 관중이 운집한가운데 크리브랜드 스타디엄서 개최된 제53회 메이저리그 올스타게임은 역전재역전끝에 작년도 프로야구 최우수선수상을탄 필라델피아의 마이크·슈미츠선수가 8회초결승투런홈런을날림으로써 내쇼날리그가 다시 아메리칸리그를 5：4로 물리쳤다.

이날의 최우수선수는 몬트리얼의 게리·카터. 올스타 게임사상2개의 홈런을 날린 다섯번째 선수가 된 카더는 이날 스타팅·캐처로 나와 7회에 물러날때까지 5회초와 7회초에 각각 홈런을 날림으로 최우수 선수상을 탄 것이다.

내쇼날 올스타는 6회초 피츠버그의 데이보·파카가 홈런을 날림으로써 2：1로 앞서갔다. 그러나 6회말아메리칸올스타는 5안타를집중, 3점을 올림으로써 4：2로 역전 승기를 잡을듯 했다.

7회초 게리·카터의 홈런으로 1점을 따라잡은 내쇼날 올스타는 8회초 마이크·슈미츠의 투런홈런으로재역전 5：4로 10년째 패권을 잡았다.

8회초 아메리칸리그투수로나온 토론토 유일의 올스타선수 데이브·스티브는 1회 3분의2를 던져 1 안타 무실점으로 막은 수훈을세웠지만 게임을 뒤집기에는 너무 늦었다.

캐나다의 또다른 프로야구팀인 몬트리얼은 이날의 수훈선수 카터를비롯 4명을 출전시켰다.

연50일간 파업을 벌인후 이날 올스타 게임에 내쇼날리그 스타팅 멤버로나온 필라델피아의 피터·로스는 "꼬마야구선수들이 덕을 본 것 같다. 부모들이 메이저리그 게임대신 꼬마들 응원하러 야구장으로 달려갔다"면서 "이번 파업으로관중을 잃지않은것이 다행이다"라고 출전소감을 피력했다.

크리브랜드가 고향이며, 야구팀「크리브랜드·인디안」의 주주인 코메디안 봅·호프씨는 "요리사가 식권을 사러다닌다는것은 말도 안된다"고 선수들의 파업을 조크로 꼬집었다.

불루제이스는 11연패 후 다시 새시즌을 맞았지만 습관대로 또 패배를 기록했다.

10일밤 디트로이트에서 거행된 타이거스와의 경기에서 4：3으로 깨져 12연패를 기록했다. 브르제이스의 마지막 승리로 지난5월30일 오클랜드·에이스팀과 의 경기가 마지막 이었다. 토론토·부루제이스는 오늘 14일CNE에서 밀워키·브르워스를 상대로 첫번째 홈게임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토부루제이스는 공식전에서 현재 11연패를기록, 아메리칸리그 동부조 최하위이다.

부루제이스는 지난 7,8일 열린 뉴욕·메츠와의 친선 게임에서 7：3, 9：8로 연승을 올렸다.

파업전 프로야구 전적은 별표와 같다.

조별	내쇼날리그 팀명	승	패	게임차
서부조	다저스	36	21	
	레즈	35	21	1/2
	애스트로스	28	29	8
	브레이브스	25	29	9 1/2
	자이언츠	27	32	10
	파드레즈	23	33	12 1/2
동부조	필리즈	34	21	
	카디날즈	30	20	1 1/2
	엑스포즈	30	25	4
	파이럿츠	25	23	5 1/2
	메츠	17	34	15
	캅스	15	37	17 1/2

아메리칸리그 팀명	승	패	게임차
에이스	37	23	
에인저스	33	22	1 1/2
와이트삭스	31	22	2 1/2
에인전슬	31	29	6
로열즈	20	30	12
마리너즈	21	36	14 1/2
투인즈	17	39	18
양키즈	34	22	
올리올즈	31	23	2
브루어즈	31	25	3
타이거즈	31	26	3 1/2
레드삭스	38	26	4
인디언즈	36	24	5
블루제이스	16	42	19

◇최우수 선수상의 게리·카터가 플라이·볼을친 이슬러선수와 같이 하늘로 올라간 공을 쫓고 있다.

박부총영사 우승

대사배 골프대회서 80점

제3회 주 캐나다 한국대사배쟁탈 골프대회에서 박영철 토론토총영사관 부총영사가 80점으로 1위, 전년도 우승자 고광남씨로부터 영예의 애뉴얼·트로피를물려 받았다.

지난8일 캐슬모아 골프장에서 한인골프협회(회장 정정흥)주관으로 열린 이 대회에는 예상보다 적은56명 골퍼가 참가했다.

서울서 방문차온 백광수씨는 이날 박부총영사와같은 80점을 쳤으나 "출전자는 북미거주 교포에 한 한다"는 대회규정 때문에 넷C조1등 트로피만 탔다.

박부총영사는 한인사회 골프대회에서 항상 1~3등 권내에 든 싱글·핸디 골퍼이다.

◇박영철 부총영사

◆그로스
1등 박영철 80
2 이광민 82
3 정정흥 84
◆넷A조(핸디18이하)
1등 최동호 89 18 71
2 차자윤 87 15 72
◆넷B조(핸디19이상)
1등 송종남 87 24 63
2 강경하 88 24 64
◆넷C조(노·핸디)
1등 백광수 80 71
2 김덕수 104 72
◆롱게스트 차선행 270야드
니어리스트최동호 6피트
◆수퍼10
최동호·김형도·노중길·함태호·송종남·최충식·강경하·김인환·차선경·정창헌·원병흠·곽창수·김창환

동창골프대회 서울대 동창회

토론토의 서울대동창회(회장 이창회)의 골프대회가 9월5일(토)상오10시 캐슬모어골프클럽에서 열린다. 많은 동창의 참가를 바라고 있다.

연락처：365－1450 Ext 3249(이창회)
244－5124(김태진)

의회소집 클락 요구

정부는 즉각 의회를 소집, 경제위기대책을 재검토하라고 야당보수당의 조·클락당수가 요구했다.

오는 17일에있는 쾌벡주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당 라살레 후보를 지원나온클락 당수는 8일 캐나다달러의 하락과 이자율 급상승에 대한 정부의 무능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의회소집을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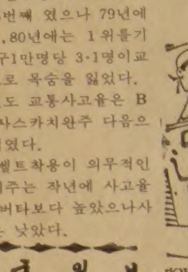
클락당수는 "나라는 위기에 빠졌는데 정부는 휴가중이다"고 트루도수상의 아프리카 여행과 라롱 에너지장관의 휴가를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우리보다 더 약한나라들의 통화를뒤쫓고 있다"면서 메케큰 재무장관의 최근 연설을 비난했다.

메케큰 장관은 최근 "우리달러는 많은나라의 화폐가치에비해 양호하다"고 말했다.

의회소집을 요구한 클락당수는 정부는 새 예산을 편성, 주택소유주와 소규모 기업가들에게 특별감세조처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걸작만화



"OK-so it's the highest priced fuel in the county-who cares?"
「기름값 한번 비싸겠군, 할수없지」

한국일보 533-2361

캐나다 강적큐바 눌러

세계야구선수권 대회

(에드몬톤)9일열린「대륙간컵」쟁탈 세계야구선수권 대회에서 캐나다가 강적 큐바를 2：1로눌러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캐나다의 선발투수 페리·리착은 29명의 타자를 맞아 8개의 삼진을 탈취, 1점으로 막는 대활약을 보였다.

이날 양팀의 영의행진을 깬것은 캐나다의 8회초 공격이다. 2안타를 포함, 2개의 희생번트와 데드·볼로 2점을 올린 캐나다는 8회말 큐바의 강타선을 1점으로 막았다.

9회말 큐바의 마지막 공격을 맞은 리착 투수는 선두2명을 삼진으로 잡고, 세번째 페드로·조바를 3루땅볼 아웃 시켰다.

게임후 전년도 우승팀인 쿠바팀의 보그스 감독은 "우리가 한 투수에게 이렇게 농락당한것은 10년만에 처음인것 같다"고 리착투수를 칭찬했다.

한편 한국팀은 파나마를 8일 13：8로눌러 현재 쿠바와 같이 3위를 마크하고 있다.

미국은 3승무패로 선두를 달리고, 캐나다가 3승1패로 뒤를쫓고 있다.

9일현재 1~6위까지의순위는 다음과 같다.

1위：미국(3승)
2위：캐나다(3승1패)
3위：한국(2승1패)
4위：쿠바(2승1패)
5위：토미니카(2승2패)
6위：일본(1승2패)

교통사고 사망율 최고

알버타주 싯·벨트법 추진

(에드몬톤)알버타주는작년도에 교통사고로 645 명이사망, 인구당 사망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교통당국은 운전사의 나이가 대체로 젊고, 부유하며 또 휘발유값이 가장 낮기때문에 대형차들이 아직도 판을치는것을 이같은높은 사망율의 원인으로 지적 했다.

수퍼·하이웨이에서의 주행속도는 시속 110km(약 66마일)로 북미에서 가장 높다.

딜러에서 중고차를 살때도 안전검사필증이 필요없어 정비불량차도 많으며, 주택지안의 많은 교차로는 스톱이나 양보표시판이 없다.

헨리·크뢰거 주교통부장관은 온타리오주같이 운전사의 싯·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주장했지만 내각의 과반수 지지도 못받는 형편이다.

크뢰거장관은 작년 사망자중 297명은만일 싯·벨트를 했더라면 목숨은 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알버타의 사망율은 78~80년 2년간 27%가 뛰었다. 3년전 인구당 사망율은 전국서 5번째 였으나 79년에는 2위, 80년에는 1위를기록, 인구1만명당 3·1명이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작년도 교통사고율은 BC주, 사스카치완주 다음으로 3위였다.

싯·벨트착용이 의무적인 이 2개주는 작년에 사고율이 알버타보다 높았으나사망율은 낮았다.

북한, PLO에 무기

잭·앤더슨씨 칼럼서 주장

(워싱톤9일＝연합)세계각지의 테러리스트를 훈련하고 무기를 공급했던 것으로 알려진 북한은 최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에게 장거리로켓트포등을 공급하고 있다고 컬럼니스트 잭·앤더슨씨가 밝혔다.

9일자 〈워싱톤·포스트〉 일요판에서 앤더슨씨는 이스라엘의 베긴수상이 미하원의원들에게 최근 이스라엘 특공대의 베이루트공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정보를 밝혔다고 보고했다.

베긴수상은 이스라엘파인 2명의 미하원의원 에게 PLO는 어떤 테러그룹보다 더 위험하고, 조직적 인 단체라고 말했다고 앤더슨씨는 밝혔다.

"이스라엘 정보망은 PLO에게 오랫동안 무기를 공급한 나라는 북한, 불가리아, 리비아, 소련등인 사실을 알아냈다"고 앤더슨은 주장했다.

이것은 북한이 PLO에게 무기를 공급했다는 최초의 보도이다.

잭·앤더슨씨는 미국언론계의 유명한 언론인으로 〈워싱톤·포스트〉의「회전목마」란을 집필해 왔다.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㊳

팔리·모왓 원작, 천재훈 옮김

그러나 프라쯔가 그들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더이상 말해줄것같지 않아서 나혼자 그들을 관찰해야만 되었다. 둘이다 털이 밖으로 나오게해서 만든 가을에 잡은 사슴가죽의 훌리톡 이라는 파카를 입고 있었다. 불을 피우던 헤콰우의 파카는 어깨근방은 아주 흰털을 집어넣고 밑의 가장자리는 가는 가죽의 술깃으로 장식되었다. 오호투의 것은 목과 소매에 구슬로 수를 놓아서 더 화려 했다. 구슬과 털로 장식을 했어도 두사람다 목이 매우 짧아 보였다. 머리를 묶은 큰 헝겊은 낡은 천으로 되어 찢어지고 얼룩져서 솜씨있는 사람이 기운것이 아닌 것이 분명했다. 음식물과 동물기름이 흩어진 머리카락에 엉키어 붙고 여러가지 더러운 때가 옷의 털에 떡처럼 말라 붙었다. 파카 밑으로 맨살위에 카일릭이라고 부르는 짧은 털바지를 입었고 무릎까지 올라오는 노란 가죽장화를 신고 있었다.

이 사람들을 처음 갖고 냄새를 맡아본 나의 인상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지저분해 보였고 도대체 왜 깨끗한 옷을 입지못하는지 몰라 백인으로서 본능적인 멸시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그 사람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피상적인 생각에 틀림없었지만 과거에 많은 선교사들이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 "몸서리가 처질만큼 지저분한 야만인"이라고 이구동성으로 결정해버렸던바와 똑같았다. 그러나 그여름 바렌에서 옷같은 것은 나에게 아무런흥미가 없었다. 이사람들 에게 현혹을 당했기 때문에 입은 옷은 호기심으로 그저바라 보았을 따름이다.

헤콰우－사람들은 그를 곰이라고 불렀음－는 산같은 사람이었다. 그의 근육과 굵은 팔목이 낡은 파카 소매밑으로 보였고 불피우는 드릴을 놀리며 그의 굵고 짧은 목이 리드미칼하게 움직였다. 뻣뻣하고 까만 머리털밑으로 땀방울이 맺혀 경사진 이마를 타고 내려와 반쯤감긴 눈언저리의 반반한곳을 지나 납짝한그의 콧구멍 끝에 매달렸다. 넓고 탐직스럽게 두툼한 입술은 드릴의 리듬에 맞추어 실룩거리고 턱수염처럼 반백이된 머리카락도 같은 템포로 흔들거렸다. 그의 얼굴은 희극을 할 수 있을만큼 두차적으로 생겼고 깅한 야성미가 풍겨서 보고 있노라면 웃음을 억제하기 어려웠다. 짐승처럼 야성적이었지만 지능이 높아 보였고 햇빛에 그을러 가죽처럼 쭈글쭈글한 피부와 원숭이 같은 눈썹과 넓쩍한 빰에서 보는 인상과는 달리 유머를 즐기고 성격이 좋아 보였다. 헤콰우는 드릴을 치우고 바짝 마른 이끼를 불이 붙은 나무도막 위에 쌓아 놓고 그앞에 무릎을 꿇더니 탄탄한 눈가죽밑에 있는 눈을 꼭 감으면서 불따구니를 부풀리며 불을 불었다. 그는 계속해서 불고 불은 잠시 후에 파란 불꽃을 튕기며 나무에 불었다. 오호토는 젖은 버드나무 가지를 한아름 꺾어들고 물을 길어 왔다. 프란쯔는 개동에 메운짐속에서 귀중한 찻대를 꺼내서 불위에 걸쳐놓고 주전자를걸어 놓았다. 날씨가 하도 밝아서 불꽃은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생소나무가 타는 연기만 올라왔고 곧 물이 끓기 시작했다. 이제 오호토를 관찰해 보았다.

그의 얼굴은 젊고 둥글었고 늙은 헤콰우 처럼 주름이 전혀 없었다. 그의 머리는 이모도 목사가 이발한것처럼 투박하게 잘려져 늘어졌고 사슴털 처럼 거칠었다. 앞머리를 짧게깎아 넓은 이마가 들어나오고, 그밑에 있는 눈은 겨울 눈의 반사를 피하느라고 좁혀진 새로 머스크랫의 주의 깊은 눈처럼 까맣게 반짝였다. 오호투는 돌로 만든 빈파이프를 크고 사각형이 진 이빨사이에 연상 물고 있었다. 나는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재빨리 알아차리고 축축한 담배봉투를 꺼내 보이자 그는 활짝 웃어보였다. 나는 곧 그 동안의 고생을 잊어 버렸다. 드디어 나는 그들이 사는 심장부까지와서 이사람들과 함께 있었으며 떠날무렵 걱정을 했던 것들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찻주전자가 끓어넘치자 곧 불은 힘없이 꺼져버렸다. 프란쯔는 주전자에 차를 한줌 집어 넣었고 나는 차가 울어날 때까지 언덕위에 깔려있는 연약한 이끼위에 들어누워 피곤을 풀었다. 잠시후에는 고생스러웠던 여행이 끝이났다는 안도감에 취해버렸다. (계속)

◆연재만화〈삼국지〉는 편집사정으로 오늘 쉽니다.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고포특별우대… 이 쿠폰과 함께 20%할인 …남자용각종의류 및 악세사리 미스터오 FOR MEN
TIE CITY Square One 275-2187
Mister O Cumberland Centre 2 Bloor St. W. 964-2606
Mister O Commerce Court Centre 869-0589

감 사 말 씀

지난 8월8일 오리엔탈·팔레스에서 있었던 소생의 여식(장수회양과 권장하군)의 결혼 피로연에 성황을 이루어 주셨고, 새로 탄생되는 어린 가정을 따스한 정으로 축하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 드림이 지당한줄 알면서도 여의치 못하여 우선 지상을 통해 인사 드림을 용서 하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귀 가정에 주님만이 주실수 있는 은총이 풍성 하시기를 빕니다.

1981년 8월10일 장 순 채 가족 근배

Ontario

법무부 상임위원회

법안68조－1981년도 메트로경찰에 대한 불만소청조례

○ 법무부 상임위원회는 1981년 9월22일(화) 온타리오주 퀸스·파의 제1회의실에서 메트로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불평을 처리하는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메트로 토론토 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법안 68조로 하기위한 공청회가 있읍니다.

○ 동 위원회는 상기 법원에 대해 발표를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서면제출을 요청하며, 발표 요지문을 1981년 9월11일(금)까지 위원회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직접 발표를 위하는 분은 위원회 서기에게 개요를 요청해야 합니다.

○ 이 법률의 영문사본은 880BAY ST. TORONTO M5S 1Y8에 있는 온타리오 정부 서점에서, 또는 같은주소의 출판센터를 통해서 구할수 있읍니다.

RICHARD TRELEAVEN, Q.C., M.P.P.
Chairman

A. SMIRLE FORSYTH
Clerk of the Committee

Room 1502, Whitney Block
Queen's Park
Toronto, Ontario M7A 1A2
416 965-6834

"社會紀綱문란행위 嚴斷"

李법무장관지시 月精寺 폭력시위·韓銀사건등

新舊住持 5~6명 拘束키로

◇李法務部長官

李鍾元법무부 장관은 7일『최근 月精寺、佛國寺등2대사찰의 주도권을 둘러싸고일어난불법집회、시위、폭력사태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추락시킨한국은행 釜山지점 사건등은 사회기강과 국법질서를 크게문란케한 사건이다』고지적、『이같은 유형의 사건을엄단하라』고 전국검찰에 특별지시했다。

李장관은 이 지시에서 『우리사회의 일각에는 아직도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집단적시위로써 자기의 의사를 관철하고자하는 작태와 공직을이용한 부조리가 상존하고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는 비합법적인 집회、시위행위나 폭력을 자행하는 단체 또는 집단은물론 공직자가 그지위를이용 이권에개입、청탁알선하는등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부정비위도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안보적 차원에서 이를 엄단함으로써 정의사회를 구현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실현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李장관은 이밖에 앞으로검찰은▲학원、종교계、노동계、사회단체 기타모든집단의 불법집회시위 또는 폭력난동행위▲청탁압력、고위층빙자등 불신풍조조장행위▲공직자사회의 모든 부조리행위등에대해서는 구속수사및 기소、법정최고형구형의 엄단원칙을 관철하여 법과 질서를 수호하고 국가기강을 확립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라고강조했다。

이에따라 月精寺 신입주지 부임을 둘러싼 폭력사태를수사해온 대검중앙수사부는 이번폭력사태가 국법질서를 해친 심각한 것이었다고판단、신입주지 金能慧스님(42)과 구주지측 행동대장 李相烈스님(39·月精寺전총무)를 포함 주모자급 5、6명을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및문화재보호법 위반등 혐의로구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고위관계자는 이날하오『현지 검·경찰의 조사가 끝나는대로 8일상오께 처벌한계를 최종확정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에의하면 신입 주지측 金能慧스님등 4명은 불량배를 동원、月精寺에 야간침입한 혐의등을 받고있으며 전주지 張희찬스님등8명은 후임주지입명에 불복、사찰내 철조망과 바리케이드를 치고 신도들을 집단선동했다는 것이다。

公職者 財産등록 크게 縮小

內務委 倫理法심사小委 外國制度 시찰비교

高位職에 制限해 성공 싱가포르

本人·배우자·扶養가족만 대상

필리핀 범위커 死文化…實効있어야

動産한계 難點 政府原案修正 작업

국회내무위 公職者倫理法심사 6人小委는정부가 마련한 공직자윤리법안중 등록의무자의범위와 등록재산의범위를 대폭축소시키는 방향으로 修正案을 마련할 계획이다。國會는 이와함께 同法이 제정된 뒤에도 공직사회풍토의 효과적인 淨化를위해서 與件조성을 감안、실시시기도 신중을 기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있다。지난달 14일부터 필리핀、싱가포르、스웨덴、스위스등 외국의 공직자윤리법의 운영실태를 시찰하고귀국한 金宗鎬내무위원장과 柳尙昊小委위원장을 비롯한 공직자 윤리법 심사小委 멤버들은 7일『공직자윤리법안을 수정 또는 보강할 필요가있다』고 전제하면서『지난6월의 공개간담회내용과 이번에 시찰한 외국의 例를토대로 한국의 여건에 알맞게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金위원장은 『오는 10일께 내무위원들을 소집、비공개간담회를 갖고 외국시찰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으며 柳尙昊小委위원장도 『정기국회 이전까지 小委를 여러차례 소집、정부原案의 修正작업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金위원장은 특히 『부패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제도는 싱가포르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도 운영의 實效를 거두기위해 싱가포르처럼 등록자범위와 등록재산의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6人심사小委의 柳尙昊위원장도 『필리핀은 전체공무원이 등록의무가 있는데다 전재산을 등록토록되어있어 업무량이 너무많아 點檢이 불가능하기때문에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반면 싱가포르는 등록대상이 국장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에게만 제한되어있고 등록재산의범위도 한정되어 성공하고있다』면서 앞으로 法案심의과정에서 등록자數와 등록재산범위를 축소시킬뜻을 비쳤다。

그는 싱가포르의경우 등록의무자가▲본인▲배우자▲부양자녀등이라고 밝히고、우리나라도 배우자와 부양가족으로 줄이는게 보다 효과를 거둘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政府案은 등록대상자범위에 3급이상(현직제로는 5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본인▲배우자▲본인의 직계존비속까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중 出嫁와 결혼한 卑屬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教育稅 신중檢討를"

柳民韓총재 定期國會서 다뤄야

柳致松民韓黨총재는 7일『교육세는 매우 중대한 事案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안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재무위를 열어 논의한다는것은 타당치 못하며 오는 정기국회에서 충분히 다루는것이 좋겠다』고 말함으로써 최근 民正黨측이 제의한 교육세신설논의를 위한 국회재무위와 문공위 연석회의에 불응할 뜻을 시사했다。

그는 『재산세에 50%를 부과토록한것은 앞으로 재산세 課標를 올릴경우 세부담이 한없이 늘어날 우려가있다』고 지적한후『이 문제에대한 黨論을 확정하기전 교육세문제를 충분히 연구、검토할것을 정책관계자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柳총재는 후원회구성등 정치자금조달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방안이 없으나 시일을 두고 연구해야할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辛相佑사무총장은 후원회구성등 정치자금문제에 대해 『지난번 3黨총장회담때 당장 자금이 바닥났으니 중앙선관위의 寄託金制를 활용하자고 요구했었으나 民正黨측으로부터 후원회구성과 병행하여 기탁금문제를 생각해보자는 답변을 들었다』며 『현재로서는 3黨총장회담에서 제시한 單一후원회구성외에는 별다른 해결책이없으나 총재단과 이문제를 다시 논의、해결책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韓半島정세 意見접근

日、緊張인정·한국防衛노력 評價

日紙보도、外相會談때 방침

【東京7日=聯】일본은 오는20·21일 양일간 개최되는 韓日외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방위노력을 평가하는한편 북괴가 군사력을 한층 강화시키고 있다는 견해를 표명함으로써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양국간의 인식의 격차를 좁힐 방침인 것으로 7일 보도되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외무성이 ①남북대화를 진전시키기위해 일본이한국측에 노력한다는 의사표명을 유보하는대신 ②한국의 방위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③한반도에 긴장이 존재한다는 종래의 인식에 덧붙여 북괴의 군사력증강사실을 강조하는등 외상회담에 임하는기본방침을 정했다고보도했다。

이는 그러나 스즈끼(鈴木)내각이 지금까지 한반도정책의 기본으로 내세웠던 남북대화촉진을 후퇴시키고 대신 한국방위노력평가에 중점을 둠으로써 야당측으로부터『한반도정책을 대화에서 대결로 악화시키는처사』라는 반발을 불러일으킬것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금까지 일본이 남북대화촉진을위한 환경조성보다는 북괴의 위협과 대치하고있는 한국입장을 충분히 인식하여 경제협력을 증대시키도록 노력할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이같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의 접근에도 불구、『한국의 방위노력은 일차적으로 한국자신의 것이며 결과적으로 일본안전에 기여한다는 판단아래 일본도 미군기지를 제공、한국에 유익한 역할을 담당하고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외무성이 거액의 차관요청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美、軍事費 대폭늘려

87年까지 5年間 1兆6千億

【워싱턴6日AP=聯】美국방계획 수립가들은 83회계연도부터 87년까지의 5개년동안 총 1조6천억달러가넘는 기록적인 국방예산을 입안했다고 국방성 소식통들이6일 전했다。

이같은 새로운 5개년 국방예산계획은 레이건 행정부가 미국의 군사력 강화계획을 추진키위해 지난3월 의회에 제시한 당초의 5개년안에 비해 약 2천억달러를 증액시킨것으로 육·해·공등 각군이 실질예산증가율을연 7%로 유지하는 국방정치시에따라작성·제출한안을토대로마련된것으로알려졌다。

◇美법정의 소환령을받고 격려 포옹하는 管制士들 파업중인 인디애나폴리스 공항 관제사 2명이 파업문제에관한 美연방 치안판사의 법정 소환령을 받고 서로 격려의 포옹을하고있다。 ★기사3면 【인디애나폴리스6日AP電=聯】

"請託하지도 받지도말라"

南總理 모든 公職者에 강력지시

南惠祐국무총리는 7일『우리사회의 부정부패추방은 당면한 국가적 대명제』라고 강조、국무위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은 청탁을하지도、받지도 말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南총리는 이날하오 국무회의에서 朴世直 前首警司令官의 청탁관련사건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朴前수경사령관에 대한 全대통령의 단안은 수경사령관개인에 대한것만이 아니고 국무위원과 공직자 모두에 대한 매질이자 편달』이라고 말했다。

南총리는 특히『軍수뇌부의 1人자이자 오랫동안 아껴온 朴前수경사령관에 대한 全대통령의 泣斬馬謖의 심경을 이해하고 그지도방침을 따라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막사이사이賞 世界이해部門에

康貞烈씨 (아시아信用協組聯合會事務局長) 수상

【마닐라7日AP=聯】아시아신용협동조합연합회사무국장 康貞烈(58)씨가 1981년도 막사이사이賞 세계이해부문수상자로 결정됐다고 재단이 7일 발표했다。

이 재단은 강씨가 지역사회의 협동정신을 불러일으켜 경제적、인간적으로 안정된 신용조합을 육성하는등 실천적 민주주의를 보여주었다고 시상이유를밝혔다。강씨는상금으로2만달러를받게된다。

丁議長 귀국

美洲순방 마치고

丁來赫 국회의장은 26일간의 美國및 콜롬비아 방문을 마치고 7일하오 7시30분KAL便으로 귀국했다。

丁의장을 수행한 柳鍾賢(民正)·林鐘基(民韓)·趙炳鳳(국민)·朴定洙의원(議政同友會)등도 이날 함께 귀국했다。

李揆煥 2等兵강등

국방부서 발표

국방부 당국자는 7일전 수도경비사령관 朴世直육군소장에게 각종사업상의 청탁을 한 李揆煥씨는 예비역 대령이 아니라 보충역 이등병이라고 밝혔다。

鳳凰大旗 고교野球

오늘의 對陣 (8日)

◆1회전
▲江陵高—德壽商 (9시반)
▲南大田—培文高 (10시반)
▲世光高—明知高 (1시)
▲大田高—中央高 (3시반)

어제의 成績 (7日)

	1	2	3	4	5	6	7	8	9	10	계
普成高	0	0	0	1	0	0	0	1	3		5
大邱商	0	0	0	0	2	1	0	1	0		4
清州高	0	0	0	1	0	2	0	0	0	2	5
心石綜	0	0	0	0	0	2	0	1	0	0	3

〈10회연장〉

	1	2	3	4	5	6	7	8	…	계
江陵高	0	0	1	0	1	0	1	0	…	0
德壽商	0	0	0	2	0	1	0	0	…	0

〈연장12회회수제한일시정지 이상계속경기〉

	1	2	3	4	5	6	7	8	9	계
木浦商	1	0	0	1	0	0	3	0	4	9
慶南商	0	3	0	0	0	0	0	2	2	7
徽文高	1	0	×	×	×	×	×	×	×	×
全州高	0	4	×	×	×	×	×	×	×	×

〈하오6시20분현재〉

한독양말 협찬

社會漫評

立冬추위…

地平線

장사를 하는건 돈을 벌자는 것이다。그러니까 장사엔「인정사정」이 있을수없다지만 사실은그렇지않다。지난해12월 당국이 밝힌「노동력유동상태」조사에 따르면 직장에취직하는 사람의 51·6%는 일가친척이나 연고를 찾아서 사원으로 채용됐다는 것이다。결국은 현대적인 기업도 사실은 옛날그대로란말이다。기업의 능률화·합리화는아직 먼 일이다。▼경상도 달성군의 한 고을에는 판검사가 되겠다고 머리를 싸매고 책과 씨름하는 고시지망생의 마을이 있다고한다。합격자가 많이 났다는 소문이 번져 30가구에 70여명의 하숙생들이 밤낮으로 책을 읽고 있다는 것이다。최근까지 이 마을을 거쳐간 6백여명중 1백여명이 합격했다한다。말하자면 과거공부하는 벼슬지망생의 마을이라고도 할수있다。▼사회가 현대화하면서 빛을잃기보다는 거꾸로 더 유행하고 있는게 우리사회엔 많다。족보도 그중의 하나다。이제는 족보도 종이에 인쇄하다 못해 비디오로 만드는 문중까지 있다고한다。컬러·텔리비전에 걸어놓고 볼수있는 비디오로 60분짜리라면 1천만원쯤 드는 것으로 알려져있다。선조의 무덤을 사진으로 담고、집안의 도표에다 종친회의 사진도 넣는것이다。▼한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사람의 87%가 아직도 음력설을 쇠고있다한다。행동과학연구소가 작년10월에 내놓은 것을 보면 이사가는 사람들의 48%는「손없는 날」을 택한다고 한다。미국땅 로스앤젤레스에서까지 우리 점장이들이 10여군데서 장사를 하고있다 한다。점치기 좋아하는 한국교포 상대로 재미를 톡톡이 보고있다는 얘기다。▼점장이로 돈을 번 한 할머니가 의문의 죽음을 했다。「원효로 보살」이라 불리었다는 尹할머니는 정치인이나 높은 벼슬아치들을 상대로 점을쳐왔다한다。점도 잘 쳤지만、모은 돈을 불리는 데도 재주가 있었던것 같다。다방·여관·운수업에 손을 댔고、미국에도 농장을 갖고있어 재산이 10억이라고도 한다。직계 상속자가 없는 그의 재산목록은 아직 분명치않다。▼尹할머니의 과거나 현재가 잘알려지지않은것처럼 죽음의 원인도 아직 분명하지 않다。생전에 이 엄청난 재산으로 재단을 만들어헌납할 작정이었다는 사실로 봐 재산을 탐낸 살인이었을 가능성이 짙다는 추측도 있다。어쨌든 점으로 벌어서 불린 돈때문에 죽은 이尹할머니의 얘기는 전형적인19세기판 얘기책의 주인공과도 같다。우리 발밑에 도사리고있는「과거」의 유산의 재발견이라고 할수있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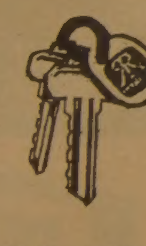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01
은 : 온스당 US 8·81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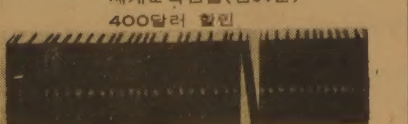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각종 부동산의
매매및 상담이
필요하십니까?

• Commercial and Industrial Plaza Building.
• Apartment Building
• Hotel and Motel
• New Store Lease
오랜 경험과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로 수익성 높은
투자를 안내해 드립니다
김시성
(B)497-0600
(R)298-8558
D.R. McALLISTER
250 Consumers Road

아직도 작년값으로 팝니다
밍크
털오바를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털 오바◆
새 진열장을 갖추고 고객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밍코트, 자켓, 모자, 스톨, 털목도리등.
BIG SAVINGS NOW!
• 영업시간
: MON. TUES. WED. SAT. 9:30-6:00
THURS. FRI. 9:30-9:00
• 신품 : $990이상 • 중고품 : $100이상
202 SPADINA AVE.
MRS. PARK
☎ : 363-6077

BRITANNICA

BRITANICA 3
대형백과사전(전30권)
GREAT BOOKS
세계문학전집(전54권)
400달러 할인

• 특히 학자, 학생, 사업가, 부모들을 위해
30만종 이상의 각 방면에 관한 자료를
무료로 제공함.
오후5시 이후 신용 목 배
• 교인, 학교 각 단체회원에게 특별할인
• 타 백과사전 소지자께 특별할인
• 소년용, 아동용 백과사전도 있음
문의처 : 536-9082(B). 245-7522(R)

Addison
BUICK
PONTIAC
CADDILLAC
Cadillac

원재훈
새차와 중고차 LEASING
전 북미주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GM의 신형모델 J2000가 에디슨에 나와 있읍니다. 각종외국 수입품보다 Engineering. Technology. Gas Mileage에서 월등하며 GM역사상 가장 센세이숀널 J2000를 시운전 해보시고 북미의 이 새로운 Feeling을 체험해 보세요.
ADDISON BAY at COLLEGE
(B) 964-3211 Howard Won

蘇、발트海서 史上최대 上陸훈련
核潛·航母등 40척동원
攻擊用상륙艦도 差出
스웨덴南部지역 이동

【스톡홀름6日AP=聯合】 소련은 북구비핵지대화 구상안에 대한 얘기가 고조되고있는 가운데 최근 발트해상에서 북양함대·흑해함대및 태평양함대소속 함정들을 동원하여 사상최대규모의 상륙기동훈련을 실시중인이 확인됐다고 스톡홀름에 본부를둔 스웨덴해병대사령부가 6일 발표했다。

스웨덴해병대사령부는 수척의 대형 상륙함과 핵잠수함、그리고 1척의 항모를포함한 약40척의 소련함대가최근 세계각지로부터 발트해에 집결、지난5일 발트해 동남쪽 해상으로부터 스웨덴 고틀란트남부지역으로 이동했음이 스웨덴합동정찰기및 해군부대들에의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스웨덴해병대사령부대변인은 소련해군의 이번기동훈련이 지난78년과 80년 소련에 한정된 발트해국가지역 연안에서 실시된 종전의 발트해훈련과는 함정의 규모、병력동원수면에서 판이하게 다르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훈련을 위해 5백명의 완전무장병력을 수송할수 있는 강력한 공격용상륙함 이반·로고프호(1만3천톤)등 다수의 상륙함정들이 소련의 4개함대인 발트함대、북양함대、黑海·地中海함대및 태평양함대로부터 차출됐다고 말했다。

이와때를 같이하여 벤저민·웰즈 美국방성대변인은 이날 뉴스·브리핑에서 소련이 현재 발트해에 17척의「최우수」전투함과 52~54척의 소형 상륙함정을 배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같은발트해자역 蘇함정수가「극적인증가」는 아니나「상륙능력의 대폭적인 증강」이 이루어졌음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스웨덴해군소식통들은 스웨덴전투기및 헬리콥터들이 지난6일 제2차 세계대전후 사상처음으로 발트해에 진입하는 蘇항모 키에프의 모습을 포착했다면서 그러나 통상적으로 흑해·지중해및 북대서양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소련최대의 이 키에프항모가 핵무기를 장비했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20년전의 베를린장벽 구축현장 東獨군인들이 20년전인 61년 8월13일 西베를린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베를린장벽구축을 위한자재를 운반하고있는광경。금년은 베를린장벽이 건설된지 20년째되는 해이다。【베를린7日UPI=聯合】

蘇極東地上軍 51개師로增强

【東京6日聯合】 소련은지난해 극동지상군을 5개사단을 늘려 현재 소련의 극동지상군은 51개사단으로 강화됐다고 오오무라·죠오지(大村襄治)일본 방위청장관이 6일밝혔다。

오오무라 장관은 주말에방영될 TV녹화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 소련의 극동지상군은 몽고에 5개사단、시베리아 연안에 21개사단、시베리아 철도연변에 8개사단、캄차카반도 페트로파블로프스크에 1개사단、사할린(樺太)에 3개사단、일본이 자국영토라고 주장하는 북방열도에 1개사단、中蘇국경지대에 12개사단이 각각 배치돼있는것으로 군사분석가들은 관측하고있다。

레이건、罷業에 超强硬
航空管制시스팀 全面再編명령
職場복귀管制士 1천2백명

【워싱턴6日UPI=聯合】 레이건 美대통령은 6일 정부가 설정한 직장복귀최종시한을 무시한 직업항공관제사들에 대한 1차해고조치를 단행한데 이어 미국의 항공관제시스팀을 전면 재편하도록 명령함으로써 계속되고있는 항공관제사 파업에 강경대처할 방침임을 거듭 확인했다。

데이비드·저겐 백악관대변인은 이날 레이건 대통령이 항공관제사들의 해고조처와 관련、기존美항공관제시스팀의 재편을 명령했으며 이에 따라 드루·루이스 운수장관이 6~7일중 이계획을 입안하기위해 항공실무자들과 대책회의를 가질것이라고 말했다。

저겐대변인은 레이건 대통령이 루이스 운수장관으로부터 현재인원보다 2천~3천명의 관제사가 적어도 항공기운항을『안전하고 효율적으로』할수 있다는 보장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레이건 대통령이 관제사들의 해고조치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있으나 직장에 복귀하지 않은 관제사들에 대해서는 대량해고하는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아직도 믿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7日UPI=聯合】 1만3천 美항공관제사들의 파업돌입 4일째인 6일현재 레이건 대통령의 최후통첩에 굴복、직장에 복귀한 관제사들의 수는 약1천2백명정도에 머무르고 있으며 美연방항공국(FAA)은 지금까지 총 4천6백45명의 파업자들에게 해고통지서를 발송한것으로 알려졌다。

美 취항 항공기에 출발허가신호금지
국제管制士연맹

【워싱턴7日UPI=聯合】 세계 60개국 항공관제사단체를 회원으로 갖고있는 국제항공관제사연맹(IFATCA)은 「부자격요원」들을 관제사로 사용하고있는 미국의 현사태와 관련、항공기 충돌위험을 줄이기위해 회원국관제사들에게 미국으로 취항하는 항공기의 출발허가신호를 보내지말도록 촉구했다。

中東平和協商을 계속 推進
레이건·사다트會談서 合意

【워싱턴6日UPI=聯合】 방미중인 사다트이집트대통령과 레이건 美대통령은 6일 교착상태에 빠진 중동평화협상을 계속 추진해나가고 전세계에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있는 소련의 위협에 공동대처한다는데 합의했으나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평화협상참여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것으로 알려졌다。

5일에 이어 이날 백악관에서 사다트대통령과 2차정상회담을가진 레이건 대통령은 회담후 기자회견에서『우리는 2일간의 회담을통해 ▲중동·서남아·아프리카등지에서의 蘇군사위협대처방안 ▲캠프데이비드협정에 입각한 중동평화협상재개문제 ▲美·埃양국간의 군사·경제협력강화방안등 세가지문제를 중점 토의했다』고 밝혔다。

레이건 대통령은 또 美·埃양국이 평화협상타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태세를 갖추고있으며 이번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은 사다트 대통령의 제안을을 경청했다고 말했다。

메아리
古典의 國譯

한국인은 조상의 문화유산으로 한글과 한문2개의 문자를 전수받아 쓰고있다。한글창제의 역사가 5백년이고 뿌리깊은 朝鮮朝의 崇華사상탓으로「기록의 유산」은 대부분 한문 典籍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史籍는 말할것 없고 사회사상의 자료나 문학서까지 거의 한문으로 남겨진 상태다。그래서 국문학 분야에선 한문소설이 과연 우리 문학사에 포함될수 있을까 하는 논쟁도 벌어진다。

교과서에도 소개된 九雲夢、玉樓夢、춘향전、심청전등은 고전소설로너무나 유명하나 순한문으로 지어진 문학작품은 일반에 알려지지않은것이 더욱 많다。

서울에 와서 한국문학을 전공한 자유중국의 소장학자가 지난해 우리나라의 한문소설을 모아 정리하여 크게 주목을 끈 일이있다。중국문화학원대학의 林明德교수는 그가 유학중에 수집한 한문소설 1백70편을 전집 9권으로묶어놓았다。

이 전집의 분류된 내용을 보면 夢幻·夢遊록、영웅·역사편、戀人·풍자편、애정、가정소설 전기등이다。물론 이 가운데엔 우리 일반 독자에게 아주 낯선 것도 상당수 들어있다。

林교수에 의하면 이 작품속에서 韓民族의 모습을 여러모로 읽을수 있다고 한다。우리 민족의 기질은 명랑 소탈하고 낙천적이며 솔직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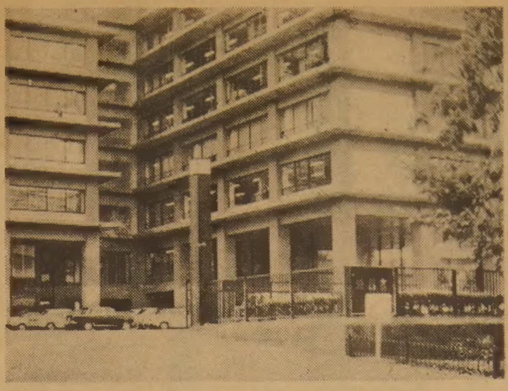
고전은 고전 자체로서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자아의 발견」이라는데서 더한층 값지다。이런 귀중한 정신적 기록을「한문의 장벽」에 막혀 좀체로 접할수 없는 안타까움은 크다。

조상이 남겨준 문화의 유산은 우리가 끊임없이 발굴하고 또 후세에 전수할 의무가 있다。이 사명을 맡는것이 고전國譯사업이다。현재 민족문화추진회등 5개 기관에서 國譯사업을 맡아 지금까지 70여종 4백여편을 출간했다(한국일보 7일자 7면)。

역사의 유산인 40만~50만여종의 典籍을 생각하면 까마득하다는 느낌이 든다。최근 문자생활이 점차로 한글전용으로 흘러가고있음을 감안할때「고전과의 단절」이 매우 걱정된다。

젊은 한도를 사이에 한창 國學의 관심과 열의가 높아가고 있다。이들의 목마름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도 고전國譯사업은 좀더 체계적으로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하겠다。

韓日관계새轉換期
光復36年에 다시본 오늘의 日本 <3>



◇全方位외교의 産室―일본外務省건물。

經協미끼 中古·公害시설 輸出
南北韓「양다리外交」實利급급
國防은 美에떠맡기고…貿易逆調로 돈은 日本에
고기한마리보다「잡는법」을

일본외교의 기본은 八方美人식全方位외교에 있다。실리만을 추구하는 전방위외교의본질은 경제외교다。쉽게 얘기해서 일본은 국방은 미국에 맡기고、政·經분리를 내세워 경제번영만을 추구해왔다。

사실 65년의 한일국교정상화와 72년의 日·中共국교 회복이 모두 이런 경제적 차원에서 이뤄졌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업화에의 의욕에 넘친 한국은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필요로 했고、고도성장으로 경제가 팽창했던 일본은 그발출로를 한국에서 찾았다。이렇게 해서 노동집약적인 사양산업이 경제협력이란 이름으로 한국에 넘겨졌다。수출지향적인 공업화를 서둔 한국은 가깝고 아프터·서비스가 좋은 일본으로부터 기계와 원자재를 도입했다。

이런틈을 일본은 노후한 中古 시설의 처리와 공해산업의 수출에 활용했다。

한일정상화는 일본이 전죄를 뉘우치고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재정립하겠다는 생각을해서 이룩된 것이 아니었다。한일 경제협력의 시발점인 請求權자금은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의 무에서 施惠와 祝意金으로 둔갑했다。그래서 일본은 경협자금을 미끼로 내정간섭을 기도하기까지 했다。

한일 국교정상화때 外相을 지낸 오히라(大平) 전수상은 그의 회고록에서 한일 請求權문제에 언급、『權利와 義務의 선에서 생각하면 언제까지나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한국이 독립해서 이에대한 宗主國으로서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일본이『祝意』를 표한다는 형식으로 문제를 처리하는것이 솔직하고 실제적이었다』고 술회했다。

36년동안 인명과 재산을 앗아간 대가인 청구권이 어떻게해서 宗主國으로서의 祝意金으로 탈바꿈하게 됐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한일 경제협력은 연간 왕복무역액이 1백억달러에 이르렀으나 對日수입의 증가로 한국은 연간 30억달러에 가까운 무역적자를 내어 66년부터 80년까지 對日누적赤字가 1백90억달러에 달했다。

65년 한일정상화이후 일본으로부터 도입한 공공및 상업차관은 35억달러인데 이는 한국에 투자된 對外차관1백79억달러의 19%에 불과하다。이같은 통계가 일러주듯 한국은 中東의 인력수출을 비롯해 세계도처에서 땀흘려 번돈을 전부 일본에 넘겨준 결과가 되고 말았다。당연히 일본은 82년부터 시작하는 한국의 제5차 경제개발계획에 적극 참여하여 적어도 무역적자를 메워줄수 있는 정도의 공공차관을 공여해야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안정이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일본은 한국의 경제기반구축에 적극 협력해야한다。이같은 當爲論과는 달리 일본은 南北韓을 等距離에 두고 양다리외교를 폈다。

일본은 56년부터 北韓과 간접교역을 시작、71년까지 왕복교역이 1억달러에 이르렀으며、72년부터 크게 늘어나 74년엔 일본이 北韓에 2억5천만달러를 수출했고 1억8백만달러의 원자재를 수입했다。그러나 76년부터 北韓은 8백50억円의 對日外債를 갚지못해 對北韓무역은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

일본이 한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 韓日間의 基本조약 정신을 무시하고 南北韓을 같은 거리에두고 편리한대로 밀고 당기고 하는것은 신의를 저버린 행위인것이다。

지난6월 소노다(園田)외상은 韓日외상회담은 미뤄둔채 北韓의 玄峻極을 불러들여 정치활동을 묵인、한일관계를 한때 악화시켰다。

등거리외교에 대한 일본측의 變은 폐쇄사회인 북괴를 국제무대에 끌어내어 긴장을 완화시키고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자는데 있다고 말하고있다。

같은 사회주의국가인 중공과 소련이 北韓에 대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있는판에 일본이 무슨수로 北傀를 변질시키겠다는지 알수 없는 일이다。

소련의 極東군사력의 강화와 北傀의 군사력증강은 세계적화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있는 증거다。韓半島가 적화될때 일본은 방파제없이 풍랑에 휩쓸려 격동할것임에 틀림없다。

긴박한 국제정세는 일본으로 하여금 全方位 외교로부터 선택외교로의 전환을 강요하고 있다。

明治유신이후 西歐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배워、공업화에 성공한 일본은 배운기술을 결코 가르쳐주려 하지않는다。

한국의 상공인이 지난6월 이나마(稲山)경단련 회장을만나 기술이전문제를 제의했을때 그는 껄껄 웃으면서『일본이 오늘날의 기술을 쌓아 올리는데 1백년이 걸렸다』고 기술이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고기를주면 한끼를 때울수 있지만、고기를 잡는법을 가르쳐주면 일생동안 먹을수 있다』는 유태인의 속담처럼、진정한 韓日협력은 자본협력과 기술이전에 의한 국제적 水平分業의 실현에 있다。

〈東京=宋孝彬특파원〉

波勞組「경고罷業」돌입
90만勞動者·광부들 65개炭鑛 작업중단
對政府협상 결렬따라

【바르샤바7日聯合】 식량위기 논의에 관한 폴란드 정부와 자유노조간의 협상은 7일 10시간 동안에 걸친 1、2차 마라톤회담도 불구하고 아무런 합의점도 찾지못한채 결렬되고 말았으며 이에따라 공업중심지 카토비체지역의 90만노동자및 광부들은 7일에 예정대로 4시간동안의 파업에 돌입、소요사태를재연시켰다。

카토비체 자유노조지부 대변인은 정부와자유노조간의협상이 결렬된후 식품및 운수사업 공장들을 제외한 실레지바지방의 모든 공장및 65개탄광에서의 작업이 완전중단됐다고 밝혔다。

자유노조는 성명을 통해『자유노조전국위와 정부간의 협상이 아무 성과없이 실패로 끝남에 따라 실레지바 지방의 파업이 앞서 발표했던대로 단행됐다』고밝혔다。

카스트로 쿠바首相 다음주 멕시코訪問

【멕시코시티6日UPI=聯合】 쿠바수상 피델·카스트로가 다음주중 멕시코를 방문、호세·로페스·포르티요 멕시코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자신이 오는10월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할수있는 방안을 논의할것으로 보인다고 멕시코정부관리들이 6일 시사했다。

◇比방문중인 趙紫陽 필리핀을 방문중인 中共수상 趙紫陽이 6일 페르디난드·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선물한 모자를 써보고있다。【마닐라6日UPI=聯合】

캄보디아事態등 논의
中共수상 趙紫陽 訪比이틀째

【마닐라7日UPI=聯合】 中共수상 趙紫陽은 필리핀방문 2일째를 맞아 7일 페르디난드·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회담、캄보디아사태와 양국간 무역증진방안을 논의했다。

趙는 5일밤 자신을 위해 마련된 환영연설을 통해 이번 아시아순방이 캄보디아주둔 베트남軍의 조속한 철수와 캄보디아사태의 평화적 타결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분명히했다。

◇世界서 가장 못생긴 개 세계투견대회에서 최고상을차지한 폰 2세의 추한모습。캘리포니아주 페탈루마에서 열린 세계투견대회심사위원들은 폰 2세가 어느기준으로보나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개라고 심사평을 밝혔다。【페탈루마7日AP=聯合】

美·蘇 核兵器 현재로 均衡이뤄
美、潛艦미사일 優位
蘇、中距離미사일앞서
西獨政府보고서 公開

【본6日AP=聯合】 美·蘇 양대국의 전략핵병기는 현단계에서는 대체적인 균형을 유지하고있다고 6일 공개된 서독정부의 한 연구보고서가 밝혔다。

이 연구보고서는 미국이 잠수함 발사미사일 부문에서 절대적인 對蘇우위를 차지하고있는 반면 소련은 최근의 동·서양진영간 논란의 초점이 되고있는 중거리核미사일부문에서 월등한 對美우위를 유지하고있다고 말했다。

또 소련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부문에서도 미국을 앞지르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말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잠수함발사가 가능한 4천8백48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반면 소련과 바르샤바조약군은 1천3백기의 잠수함발사 핵탄두를 보유하고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거리核미사일 부문의 경우 나토국가내에는 겨우 18기가 배치돼있는반면 바르샤바조약국내에는 1천4백30기가 배치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부문에서는 나토가 2천1백52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는 5천5백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있는 바르샤바조약국측이 거의 대등한 숫자를 보유하고있다고말했다。

이보고서에 따르면 바르샤바조약군은 단거리미사일및 중거리폭격기면에서 1천3백對3백、6백50對90으로 나토를 월등하게 앞서있으나 양측의 전폭기 6백50대가 운반가능한 수는 핵장치면에서는 완전한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인볼링협회 창립기념대회

금번 한인 볼링협회는 창립기념 볼링대회를 아래와 같이 갖사오니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장소 소 : PLAYTIME BOWL LTD. (33 SAMOR RD)
시 일 : 1981년 8월22일 오후1시
게임종목 : 부부전—혼합 3경기 여 : 1, 3, 4, 7, 8
남 : 2, 5, 6, 9, 10
남자개인전—예선전 18등 까지 결승을 하게됨 (단, 총 6경기 총합순위 결정)
여자개인전—총 3경기
참가신청 : 당일 현장에서 접수함.
참 가 비 : 3게임당 $5·00
시 상 : 개인전 남 녀 1, 2, 3등
부부전 1, 2, 3등
HIGH SINGLE 남, 녀
장려상

연 락 처 : 742—2193(미스터 정)
622—0224(미스터 오)
759—8228(미스터 장)
주 최 : 한인볼링협회
후 원 : 대한체육회 재캐나다 지부.

ZENITH VIDEO SENTINEL SYSTEM™

특별염가

취급 품목
TV, RADIO
STEREO
ZENITH, SANSUI
AKAI, TOSHIBA

삼 성 사 668 BLOOR ST. W. ☎ : 533—4125

木浦商, 9회 홈인 러시

慶南商 3차례 追擊허사

9대5로

鳳凰大旗 고교野球

李虎聲이 3루타로 點火 4득점

제11회 봉황대기쟁탈 전국고교야구 이틀째인 7일 普成高는 전통의 강호 大邱商高를 격파, 파란을 일으켰으며 木浦商高는 22개의 안타가 폭발한 대공방전에서 慶南商高를 제압, 2회전에 올랐다.

2만5천여 팬들의 열광속에 서울운동장서 벌어진 1회전 경기서 普成高는 4-2로 뒤지던 9회초 마지막 공격에서 申昇鉉의 동점타, 崔明哲의 결승타점 라이트 희생플라이로 강적 大邱商高에 5-4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었다.

木浦商高는 쫓고 쫓기는 慶南商高와의 타격전에서 9회초 李虎聲의 우월 결승 3루타를 비롯한 3안타를 집중, 일거 4점을 올려 세차례의 타이를 깨뜨리고 9-7로 승리했다.

清州高는 전날 일시 정지되어 이날 계속된 心石綜高와의 연장전에서 10회초 心石綜高 포수 崔光信의 악송구로 결승점을 올려 5-3으로 승리, 1회전 관문을 통과했다. 德壽商高와 江陵高는 연장 12회까지 3-3으로 비겨 회수제한 일시정지게임으로 8일 상오 9시반 계속경기를 갖게 되었다.

◇3점째 홈인 江陵高와 德壽商高의 대진。6회말 德壽의 3번 金相元이 4번 金允培의 좌중간 안타로 홈에 슬라이딩, 3점째를 올리고있다。

普成도 巨木 邱商 잡아

清州, 이틀死闘 心石綜눌러

5—4

3대3으로 오늘續開

木浦商-慶南商

예상대로 양팀은 초반부터 격렬한 타격전을 전개했다. 기대했던 慶商의 우완 에이스 吳命錄은 어깨 고장에다 木商의 맹렬한 공격에 견디지못하고 4회에 마운드에서 물러났으며 木商의 선발 朱二泰역시 5회를 넘기지못했다. 6회 까지는 河忠孝의 2타점 적시3루타에 힘입어 慶商이 3-2로 리드. 그러나 木商은 7회초 선두 2번 李虎聲이 우전안타로 출루, 4번 陳誠의 포볼로 1사 1, 2루의 찬스를 만들고 5번 韓明安의 좌월 적시3루타로 전세를 뒤엎고 6번 丁權의 우전안타로 5-3으로 리드를 잡았다. 慶商이 8회말 2안타 1적실로 5-5의 세번째 동점을 이루자 木商은 9회초 2번 李虎聲의 2타점 결승3루타를 포함한 집중3안타, 1적실로 4득점 9-5로 승리를 굳혔다.

江陵高-德壽商

12회까지 사투를 벌였으나 두팀 모두 결승점을 뽑지 못했다. 江陵은 3회초 선두1번 申鉉萬의 좌전안타와 2, 3루 연속스틸, 3번 咸永淳의 중전 적시타로 1점을 선제。德壽商은 4회말 2개의 연속포볼과 적실로 2득점, 2-1의 역전리드를 잡고 6회말 4번 金允培의 좌중월 2루타로 1점을 추가했다. 江陵은 5회초 申鉉萬의 안타와 2적실로, 7회초에는 3번 咸永淳의 좌월2루타로 각각 1득점, 3-3 동점을 만들었다. 德壽商은 江陵의 왼손투수 徐萬植의 슈트와 커브에 4안타로 눌렸다.

普成高-大邱商

8회까지 득점에서 4-2, 안타수에서 8-5로 뒤지던 普成은 9회초 마지막공격서 申昇鉉의 동점타를 비롯한 연속 3안타, 1포볼로 1희타 1死를 만들어 게임을 뒤집었다. 1死후 7번 張永八이 포볼을 골라나가고 8번대타 梁宗吉이 적시좌전안타, 9번 金舌中이 2루앞 내야안타를 때려 1死만루의 찬스를 만들었다. 이어 등장한 1번 申昇鉉이 레프트 깊숙이 2타점 동점타를 때렸으며 계속된 1死 2, 3루의 찬스에서 2번 崔明哲이 라이트 희생플라이로 5-4로 역전승했다.

清州高-心石綜

心石은 기록적인 20개의 四死球와 2실책으로 자폭했다. 8회말 金晃泰의 동점2루타로 3-3으로 간신히 따라붙어 연장전에 들어간 心石은 투수가 범실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연장 10회초 心石은 내야안타로 나간 清州의 선두 1번 李重和를 포수견제구로 잡고 2번 朴海龍을 3진으로 잡아 모처럼 배터리의 활약으로 큰고비를 넘기는듯했다. 그러나 투수 金載基는 3번 韓章煥을 포볼로 걸리고 4번 李相明의 빗맞은 좌전안타를 맞았으며 포수 崔光信은 악송구, 결승점을 헌납했다. 清州는 계속된 2死 2, 3루의 찬스에서 포볼 2개를 더해 1점을 추가, 5-3으로 승리했다.

◇제2일전적 ▲1회전

	1	2	3	4	5	6	7	8	9	계
보성고	0	0	0	1	0	0	0	1	3	5
대구상	0	0	0	0	2	1	0	1	0	4

▲普成투수=辛炳允·趙光文(9회) 포수=韓萬征 ▲大商투수=馬洙鎭 포수=鄭昌和 ▲홈런=李龍洙(8회말·大商)

청주고 5 — 3 심석종고 〈10회연장〉

▲청주투수=張定淳 포수=南教祐 ▲심석투수=金鎭圭·金載基(6·9회) 포수=崔光信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강릉고	0	0	1	0	1	0	1	0	0	0	0	0	3
덕수상	0	0	0	2	0	1	0	0	0	0	0	0	3

정지〈연장12회 회수제한 일시정지〉 ▲강릉투수=徐萬植 포수=辛良善 ▲덕수투수=金相元 포수=金允培 〈이상계속경기〉

	1	2	3	4	5	6	7	8	9	계
목포상고	1	0	0	0	1	0	0	3	4	9
경남상고	0	3	0	0	0	0	0	2	2	7

▲木商투수=朱二泰·丁權(5회) 포수=陳誠 ▲慶商투수=吳命錄·裵時赫(4회) 포수=金亨俊

◇봉황더위를 밀어낸 봉황구장에는 응원의 함성이 진동하고 있다. 1회전 초반부터 연장전과 연장게임이 속출, 관중들을 열광시키고있다.

시원한 날씨 덕분에 觀客들 한결 편해

鳳凰 관람석

봉황더위를 밀어낸 봉황구장은 게임이 거듭될수록 응원의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특히 봉황대회 개막과 더불어 기온이 떨어져 관중들은 시원한 날씨속에 경기를 즐기고 있다. 대회개막 첫날인 6일의 서울기온은 최저 섭씨19도6분, 최고 27도6분을 기록했고, 7일에는 더 시원했다.

예년 이맘때에 비해 4~5도나 낮은 기온을 보이고있는 저온현상은 당분간 계속될것이라고 관상대는 예보했다.

5년째 봉황구장을 찾는다는 張世鎭씨(38·동대문구 면목동)는 『예년의 봉황대기 대회는 봉볕더위속에서 진행됐는데 이처럼 시원한 날씨를 만나니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태양모자와 빙과류를 파는 상인들은 매상이 전혀 오르지 않는다고 울상. 서울운동장서 10년째 태양모장사를 하고있는 黃元一씨(46)는 『봉황기 대회가 우리에게는 대목인데 올해는 날씨가 서늘해져 큰적자를 보게 될것 같다』고 했다.

決選토너 진출 15팀 확정

中大附高、輔仁商꺾어 合流

全國중고축구

【議政府】中大附高는 7일 議政府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19회 추계 중고축구연맹전 11일째 고등부에서 최종일 경기에서 輔仁商高와 0-0으로 비겨 1승2무승부로 12조 1위를 차지, 16강이 겨루는 결승토너먼트에 진출했다. 같은조의 雲湖高는 전반31분 金鄕晧의 결승골로 注文津水商高를 1-0으로 꺾었으나 1승1무1패를 기록하여 결선진출이 좌절됐다.

11조 경기에서 신예 普生高는 南鐵高와 대결, 후반서 朴鐘珏 선수가 1골씩 넣어 2-0으로 완승했다. 普生의 승리로 11조에서는 1승1무의 商榮高가 결선에 진출했다.

이로써 고등부 결선(16강)에는 서울에서 서울體高 漢陽工高 光云電工 徽新高 中大附高 東大附高 漢榮高 永登浦工高등 8개팀, 지방에서 信興實高 協成商 鶴城高 馬山工 洪州高 安養工 驪州商高등 7개팀과 中央高-利川農高 승자가 진출하게 되었다.

決選16強

- 漢陽工高
- 서울體高
- 光云電工
- 徽新고교
- 東大附高
- 漢榮고교
- 中大附高
- 永登浦工
- 信興實高
- 協成商高
- 鶴城고교
- 馬山工高
- 洪州고교
- 安養工高
- 驪州商高

1개팀 未定

◇제11일전적 ◆고등부

▲12조 운호 1(1-0 0-0)0 주문진수 / 중대부고 0-0 보인상 ▲등순위=①중대부1승2무 ②운호1승1무1패 ③주문진수1승1무1패(이상골득실차) ④보인상2무1패

▲11조 고생 2(2-0 0-0)0 남강 ▲등순위=①한영1승1무 ②동생1승1패 ③남강2패

◇제10일전적 ▲9조 고경신 1(1-0 0-0)0 고동북 ▲등순위=①경신1승1무 ②동북1승1패 ③용곡중1무1패

▲2조 서울체고 0-0 용문고 ▲등순위=①서울체1승1무 ②용문1승1무(이상 골득실차) ③파주공2패

花郎 내일結團

메죤등에참가

제12회 자카르타시 창립기념축구대회(13일~23일 인도네시아) 및 제25회 메르데카 축구대회(31일~9월20일 말레이지아)에 출전할 국가대표 花郎팀은 8일 상오10시 대한생명강당에서 결단식을 갖는다.

◇선수단명단 ▲단장=崔永根(자카르타대회)·吳完建(메르데카대회) ▲감독=李李雨(자카르타대회)·金貞錫(메르데카대회) ▲국제심판=白泰基(자카르타대회)·沈建澤(메르데카대회) ▲코치=金正男 ▲트레이너=金鎬坤 ▲팀닥터=文政植 ▲선수=崔光植 鄭聖教(이상GK) 朴成華 權五孫 張外龍 朴景勳 尹仁善 崔景植(이상FB) 趙廣來 李泰昊 李康助 徐元上(이상HB) 丁海遠 邊炳柱 黃石根 趙殷衍 吳錫載 李太燁(이상FW)

東國大 3대1 大勝

日本關西大선발초청蹴球

東國大는 7일 동교운동장에서 열린 日本關西지역대학선발팀초청 韓·日대학축구교환경기 1차전에서 3-1로 승리했다.

東國大는 전반10분 金世一, 30분 趙星奎가, 후반15분 孫七根가 1골씩 넣었고 關西大선발은 후반30분께 1골을 만회했다.

關西大는 8일 하오3시 光州에서 朝鮮大와, 9일 하오5시 清州에서 光云工大와 대전한다.

◇1차전 동국대 3(2-0 1-1)1 일본관서대

韓日교환경기 選手團 구성

대한체육회는 5년만에 부활된 81년도 韓日고교교환경기대회(東京·11~28일)에 출전할 축구, 연식정구, 테니스등 3개종목 52명(임원14·선수38)의 선수단을 구성했다.

선수단은 1, 2진으로 나누어 참가하는데 1진인 축구와 연식정구는 11일부터 18일 그리고 2진인 테니스는 22일부터 28일사이에 경기가 열린다.

▶축구는 錦湖高, 연식정구는 慶州工과 陝城女高팀이 각각 출전하며 테니스는 盧甲澤(마산고) 金載德(공주고) 宋明圭(대전고) 金仁喆(마포고) 朴良子(영암여고) 孔星玉(군산영광) 吳長蓮(브니엘) 金仁淑(중앙여고) 등이 각각 참가한다.

金준호 준준決에

KBS盃 레슬링

【釜山=聯】梁正模올림픽제패기념 제6회 KBS배쟁탈 전국 아마레슬링대회가 47개팀(고교31·일반16)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6일 九德체육관에서 개막되었다.

대회첫날경기는 자체급 준준결승전까지 진행, 첫날 학생부 자유형 주니어플라이급 2회전서 주니어국가대표 김준호(경북체고)는 김경규(부산체고)와 접전끝에 판정으로 이겨 준준결승에 올랐다. 또 학생부 그레코로망형 밴텀급에서도 역시 주니어국가대표 성해룡(대구영남고)은 최명환(전남체고)에 2분54초만에 폴승을 거두고 준준결승에 진출했다.

유니버시아드 대표선수 4명(유인택·손갑도·방대두·김종규)은 이번대회에 불참했다.

海外話題

罷業종식 協商案 승인

美메이저리그選手側 투표로

◆…美메이저·리그에 소속된 대부분의 야구선수들은 5일 美프로야구사상 유례없이 7주간이나 계속된 파업사태를 종식하기로한 협상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승인했으며 구단주들도 6일 협상안승인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기위해 시카고에서 회의를 가졌다.

이번 협상안승인 투표에 참가한 메이저·리그의 15개 팀중 10개팀이 선수만장일치로 협상안에 찬성했으며 나머지팀들도 거의 압도적으로 찬성표가 많았다.

한편 협정에따라 메이저·리그의 선수들은 파업이 시작된 지난6월12일당시의 대회규정을 그대로채택하기로 했다.

구시껜 隱退

곧記者회견갖기로

◆…세계타이틀을 13차례나 방어, 日本의 복싱영웅으로 군림했던 프로복싱 前WBA주니어 플라이급 챔피언 구시껜·요오꼬(26·具志堅用高)가 7일부로 복싱계에서 은퇴할것이라고 구시껜의 매니저가 6일 밝혔다。

구시껜은 곧 도오꾜의 한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은퇴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74년 복싱을 시작한 후 2년만에 도미니카의 후앙·구스만을 KO로 이겨 세계챔피언이된 구시껜은 지난3월 멕시코의 페드로·플로레스에게 타이틀을 잃을때까지 13차례나 타이틀을 방어, 총23승(15KO) 1패의 전적을 기록했다。【東京=聯】

리틀野球 예선

韓國, 臺灣에 완패

【臺北6日AP=聯】6일 自由中國의 臺北에서 폐막된 81년도 세계리틀리그 야구대회 극동지역예선 최종일 경기에서 한국은 홈팀인 自由中國에 7-0으로 완패했다。

自由中國은 이번 대회에서 우승, 오는 22일부터 美펜실베니아州 윌리엄스포트에서 열리는 세계리틀야구선수권대회 본선에 참가하게됐다。

세계리틀야구대회는 지난69년부터 시작된 11~12세의 소년야구팀들의 경기인데 自由中國은 지금까지 이 대회에서 모두 9차례나 패권을 차지한바 있다.

오늘의 競技

- 축구 19회 추계 전국중고연맹전 12일째 중학결선1회전(의정부공설운동장 10시30분)
- 수영 53회 東亞대회 첫날(서울운동장수영장)
- 레슬링 梁正模올림픽제패기념 전국대회 3일(釜山 구덕체)
- 복싱 13회 전국우승권대회 4일(장충체)

◇봉황대기야구 출전선수단 숙소

강릉고	강원복지관	☎0678
경남고	삼우장	☎1798
경남상	용궁여관	☎2034
경북고	왕도여관	☎8136
공주고	을칠여관	☎5811
광주상	신도여관	☎9136~8
광주일고	양미여관	☎4708
진흥고	초원장여관	☎8782
남대전고	삼오여관	
대구고	화성여관	☎9584
대구상	양미여관	☎4708
마산고	삼오여관	
마산상	동원여관	☎0722
목포상	미진여관	☎1617
부산고	계룡여관	☎9595
부산상	계룡여관	☎9595
성광고	화성여관	☎9584
심석종고	한성기숙사	☎4501~5
영동상	신도여관	☎0256
인천체고	미진여관	☎1617~9
전주고	백궁여관	☎2861
전주상	계룡여관	☎9595
천안북일고	초원여관	☎4557
청주고	강원복지관	☎0678
춘천고	명신여관	☎5687
광주진흥고	미진여관	☎1617
신세계	화성여관	☎9584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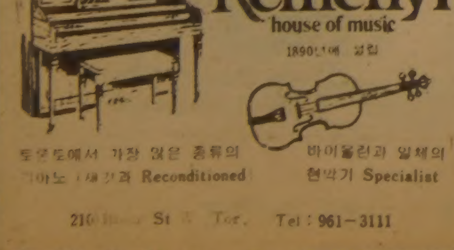
CLOVERDALE MALL
250 The East Mall, Suit 157
Islington, Ont. M9B 3Y8
(B)233-6236, (R)745-8236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의 중국음식 메뉴, 카드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제공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 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Spadina코너)
☎ : 977-3142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NIPPON VIDEO CENTRE
1993 Danforth Ave.
Toronto, Ont.
Tel. 698-0633
TOSH HAMAGUCHI
(하마구찌)
일본비데오센터
BETA, VHS두종류
※일본, 한국 테이프 준비됐읍니다
두종류의 테이프가 있읍니다.
●비데오테이프레코더의 판매
●비데오테이프대출(빌려줌)
월, 수, 토 : 오전10시~오후6시
목, 금 오전10~8시 회원모집(특별할인)
화요일은 문 닫습니다. 우드바인서쪽 1 block

陳氏眼鏡公司
MARWITZ Zeiss-Gruppe West Germany
ZEISS ●고급안경취급 West Germany
●Rodenstock
※콘택렌즈를 맞추시는 분께는 선글라스를 선물 합니다.
BAY OPTICAL CO. LTD.
LUCLIFF PLACE
700 BAY ST.(at Gerrard)
TORONTO, ONT.
TEL : 595-1665
●월~토 9 : 30AM~6 : 00PM
FASHION OPTICAL
525 DUNDAS ST.
(at Spadina Av.)
TORONTO ONT.
TEL : 363-0684
영업시간
●월~토 11AM 7PM

모든 악기를 취급합니다
부속품·악기수리·대여
Remenyi house of music
1890년에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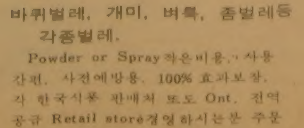


토론토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피아노 (새것과 Reconditioned)
바이올린과 일체의 현악기 Specialist
210 St. Tor. Tel : 961-3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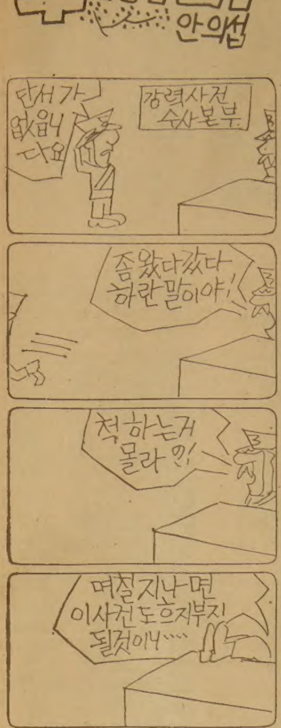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T. P. ADVERTISING GROUP
바우종합광고회사
●간 판 부 : 각종간판·윈도우 싸인·쇼-카드전문
●그 래 픽 디자인부 : 신문광고·상업디자인·비지네스및 개인명함 회사나 단체 마-크·각종포스터및 팜프렛
●인 쇄 부 : 도서(책자)·편집및 출판(광고지포함)
637A BLOOR ST. W. TORONTO.
☎ 535-0647, 0545
대표 송 관 헌

SUREKILLER



바퀴벌레, 개미, 벼룩, 좀벌레등 각종벌레.
Powder or Spray 저렴한 비용, 사용 간편, 사전예방용. 100% 효과보장.
각 한국식품 판매처 또도 Ont. 전역 공급 Retail store경영 하시는분 주문 배수.
☎ : 368-9018, 255-07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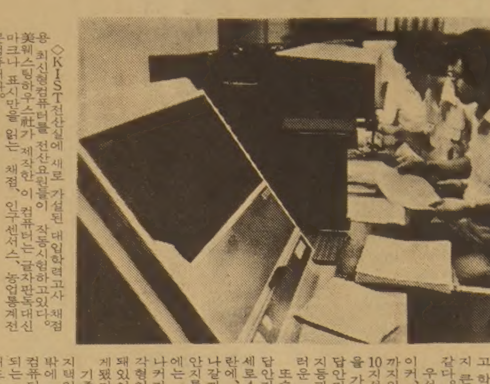


꽃도매상
437 CARLAW ST.
☎: 465-8167

大學입학 學力고사 採點시비 사라진다

─新型컴퓨터 4대 KIST에 設置

6~10肢 選多型까지 가능
3~4백問題 출제 할수도
지운것·落書·지문까지 判別



◇KIST전산실에 새로 가설된 대입학력고사 채점용 최신형컴퓨터를 전산요원들이 작동시험하고있다。美웨스팅하우스社가 제작한 이 컴퓨터는 글자판독대신 마크나 표시만을 읽는 채점、인구센서스、농업통계전문컴퓨터다。

대학입학학력고사때마다 연중행사처럼 되풀이된 크고 작은 채점파동은 사라질것인가。82학년도 대입학력고사의 답안지를 채점해줄 신형 컴퓨터가 지난달 27일 국내에 반입돼 7일 한국기술개발원(KIST) 전산실에 가설 완료됐다。오는 10월24일 학력고사종료와 동시에 60여만 수험생의 답안지를일괄처리해줄 새 채점용 컴퓨터는 美웨스팅·하우스社 제작의 W201型 4대。

대당 약15만달러(1억5백만원)를 들여 도입했다는 이 컴퓨터는 지금까지쓰던 컴퓨터와는 그용도나 성능면에서 크게뛰어나 수험생들이 답안지작성에서 겪던 여러가지 불편이 일단 해소될 전망이고 학력고사의 출제방법에까지 큰변화를 일으키게 될것 같다。

우선 새컴퓨터는 처리용량이 커、학력고사문제를 지금까지의 4지선다형에서 6~10지선다형으로 바꾸는 작업을 가능하게했고 지난해같은 답안지수정불가、연필사용금지등과같은 번거롭고 구차스러운 규제가없어도좋게됐다。

또수험생들은 지난 해까지 답안지작성때 가로 1.5㎜、세로4㎜의 좁은 직사각형공란에、그것도 표시가 밖으로 나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답안지를 작성해야했지만 이번에는 답안지의 크기가 3배나커지고 정답표시란도 직사각형이아닌 원(圓)형으로 돼있어 안심하고 기재할수 있게됐다。

기존 컴퓨터용답안지는 4지택일의 경우 80~1백문제밖에 출제하지 못했으나 새 컴퓨터용답안지는 그 4배나 되는 3~4백문제까지 출제해도 채점이 가능하게돼있고 5지택일의 경우라도 2백문제까지는 거뜬히 출제할수있다는것。

KIST 전산실의 崔榮和씨에 의하면 새컴퓨터가 갖는 장점은 이밖에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수험생들이 답안 작성에서 과거에겪던 가장큰고충은 좁은칸에 표시를할경우 칸밖으로 나가지않도록해야했고 한번 정답표시를하면 다시는고칠수가 없었다。

이같은 고충은 기존컴퓨터가 답안지에 적외선을 비추어 그 흡수정도에 따라 가장 강한 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이어서 지운 자국이 선명할 경우등이나 희미할 경우 정확히 판독할수 없었기때문이었다。

그러나 새컴퓨터는 답안지를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전체를 한눈에 판독하기 때문에 ▲지운것과 지우지않은것 ▲때가 묻은것 ▲고의적으로 낙서한것까지도 구별할 능력이 있어 지난해처럼 수험생들의 착각에 의한 채점시비는 있을수 없다는것。

또 종전답안지는 분홍색인쇄가 불가피해 수험생들의눈이 쉬 피로해지는 단점이 있었으나 이번 컴퓨터는 어떤 색깔로도 가능하기때문에 눈을피로하지 않게하는 답안지를 사용할수있다。

한편 82학년도 학력고사의 출제및 채점을 총괄하고있는 중앙교육연구원 학력평가기구의 崔至薰실장은 새컴퓨터의 활용에맞추는 학력고사의 출제및 답안지작성문제는 앞으로 검토、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하고 그러나 답안지수정및 연필사용금지같은 규제는、컴퓨터의 성능이 좋아졌다해도 답안지의 관리나처리상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82학년도에도 그대로 실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鄭在龍기자】

答案紙3배크게…不便덜어
성능·容量우수 出題변화올듯

나의이력서 〈題字·尹致暎〉
윤치영 ⑮

早稻田大學 시절

國際法등에 심취…발랄한學風 즐겨
原書엔 독무대…野球·陸上서도 활약

渡日이듬해인 1918년봄 와세다(早稻田)대학에 입학했다。

대학엔 당시 豫科2년、專門部3년 코스가있었는데 나는豫科를거치지않고 바로 전문부엘 들어갔다。빨리 학업을 마치고 歐美쪽으로 유학을 가기위해서였다。그때만해도 美國유학이 꿈이었다。

나는 와세다(早稻田)대학에 들어가기 전 잠시 慶應義塾에 입학했었다。慶應義塾은 甲申政變때 해외로 도피해 13년간을 보낸 伯兄致昨씨가 다니던 학교였다。학교에 찾아가보니 學生監이 伯兄을 잘 알고있었다。

慶應義塾에서는 영어실력을 알아보고 입학원서만 보더니 OK였다。그러나 이 학교에선 내가 공부하고자하는 法科가 신통치 못했다。난 적이 실망을 하고는 3주일만에 慶應을 나와 와세다대학에 입학했다。

와세다는 내가 생각하기로는 다른 대학에 비해 學風이 발랄하고 진취적인 면이 있었다。

전문부 法科의 강의는 나의 기대에 충족했다。특히 국제법、英法原理、사회학 강의가 그러했다。국제법은 當代에 유명한 나까무라(中村進午)박사가 가르쳤다。英法原理는 프린스턴대학출신의 喜多교수가、사회학은 옥스퍼드대학을 나온 出井교수가 각각 1週日에 2시간씩 맡았다。

이들 강의시간은 나의 독무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原書를 배우는 일본인학생들의 영어실력은 변변치 못했다。특히 영어발음은 아주엉망이었다。교수들은 강의시간마다 나에게 原書를 읽게했다。그러면 학생들이 따라읽었다。일본인학생들은 틈나면 나에게와서 묻고 배우곤했다。

그밖에도 인상 깊었던 교수로는 民法의 유사(遊佐)교수와 獨逸法계통의 民法을 가르쳤던 아베(安部磯雄)교수、東京大에서 刑法을 가르친 오까(岡田)교수등이있다。

이들은 국제법의 나까무라교수、법원리를 가르친 정치학의 喜多교수등과 함께 나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가르쳐 주던 스승들이다。

나는 국제법과 政治外交史를 특히 좋아했으며 法律史와 自然法원리 강의에도 관심을기울였다。

일본인학생들의 학업자세는 무척 진지했다。그들은 배움의 길이있으면 나아가고 스승이 있으면 누구한테든지 배운다는 태도였다。그들은 우리를 대할때 무시하거나 오만하지도 않았고 쓸데없는 자존심을 보이지도 않았다。오히려 배울것이있으면 우리에게 배우려고 들었다。그점이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이다。

나는 와세다대학에 입학해서도반년가량을 正則영어학교에 더 다녔다。영어실력을 남보다 앞서 다져놓은 덕택인지 학업실력에서도늘상 앞서갈수 있었다。와세다재학시절엔 운동선수로도 이름을 떨쳐나갔다。

나는 야구선수로 활약하면서 육상도 열심히했다。4백m、8백m、1천5백m등 중거리뛰기에선 기록도 좋은 편이었다。

와세다에서는 나와 中央학교동기동창으로 投手를 맡았던 金成翼、육상선수인 趙鐵鎬등 3명이 판을 치다시피했다。

金成翼는 당시 일본에서 1級수준의 야구선수로 이름을 떨쳤다。우리와 야구를 같이한 일본인학생중 이름난 선수로는 가네나리·나리오(金成良雄)가 있다。

와세다대학의 운동장은 재학중 우리의 독무대였다。일본학생들은 우리 운동장한복판에서 운동하는 우리를 멀리서 바라보며 부러운 시선을 보내기 일쑤였다。

야구선수중 가또(加藤)란 日人학생은 틈나는대로 내가 영어를 가르쳐주자 무척 고마와하면서 나를 모시다시피 했다。

재학중엔 방학을 이용、야구팀을 구성해 서울에서 친선경기를 벌이기도 했다。

재학중엔 또 각종 모임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했다。법률토론회、학생웅변회、학술회등이 있었는데 토론때마다 일본인들을 리드하고 주도권을 잡았다。한가지 애를 먹었던 것은 일본어였다。

低학년시절 민법、헌법등 법률강의시간엔 일본어를 제대로 이해못해 고충을 겪었다。중학때부터 일본어를 익혔어도 등한히하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결과였다。

한편 東京유학시절의 폭넓은 交友관계는 그뒤 나의 인생행로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早稻田大學재학때 下宿집앞에선 筆者의모습。(1919年)

용의자指紋 둘 채취
家族주변 용의점 못찾아 原點부터 再搜査
元曉路 殺人사건

속보=서울龍山區 元曉路1街 갑부 불교신도 尹景花씨(72)집 집단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龍山경찰서는 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피살된 세사람 모두 머리와 팔등에 쇠망치로 얻어맞은 흔적이 있다는 부검결과를 통보받고 범인이 쇠망치로 세사람을 차례로 쓰러뜨린뒤 뒤뜰에서 나일론끈과 전선줄로 목을 조른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또 2층계단중간에 있던 분유통에서 좌측 무지와 식지의 것으로 보이는 지문을 채취하는데 성공、용의자의 지문과 대조하기위해 치안본부에 감식을의뢰했다。

또 경찰은 그동안 집중수사해왔던 친척등 주변인물로부터 뚜렷한 실마리를 찾지못한채 6일상오 尹씨집에대한 현장수색을 다시실시하는 한편 尹씨의 일당고용운전사로 최근에 일했던 李文甲씨(45)와 지난79년 尹씨집 가정부와 사이가깊어져 해고됐던 운전사 李모씨등 4명의 운전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있다。

경찰은 이날 일당고용운전사 李씨가 尹씨가 살해된것으로 추정되는 지난달22일 하오 尹씨부부와 수경이 조카 尹씨를 태우고 롯데호텔까지 갔다가 이날하오 8시께 집에 돌아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경찰은 조카의딸 尹모씨(33·미국거주)가 최근귀국했다는 관계자의 진술에 따라 이번사건과의 관련여부를캐기위해 尹씨의 행방을 찾고있다。

檢察 3명拘束
서울지검 특수3부 鄭烘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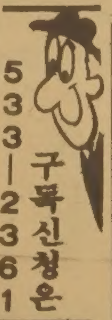
검사는 7일 지방도시、시내버스사업면허를 내주겠다며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 서로 속이고 속은 河潤咏씨(55·서울江南區瑞草洞 신동아 아파트)、鄭炳永씨(45·서울龍山區普光洞231)、崔成植씨(33·서울 冠岳區奉天洞山110)등 3명을 변호사법위반및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金喜洙씨(53·서울江南區新沙洞 설악아파트)를 수배했다。

검찰에 의하면 河씨는 지난해9월부터 올4월까지 사이에 전남麗水市水晶洞128 柳東植씨(33)에게 麗水시내버스운송사업면허를 얻어주겠다고 속이고 10여차례에 걸쳐 모두 9천7백50만원을 받아냈다。

河씨는 이돈가운데 1천4백65만원을 교통부장관을 잘 안다는 鄭씨에게주고 정부고위층 보좌관을 사칭한 崔씨와 달아난 金씨에게 3백90만원을준뒤 협조를 의뢰했다는것。

高架道서 殺人충돌

7일 상오6시15분께 서울西大門區 北阿峴洞 아현고가도로위에서 시내쪽으로 달리던 서울1라4062호 브리사 승용차(운전사 申重煥·45)가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오던 金浦교통소속 서울5사1448호 시내버스(운전사 金得龍·30)와 정면충돌、승용차 운전사 申씨가 그자리에서 숨지고 버스운전사 金씨와 버스승객 3명이 부상을 입었다。



操業후 낮잠자다被拉
永基號선장회견 "혼자上陸 裁判받았다"

【東草=鄭】 蘇聯억류 12일만에 풀려나와 東草항에 귀항한 영기호 선장 朴壽伯씨(42)는 6일하오『조업을 한후 낮잠을 자고있을때 蘇聯배가 다가와서 우리를 끌어갔다』고 밝히고『蘇聯억류 12일동안 우리선원은 모두 배에서 먹고자고 생활했으며 육지에는 올라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朴선장은 또『지난 3일상오8시30분께 혼자 육지에 올라가 20분동안 재판을 받고 풀려났으나 재판을 받은곳이 어딘지는 자세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船長과 一問一答

─어떻게 나포됐는가。

▲23일하오1시30분께 조업을 끝내고 선원 모두가 취침을 하고있을때 동료선원(성명미상)이 이상한 배가 나타났다고 말하는사이 빨간색모자와 빨간색제복(트레이닝)과 단화를 신은 蘇聯인 8명이 배에 올라와 3명은 선수로가서 선원들을선실로 몰아넣었고 5명은 브리지를 막아서며 무전마이크를 빼앗은뒤 끌려갔다。

─이상한 배는 어떤 배였나。

▲경비정인지 상선인지 종류를 알수없다。배는 2백톤급이었는데 우리배에 올라왔던 1명은 권총을 차고있었고 나머지 7명은 칼을 차고있었는데 우리들이 문을 안에서 잠그고 저항을 하자 그중 1명이 칼을 빼들었다。

─蘇聯에서 재판은 어떻게 받았는가。

▲3일상오 8시30분께 나혼자 육지로 나가 20분동안 재판을 받았다。통역이 있었는데 엉터리여서 한마디정도 알아듣는 정도였다。그들은 납치당시 영해의 위치가 蘇聯해역이었다고 주장했고 나는 그들이 지적한 위치가 틀린다고 항의했었다。

─석방소식은 언제들었나。

▲지난3일 재판을 받고바로 알았다。

─蘇聯에서의 생활은。

▲억류 12일동안 육지에 나가지 못하고 항구안 우리배에서 먹고잤다。육지에는 재판을 받는날만 나혼자 올라갔고 동료선원은 배안에만 있다가 돌아왔다。

─蘇聯인들과 대화를 해본적이 있나。

▲전혀없다。단지 먹을 물이 모자랄것 같아 보초병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더니 스피어 캔을 가지고 오라해서 배 바로앞에서 스패어캔에 물을 담아다 준것을 받았을 뿐이다。

─거리표정을 본일이 있는가。

▲배에서만 생활했기 때문에 본일이 없다。

─돌아올때는 어떻게 왔는가。

▲蘇聯경비정이 항구에서부터 1시간가량 우리배를 호위해 주었다。그배는 1시간30분가량 됐을때 보이지않았다。우리배는 계속남쪽으로 혼자서 내려왔다。

─재판받고 빼앗긴 물건은 없는가。

▲오징어 1천5백마리와 자동조상기6대、물러낚시 1천개등 모두 5백만원상당의 물품을 빼앗겼다。

金6등 메달10개안고 개선
런던 척추障碍者 체육대회選手團

지난 7월26일부터 8월1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81년도국제척수장애자 체육대회에 참가했던 한국선수단(단장 林炳圭、釜山지방원호청장)이 7일하오 메달10개를안고 金浦공항착、개선했다。

이 대회에는 세계40개국에서 8백40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는데 한국팀은 12명의선수로 탁구、궁도등 2개종목에 출전、금메달6개、은메달1개、동메달3개를 차지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流星의 賦 〈152〉
李炳注 作 李友範 畵

山空花自紅 ②

삼동지우(三同之友)란 동갑(同甲)、동료(同僚)、동지(同志)란 뜻이다。그런 뜻으로서 이이는 흥선민을 애지중지(愛之重之)하고 있는 터였다。

정철과 흥선민이 마루 위에서 술을 딸고 병실에 기대어서자 이이는 방심을 일으켜 팔거리를 뒤로 하여 대 앉으며 두 친구를 반겼다。

『오늘 경험이 좋을 알았지』

이이가 넌지시 웃었다。

『숙헌이 도통한 사람인줄은 내 일찌기 아는 바이지만 이처럼 함박눈이 내리는데 우리가 올줄을 어떻게 알았소』

정철이 한 말이다。

『설경(雪景)속의 정공은 아해나 구공(狗公)파다를 바 없지 않소』

이이는 정철이 특히 술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는 터였다。

『모처럼의 행차가 나를 구공으로 만들줄이야』

정철이 활달하게 웃었다。

『홍공、정공과 상반(相伴)하느라고 수고를 했구먼』

이이가 홍선민에게 얼굴을 돌렸다。

『눈이 내리기에 숙헌을 찾아보자고 한것은 나요』

하고 성민은 이이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조금 차도가 있는것 같은가?』

『차도가 있는것도 아닌데 귀공들이 내도하니 마음이 가벼워지는군』

이렇게 말하고 이이는

『정공은 견설(見雪)이며 상주(想酒)하는 분인데』

하곤 사동에게 주안상을 내오라고 일렀다。

『자넨 술도 못할텐데』

흥선민이 조심스러운 얼굴을 지었다。

『두 대감이 술 마시고 있는 걸 보는 것도 경물(景物)이 아니겠는가』

이윽고 주안상이 나왔다。

백주(白酒)에 김치 접시 하나。반상(盤上)의 풍경은 이처럼 초라했다。

『한사(寒士)의 집에 가효(佳肴)가 있을까만 이건 너무한군』

이이가 가볍게 혀를 찼다。

『무슨 소릴 하시는가。숙헌、눈이 내리고 있지 않소。그 이상 좋은 안주가 어디에 있겠소』

하고 술병을 들어 잔을 채우곤 성민에게 권했다。정철은 흥성민、이이보다 다섯살 연하인 것이다。

백주(白酒)란 즉 막걸리이다。가난한 이이의 집에 좋은 술을 준비해 놓았을 까닭이 없고 근처의 주막에서 구해온것이 틀림이 없었는데 배주、곧 박주(薄酒)라서 술맛이기에 앞서 물맛이었다。

『술 맛이 어떤가』

하고 이이가 물었다。

『감히 술맛까질 구하겠소。정(情)의 맛이면 그만이지』

정철이 호탕하게 웃었다。

그러나 그런 술도 거듭되면 취기(醉氣)를 돋우는 모양으로 술병이 반쯤 비었을 땐 정철의 말투에 열기(熱氣)가 붙기 시작했다。

『숙헌 들어보시오』

하고 정철이 거기 오는 도중 홍성민이 말한「섭하경무사」란 귀절이 묘하다고 하곤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시가(時可)에겐 못따라가』

시가란 홍성민의 자이다。

『경함은 감동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대(對)를 지어보지 그래。섭하경무사란 좋은 말이다』

이이가 한 말이었다。

安康寧藥材行
안강용 한약 건재상
On Hong Ling Herbs Co.

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로 봉사
招志和, 李樹鴻, 周楚, 黃國威

●진풍웅담 ●녹용
●우황청심환 ●사향
●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
치료 ●보제첩약및 각종
병에 대한 처방약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평소에 뜻한바 있어 금번 중국에서 30여년
한약에 대해 많은 연구와 경험을 쌓으신 중국인
의사 네분을 모시고 교민여러분 가정의 건강관리에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코자 중국인 의사와 같이
아래 장소에서 한약도산매를 하였사오니 일차
왕림하시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호 원 PETER CHAN 배

465 DUNDAS ST. W., TORONTO
(DUNDAS×SPADINA)
TEL: (416) 363-3883 363-2088

캐나다외환은행

영 업 안 내

저희은행은 1981년7월30일자로 캐나다 재무성당국으로 부터 차터드뱅크로 정식 인가를 취득 하였읍니다. 오는 10월6일 정식으로 문을 열고 아래내용의 업무를 서비스 해드릴 예정이오니 교민 여러분께서는 언어의 장애가 없고 캐나다 금융기관보다 빠르고 친절한 **캐나다외환은행**을 많이 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 업 내 용

예금업무	수출입업무
정기예금(Term Deposit)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이상 수표발행예금(Checking account) 개인첵킹 구좌 당좌예금(Current account) 기업당좌예금 저축예금(Saving account) 입금, 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예금 정기적금(Installment Saving account) 6개월.1년, 1년반, 2년	신용장 개설(L/C Opening) 수출화환어음 매입(Negotiation) 상업어음 추심(D/P D/A) 기타 수출입 관련 업무 **대출업무** 당좌대월(Credit line) 일반대출 (소비자금융. 예금대출) 기업대출 (중소기업 사업자금) 무역금융 (수출입 관련금융)
송금업무	**기타업무**
우편송금(Mail Transfer) 은행수표, 머니오더의 우편이용 전신송금(Telegraphic Transfer) 전신이용 (금액이 크거나 지급을 요하는 경우) 온-라인 송금 : 외환은행 본지점에 온라인 예금구좌를 개설, 한국 동구좌로 자동 입금시키는 방법.	공과금 수납(Utility Bill) 신용조사 대행 과세및 경영상담 기타 은행관련 부수업무

캐나다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EXCHANGE TOWER
2 FIRST CANADIAN PLACE # 1140
☎ : 364—2890, 2900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
지. 명함. 주보. 광고
판플렛
619 Bloor St. W.
☎: 535－3520. 630－8491

구 인

버라이어티 스토아에서 일할
경험있는 남자 헬퍼 구함
☎: 532－6160

밤12시에서 아침 8시 까지 일하실 여자분 구함.
1468 QUEEN ST·W 도너스 샵
☎: 531－2689

출퇴근 하시면서 여아 돌봐 주실분
☎: 921－5684(B) 921－8102(R)
(BLOOR×SPADINA서브웨이 옆)

스토아 헬퍼구함 (영×휜치지역)
☎: 222－2848

(1)출퇴근 하시면서 애기봐 주실 할머니
(2)경험있는 가게 헬퍼구함.
☎: 2414755

재봉사 약간명 모집
보통 공장에서 하는 일들이며, 또한 재단실에서
헬퍼하실분도 구합니다.
연락처: 952 QUEEN ST. W. (오싱톤×퀸)

웨이트레스와 웨이터, 주방에서 일하실분
구합니다.
CALL: MANAGER ☎: 977－9518
MASA JAPANESS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전자제품 만드실분 약간명 모집
잘 건설된 전자공장에서
경험있는 전자제품 만드실 분과
전자 기술자를 모집 합니다.
오전, 오후, SHIFT WORK.
직접 내방 요합니다.
DORCHESTER ELECTRONIC CO.
40 FINA CRESCENT
(Q·E·W· 427지역)

매매및 양도

카페테리아 급매:
5일 오픈
☎: 532: 5966(오후3시이후 전화바람) 미스타. 리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 233－2576

벡커매매
년매상 $800,000이상＋로타리오
☎: 783－1984

작은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스카보로 지역
가격: $30,000＋스탁
☎: 266－5715(오후6시 이후 연락바람)

드라이빙 레스트랑 매매
새로 시작한 비즈네스이며 앞으로 발전성 있음.
가족 비즈네스 혹은 파트너 둘이 할 수 있음.
아스킹: $185,000 IHOR DZIADYK
☎: 763－5555
R. CHOLKAN CO. LTD. REALTOR

남녀 운동복점 매매
또한 재봉틀도 있고 재단업도 할수있음.
☎: 531－2611
1552 BLOOR ST. W.
SMITH SPORTSWEAR

좋은 가격의 하우스 세일
개인세일: 넓은 현대식 가옥, THORNHILL에 있는 2층집 방 네개, OAK으로 만든 용수철식의 계단, WALK OUT베이스먼트, 화장실 4개, 벽난로 2개, 센트럴 에어콘디쇼닝, 현대식 조명장치및 등등 실지로 와서 보세요. 오픈하우스 오늘합니다.
☎: 881－8436

미시사가 매매 TOWER REALTY LTD.
리스 20년 코너에 위치 드라이빙 레스트랑이나 도넛샵 하기에 이상적인 위치,
집주인이 새 건물을 짓는데 도와줄것임.
FRED MARTEZOS ☎: 536－5000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프렌차이스)
주매상: $7000이상 렌트: $1200
리스: 5년＋5년옵션
주5일영업. 다운페이먼트 5만불
관심 있으신 분은 직접 내방 요망.
169 QUEEN ST. E

머니 메니컬스
(1)과일＋야채－번잡한 몰
(2)버라이어티스토아－주택가
(3)AUTO BODY SHOP－발전된 비지네스
대지
(1)타운하우스
(2)아파트 빌딩
(3)단독 가족 Lots
☎: 336－2121·827－8300
LOUIS BATTISTA, JIM STALFORD

3베드룸 방갈로 매매
크기 40×120피트
베이스먼트 다 되어있고 옆에따로 붙어있는
가라쥐 있음.
문의전화: 422－0816

<매 매>
"가정 형편상 그로서리 스토아 급매"
528 더프린 스트리트<자세한 것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 531－4165

GIFT & VARIETY STORE,
연평균 주매상 $5000이상, 주 $300～$400
＋EXTRA인컴.
3200 ERINMILLS PARKWAY, 미시사가
(MILLWAY SHOPPING CENTRE, 1 BLOCK N. OF DUNDAS)

렌트

원치정부아파트 3베드룸 서브렛
8월중순 입주가능 렌트 $215
☎: 239－7267 미세스 신

인 쇄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 746－0675 박 종 남

악기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781 0200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김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웅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미 용

킴스미용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미용실 미세스·김
남녀 커트, 파마 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시설및 수리

TV출장 수리
☎: 431－0102 MR. 박

KIMBO ELECTRICAL CO.
ELECTRICAL CONTRACTOR
METRO LICENSE E-725
RESIDENTIAL, COMMERCIAL, INDUSTRIAL
TEL: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김 부 원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630－6602 나 라 운 수

에어콘·히팅·냉장고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이인식)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식 당

大 生 園
찐빵, 각종만두, 두부탕, 닭튀김, 왕새우 볶음,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볶음밥, SEA FOOD.
월～목 11: 30AM～1: 00AM, 화: CLOSE
금, 토 10: 30AM～2: 00AM, 일 2: 00PM～12: 00PM
☎: 929－5048, 961－3539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서비스 (B)255－2111 (R)231－2822
95 PORTLAND ST. ETOBICOKE.

L & K AUTO COLLISION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주소: 346 MUNSTER AVE. (BLOOR & KIPLING)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 651－9324(B), 226－5430(R) 변 달 원

한방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매일10AM－8PM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기 타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액자, 오일페인팅(유화)판매 조 혜 숙
32A Rexdale Blvd., Rexdale ☎: 746－2120

새한칼라 현상소
630 BLOOR ST. W. TORONTO. ☎535-7772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Can Am Coin Investments Ltd. — 25년간 경력
금동전, 은동전을 최고가격으로 드립니다.
329 QUEEN ST., WEST · TORONTO, CANADA · M5V 2A4
Telephone: (416) 366-3061 – 366-3062

忠誠만 강요하는「北韓映畵」

80년年鑑에 나타난 北韓映畵界

작년40편 藝術性全無…革命투쟁 강조

對南적개심주입… 勞動의욕고취 선동

80년대의 北韓영화계는 金日成·金[illegible] 찬양·미화하기 위한 [illegible] 충성심제고를 소재로 한 일련의 [illegible]으로 일관했다. 영화진흥공사(사장 張根燮) 지난30일 [illegible]「80韓國映畵年鑑」에 수록된「80北韓映畵界」(盧載昇·內外通信 보도부장)에 따르면 北韓의 영화는 金日成·金正日父子에 충성하는 이른바「노력영웅」을 묘사함으로써 주민들의 노동의욕을 고취하는 내용, 金正日을 우상화하는 내용, 북괴체제를 美化하고 그들의 위장평화책략을 선전하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80년도 북괴가 재작한 극영화(북괴는 이를「예술영화」로 호칭)는 40편정도로 추산된다. 이들 영화는「代를 이어가는 충성의 대오」「조국해방전선」(全3部)「白頭山」「이름없는 영웅들」(6~10部)「朝鮮의 별」「검사는 말한다」「14번째의 겨울」「내 아들」「우리가 사는 거리」등으로 제명에서부터 선전·선동의 냄새가 강하게 풍기는 것들이다.

「조선기록영화촬영소」가 제작한「代를 이어가는 충성의 대오」는 金正日의 권력세습 공식화 이후 북한주민들에게「代이은 충성」을 촉구하는 내용의 영화.「속도전 청년돌격대」「과학자 돌격대」등의 활동상을 화면에 담아 이를 金正日의「治績」으로 부각시키는 한편 이같은 인간형이야말로 오늘날 북괴가 요구하는「충성의대오」라는 메시지를 깔고있다.

북괴는 이 영화를 주민들에게 작업장별·직장별 각급조직별로 집단 관람시키고, 청소년들에게는『수령과 영광스런 당중앙(金日成 父子 지칭)에 대한 계속적인 충실성만이 참다운 충실성』이라고 충성을 강요,「삶의 교과서」로 삼게했다.

조선예술영화촬영소가 79년의 1~5부에 이어 제작한「이름없는 영웅들」은 6·25를 북침전쟁으로 왜곡묘사하고 UN군측 지역에 침투시킨 북괴첩보원들의 활약상을 그리면서, 對韓 對美적개심과 호전성고취를 강조했다.

또「白頭山」은 金日成의 항일투쟁 가운데 이른바「普天堡전투」를 극화했는데 북괴는『수령의 혁명활동 일부를 사상·예술적견지에서 묘사한 혁명적大作』이라고 떠들어댔다. 그외「14번째의 겨울」은 북괴가 최근 전개한「숨은 영웅 따라 배우기 운동」을 주입시키기 위한 선동영화였고 가정문제를 다룬「내아들」은 가정을「사회주의혁명의 실습장이며 생산의 기본단위」로 풀이하는 북괴의 사회단면을 드러낸 영화다.

북괴는 또 古典「춘향전」에도『黨性과 노동계급성을 철저히 구현했다』고 밝힘으로써 古典의 문학적 향기와 의의를 외면한채 정책목적영화로 끌고갔다.

북한에서는 이같은 영화를 내놓을때마다 金日成과 金正日의「주체적문예방침」에 의해 만들어진『영화예술 발전에 빛나는 자리를 차지한 기념비적 작품』『代를 이어 길이 전할 역사문헌적 작품』등이라 찬사를 보내고『영화의 주인공들처럼 수령과 당(金正日)에 代를 이어 충성하라』고 선동해왔다.

특히 북괴는 金正日의 치적과 연결, 북한의 문학·예술이 金正日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영화부문을 金正日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놓어있음을 강조했다.

북괴의 선전기관들은「14번째의 겨울」「삼정의 수리개」「이 세상 끝까지」등이 金正日의「구체적지도」로 제작됐다며『사상의 영재·예술의 영재』『주체예술을 개화시킨 위대한 예술가』운운으로 개인우상화선전을 늘어놓았다.

북괴가 요구하는 영화는▲金日成일가의 날조된 항일전쟁담▲6·25당시 북괴군의 날조된 전투성과를 형상화하여 호전성과 전투의식을 고취하는 내용▲세습제의 합리성강조▲노력제고 선동영화▲對韓對美 적개심고취▲북괴의 위장평화통일방침, 발전상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북괴는 영화속의 애정표현에도『영화에서 연애를 위한 연애는 안되고 반드시 혁명의 승리를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돼야만 한다』고 제한하고 있다.

문화와 예술을 그들의 선전 선동의 수단으로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 북괴는 80년 4월15일 金日成의 68회생일을 계기로 4월10일부터 1주일간 북한의 道·市·郡소재지에서「만경대」「수령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등 개인숭배영화를 상영하고「영화감상모임」을 열게했다. 또「조선의 별」「이름없는 영웅들」등 혁명영화의 스태프·캐스트에는「인민배우」「인민예술가」라는 칭호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렇듯 북한의 영화에서는 예술성이란 찾아볼수없다. 그들의 국내의 사정에 따라 방법만 달리하고 있을뿐 영화를 정책도구로 사용하려는 기본노선에는 변함이 없다. 【李亨基기자】

◇北韓의 영화에선 예술성이란 찾아볼수 없고 오직 정책도구로 철저히 이용되고있다。

●北韓뉴스●

위컴司令官 발언에 北傀준비책동 생떼

【서울=聯】北傀는 4일 와인버거 美국방장관, 위컴 駐韓미군사령관등 美國의 軍지휘관들이 北傀의 軍事力우위를 지적, 駐韓미군의 계속주둔필요성과 전력증강을 역설한데 언급,『北侵전쟁을 위한 무력증강책동을 합리화하기위한 요설』운운으로 모략비방하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北傀는 이날 그들 방송을 통해 격렬한 對韓·美비난선전을 퍼붓는가운데 美國이 韓半島에서「北侵전쟁」준비에 혈안이되고있다고 날조주장하면서 美國의 이같은 駐韓美軍사력증강계획이『방위를 위한것이 아니라 北侵을 위한것이며 평화를 위한것이 아니라 전쟁을위한것』운운으로 터무니없이 모략비방하는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映畵人들 蘇서硏修

【서울=聯】일단의 北韓영화인들이 蘇聯최대의 영화촬영소인 모스필름에서 영화기술을 습득중에 있다고 지난 4일 蘇聯의 모스크바放送이 보도했다.

北傀는 매년 蘇聯과「映畵에 관한 협조협정」을 체결, 상호 영화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 실습생의 파견도 이협정에 의거한 것이라고 이 방송은 말했다.

주간女性 주간女性

생명의 말씀
CITY. T. V.
CHANNEL 79
CABLE 7
SUNDAY
AM 9:30－10:00

김 인 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CENTRAL AUTO
-SERVICE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TOR
532-3946 김창세

블론디 本社特約·連載漫畵 딘·영 作

"내일밤 저녁식사하러 와도 되죠?" "그래도 되겠지, 엘모야…하지만 그렇게 하면 나흘째 계속 오는건데" "너희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기에 같이 와도 되나 알고싶어하셔요"

[illegible] 生 <169>

趙善作 作
禹慶熙 畵

灰色 노우트 ①

정룡의 일이 있은 뒤 내게는 두가지 생활의 변화가 일어났다. 첫째는 은행 근처로 자주 아버지를 만나러 나다녔던 일이고, 둘째는 회임의 징조를 기다리는 보이지않는 조바심이었다.

그의 아이를 갖겠다는 생각은 예전에 그의 아이를 태어나지 못하게 한 내 깊은 뉘우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만저만 절실한 것이 아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여자들의 조바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었다. 심지어는 아이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은 죄악이다. 어차피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아니고 또 가치를 상실한 곳이고, 이런 어려운 세상에 무심코 또 하나의 생명을 더 하는 것은 인간의 우매성이 저지르는 하는 수 없는 바보짓이며, 이성적인 인간이라면 결코 아이 따위는 태어나지 않게 해야한다고 나는 생각했었다. 뿐만 아니라, 기왕에 태어난 자마저 아이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 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타산적인 생각도 했었고, 또 무엇보다도 죽음에대한 공포를 세습하는 행위야 말로 어리석은 인간에 대한 신(神)의 저주라고 생각했었다. [illegible] 인간의 생명을 부여잡고 가지고 노는가. 이성적인 인간들은 그를 멈춰야 한다. 뭉쳐서 신에 대항해야 한다. 세상에 마침내는 그의 장난감이 될 [illegible] 그의 아이를 없앨 때까지도 나는 이런 아이같은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었다. 그런데 조금씩 변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사춘기에는 세상을 예각적(銳角的)으로만 보려는 부정의 세계관이 형성된다고한다. 나도 [illegible] 예외는 아니었던듯싶고 누에가 허물을 벗고자라나듯 지금도 나는 내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음을 느끼고있다. 일테면 어머니께서 어느날은 행으로 아버지를 찾아가신사 [illegible]

[illegible] 문이었다. 그의 몸을 받고도 나는 늘 가만가만 날수를 계산했는데, 위험기간이면 나는 철저히 방어해서 회후를 그가 밖에서 해결할 것을 호소하곤 했었다. 대체로 그는 내게 협조해 주었었고, 마지막 한번의 실수를 빼고는 늘 무사했었다.

그런데 정룡의 그날은 위험기간도 복판에 해당하는 날이었다. 노영지에게서 그가 정룡에 있다는 정보를 얻어 들었을때 나는 재빨리 [illegible] 정룡에 나는 가장 위험한 기간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내가 [illegible] 그날 밤으로 정룡 행을 결행한 것은 어쩌면 [illegible] 놓칠는지도 모른다는 염려때문이기도 했었다.

내가 그의 아이를 갖고자 조바심한것은 아이를 도구로 그를 붙잡는 식의 상투적인 계교는 아니었다. [illegible] 결코 가망이 없지만 그렇다고 아이를 [illegible] 내세우는 따위, 저열한 방법은 상상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朴世直 首警사령관 解職예편

在美 陸士同期生 부탁받고 50萬달러 融資등 請託

長官·廳長등에 糧穀·잎담배·石炭·輸出入 알선도

首都경비사령관 朴世直육군소장이 청탁등 월권행위에 관련된 사실이 밝혀져 6일자로 보직에서 해임됨과 동시에 예편되었다고 6일 국방부가 발표했다。 朴鍾植대변인은 이날상오 『朴世直장군이 수도방위의 중책을 맡은 지휘관으로서 청탁배격에 솔선수범해야함에도 육사동기생이며 전駐美군수근무단 요원인 李揆煥씨 (예비역육군대령) 로부터 작년12월 訪美했을때 선물을받고 사업지원을약속, 지난 6월 모국책은행에 50만달러 (韓貨약3억5천만원)를 李씨에게 융자해주도록 청탁한것을 비롯 관계장관·청장·국영기업체장들에게 사업협조를 청탁하는등 월권과 본분을이탈, 새시대의 군인상과 군의위신을 추락시켰다』고 해임이유를 밝혔다。

國防部 代辯人 발표

군수사관은 지난달 31일부터 극비리에 朴장군에대한 수사를펴왔으나 조사결과 청탁한일이 성취된것은 없었다고 朴대변인은 밝혔다。 발표문에따르면 李씨는 육사 12기동기생인 朴사령관을 통해 관계장관 청장 국영기업체장에게 ▲양곡및 엽연초 도입▲석탄수입▲해외건설공사수주▲면직물수출▲폐속정건조▲광산장비및 발전장비의 판매및 알선등을 청탁했다는 것이다。

이번사건에 관련된 李揆煥씨는 지난76년12월부터 78년 4월까지 국방부산하 군수근무단의일원으로 미국에 파견근무하면서 외국의 모전자회사로부터 거액을 수회한혐의로 본국에 소환명령을받고도 귀국명령에 불복, 군무를 이탈해 78년3월 국방부징계위에서 파면조치됐던 예비역육군대령이다。

부탁한 李揆煥
78년派美중 회사로부터 收賄…파면…召喚불응
뉴욕서 貿易業경영 赦免으로 歸國…警告조치

그후 李씨는 미국뉴욕에서 선박유류공급을 겸한 무역회사인 KASCO社를 경영하다가 全대통령의 訪美를 계기로 취해진 정부의 일제사면에 의해 6월4일 귀국, 7월3일까지 한달간에 걸쳐 朴장군을 통해 각종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朴대변인은 『李씨가 사면조치를 받고도 청탁행위를 자행해 마땅히 형사책임을 물어야하나 새시대의 사회적 윤리를 모르고 이같은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경고조치만 엄중히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소식통은 5일하오 이사건의 배경설명을통해 『만약 朴장군이 돈을받는등 단순청탁이상의 혐의가있었다면 군법회의에 회부됐을것이나 단순청탁행위만 했기때문에 해직예편시킨것』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누구든지 권력을이용한 청탁행위를한 것이 드러날경우 엄중처단하겠다는것이 정부의 변함없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李揆煥씨

수사가 지난달31일 군수사기관에의해 착수된후 지방에서 있은 행사에참석중 수사요원에의해 서울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사건은 4일 靑瓦臺에 보고됐고 5일낮 예편전역이 결정됐는데 보고를 받은 全대통령은 고민끝에 「큰것을 위해 작은것을 희생시킨다」는 입장으로 해임결정을 내린것으로 전해졌는데, 관계자들은 全대통령의 결심을 「泣斬馬謖」의 고사에 비유하고있다。

경북漆谷이 고향이며 독실한 기독교신자이기도한 朴장군은 빈농에서태어나 釜山師範을 거쳐 육사12기생으로 임관, 어떠한 일이든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해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이었다。 육사출업후 위탁생으로서 울대 文理大영문과를 수료, 영어실력이 뛰어났다。 사단장재직땐 위컴유엔군사령관이 전방을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으레 그를 찾아 직접 브리핑을 들을만큼 친한사이며 헤이그 美국무장관과도 친분이 두터워 이따금 서신을 교환하기도 했다。 작년12월엔 訪美, 당시재야에 있던 헤이그美국무장관 등 美군장성들을 고루만나 한국정부의 입장을 설명해 韓美정상회담의 기초작업을 해 공을 세운것으로도 알려졌다。

國防部발표 全文

▲군수사기관에서는 前駐美군수근무단 근무 李揆煥 (당시大領)이 개인사업을위해 朴世直 前首警司令官을통한 고위층 청탁행위를 자행한 혐의로 지난 7월31일 수사에착수, 8월5일 이를 종결하였다。

▲李揆煥은 군수근무단 재직당시 (76·12~78·4) 국내 모전자회사로부터 거액을 수회한 혐의로 물의를 야기시켜 소환받고도 군의 귀국명령에 불복코 군무를 이탈, 78년3월 국방부 징계위에서 파면조치된바있었으나

▲대통령각하께서 韓美정상회담을 위한 방미를 계기로 국민대화합의 차원에서 해외반한교포는물론 일반범법자까지도 새시대 새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푸심에따라 81년2월 정부의 일제사면에의해 사면의 은전을 받았음에도 제5공화국 국정운영지표의하나인 정의로운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청탁풍조를 근절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외면한채 오히려 정부의관용을 자신에대한 개인적인배려인양 과시하면서 고위층을빙자하여 개인의 이익을 위해 온갖 청탁행위를 자행했음이 밝혀졌다。

▲이번 수사결과 李는 그동안 뉴욕에서 선박 유류공급을 겸한 무역회사인 KASCO사를 경영하면서 지난 6월4~7월3일귀국, 자신의 과거행위에 대한 반성은 커녕 오히려 군 동기생인 朴世直前首警司令官을 통해 관계장관·청장및 국영기업체장들에게 양곡및 엽연초도입·석탄수입·해외건설공사수주·면직물수출·폐속정건조·광산장비및 발전장비의 판매알선을 청탁하는등 사리사욕에 혈안이되어 선물제공및 향응접대를해온 사실이 판명되어 사법적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으나 새시대의 사회적윤리를 不知한데서온 소치로 보고 엄중 경고할 방침이며

▲한편 朴世直장군은 수도방위의 중책을 맡은지휘관으로서 그 본분에 충실하고 정부시책인 청탁행위 배격운동에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이를 망각하고 80년12월 訪美시 李로부터 선물을 받고 사업지원을 약속, 지난 6월 모 국책은행에 50만달러를 李에게 융자해 주도록 청탁한 것을 비롯 관계장관·청장·국영기업체장 등에게 李에 대한사업 협조를 청탁하는 등 정부시책에위배는 물론 월권과 본분이탈을 자행, 새시대의 군인상과군의 위신을 실추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과업수행에 전념토록 경종을 울리는한편、배를 깎는 고통이 있어도일벌백계의 추상같은군율을 수호하기 위해 비록 상기청탁행위로 성사된 것은 없었음이 조사결과 밝혀졌으나 朴世直 사령관의 보직을 해임、예편토록 조치하였다。

▲끝으로 현재 정부와 온 국민이 일체가 되어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명랑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을 위해 청탁배격운동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와같은 불미사가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된 일이며 앞으로 군은 이번 사건을 귀중한 교훈으로 삼아 증대되는 북괴 위협에 대비한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더욱 충실히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해설

「깨끗한政府」意志실증
가장아끼는 後輩…「泣斬馬謖」비유

朴世直수경사령관의 전격적인 예편조치는 全대통령이 가장 신임하고 아끼는 「후배장성」이었다는점에서 큰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육사12기중 先頭走者로 알려진 朴장군은 10·26사태、12·12사태、光州사태등 국가적위기에서 헌신해온 군장성중의 한사람으로 全대통령의 가장 신임이 두터운 사람만이 앉을수있는 首警사령관에 발탁됐었다。

이같이 대통령의 측근인물을 단 한번의 실수로 예편조치시킨데서 과거 우리역사에 權力의 변화때마다 구호처럼 등장했다 사라졌던 「부패추방」 「地位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겠다」는 엄포와는 차원이 다른 실천의지를 볼수있다。

아무리 신임하는 인물이라도 「팔다리를 자르는 아픔」을 겪더라도 새정부가 약속한 「깨끗한 정부」를 기필코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실증해보인 것이라고 하겠다。

예편조치의 배경은 朴장군이 수도경비의중책을맡은 주요지휘관신분으로 청탁배격운동에서 솔선수범의 자세를 잊고 육사동기생의 사업을위한 청탁에개입, 이운동에 역행하는 결과를 빚은데있다。

朴장군의 예편은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고위층의 신임을 받고있다 하더라도 청탁배격운동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예외일수 없다는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것도 된다。 朴장군은 동기생인 李揆煥씨의 고위층을통한 청탁사건

人的控除額 인상키로
民正 勤所稅率 多段階로
40~60萬원俸給者 負擔덜어

民正黨은 低所得層을 보호하고 중산층을 육성하기위해 근로소득세의 人的공제액을 인상하고 稅率구조도 현재보다 多段階로 재조정할 방침이다。

稅制개편작업을 맡고있는 民正黨정책위의 관계자는 6일 『아직 구체적인 개편안이 마련되지는 않았으나 賃金인상률 (17%) 과 물가상승률 (20%) 을 감안하여 人的공제액을 인상조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현행세제에서는 中産層인 月40~60만원 소득자의 實效稅率을 낮추어 봉급생활자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稅率구조는 소득격차에 따른 단계가 적어 월20~30만원대의 소득자는 실효세율이 3·4%에 불과하나 40~50만원 50~60만원 소득층은 7·8%선을 넘으면 10%까지 加重되고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시정하기위해 課稅단계를 보다 細分化하고 稅率도 引下할것』이라고 덧붙였다。

鳳凰大旗 高校야구

오늘의 對陣 (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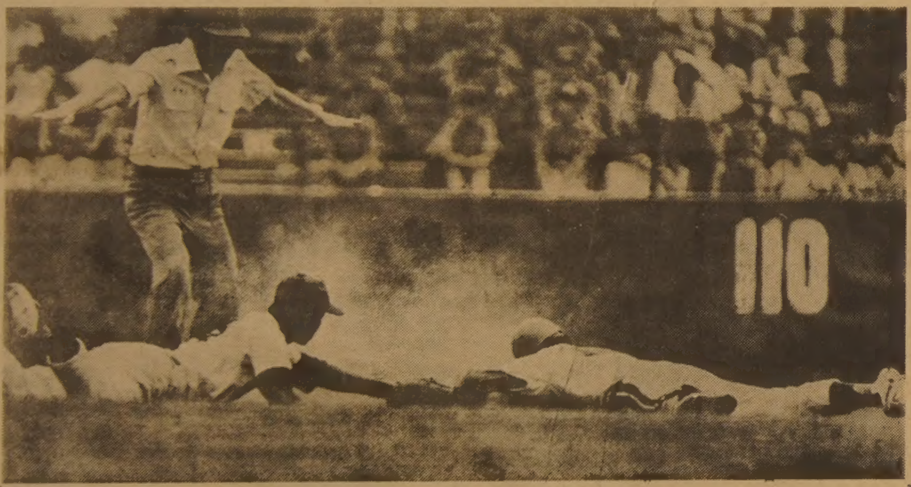
▲德壽商—江陵高 (10시반) ◇1회전
▲慶南商—木浦商 (1시) ◇1회전
▲全州高—徽文高 (3시반) ◇1회전

어제의 成績 (6일)

	1	2	3	4	5	6	7	8	9	計
光州商	0	1	1	4	0	0	1	0	1	8
馬山高	1	0	0	1	0	0	0	0	3	5
清州高	0	0	0	1	0	2	0	0	0	
心石綜	0	0	0	0	0	2	0	1	0	
普成高	0	0	0	1	X	X	X	X	X	X
大邱商	0	0	0	X	X	X	X	X	X	X

〈시간제한 일시 정지게임·7日속개〉
〈하오 6시20분 現在〉

한독양말 협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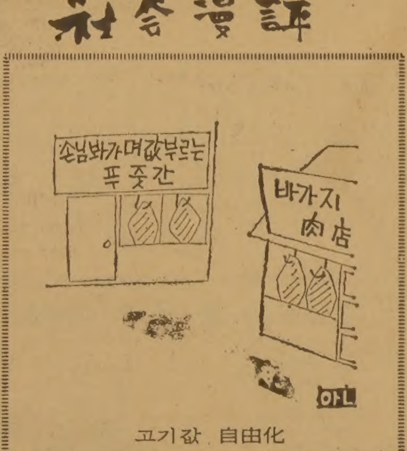
「鳳凰野球」 첫날부터 妙技속출

◇악착같이 물고 늘어진 2루쟁탈전。 봉황대기 첫날 2번째 게임 淸州高와 心石綜高와의 대전서 6회말 淸州의 張定淳이 2도를 감행하자 心石의 유격수 金榮贊이 엎어지며 태그를 시도했으나 淸州의 張定淳이 한발 앞서 2루를 껴안고 있다。

韓日 정기閣僚회담 日、서울開催에同意

【東京5日=聯】 일본정부는 제11차 韓日정기 각료회담을 오는9월 서울에서 개최하자는 한국측제의에 잠정적으로 동의했다고 5일 한 외무성 고위관리가 말했다。 이에따라 韓日양국은 각료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참석 각료들의 범위등에관해 실무절충을 벌이고 있다고 이 관리는 말했다。

社會漫評



고기값 自由化

聯合司 野戰사령관 보트中將 昇進임명

【워싱턴5日發=聯】 제임즈·B·보트 美육군소장이 韓美聯合사령부사령관에 임명되었다고 美국방성이 5일발표했다。 중장으로 승진하게될 신임 보트사령관은 현재 워싱턴에있는 美육군작전회의의장으로 있는데 그는 유진·포레스터 현 韓美연합사령관과 교체하게 된다。 포레스터 사령관은 하와이의 포트새프터소재 美육군西部地區사령관에 임명되었다。

地平線

알롱알롱한 개구리참외、자수정같은 포도、너무나도 큰 수박덩이、루비같은 자두、탐나는복숭아、하얀 풋사과등 靑黃赤白黑의 온갖 5色寶玉을 진열해놓은듯한 여름과일이 식욕을 돋우는 계절이다。

▼독특한 감칠맛이나는 成歡참외는 참외겉모양이 초록색바탕에 검은색 점무늬가있어 마치 개구리등과 비슷하다고해서 개구리참외로 불려왔었다。 껍질을 벗기면 수박속과 같이 연한주홍빛속살이 드러나 군침이 돌게한다。 다수확 조생종으로 단맛이 나는 노랑 나일론참외인 銀泉에 밀려 한때 그자취를 안보이더니 올 여름들어 鄕土미각을 되살리려는 독지가의 15년育苗노력이 햇빛을 봐 개당 1천5백원에도 없어서 못팔 정도로 인기를 다시 찾았다고 한다。 개구리참외는 그 명성이 일본에까지떨쳐 1928년에는 70貨車分 1천3백톤이 출하되었다고하니 얼마나 인기가있었는가 짐작할수 있다。 씹으면 바삭바삭하고 향기가 뛰어난것이 이 참외다。

▼요즘 한창 맛이나는 복숭아는 三國史記에 桃·李 기록이 있는것으로보아 오래전부터 재배된 것이다。 16세기때 蟠桃등 6품종이 있었고 서울의 桃洞은 桃林이었다。 開城·水原이 재배의 중심지였고 舊韓末의 6月桃는 天津 水蜜桃와 비슷했다。 海東農書는 毛桃(털이많다)와 함께 鬱陵桃、紅桃、碧桃、三色桃、遏桃、甘仁桃、僧桃、楔桃등 9종을 꼽고있는데 지금은 백도、대구보、창방조생등 그 종류 이름도 다르다。

▼甜瓜、西瓜、爲滌暑之需라하여 참외와함께 수박은 더위를씻는 음식이라했다。 수박은 고려인으로 몽고에귀화한 洪茶丘장군이 1200년께 중국에서 가져왔고 임진왜란때 난을피한 사람들이 無等山에 심었다고 한다。 無等山 수박은 푸랭이라고해서 진초록색 果皮에 무게는 30kg까지 나가는 晩生種이다。 不淨을피해 깊고 넓게 구덩이를 파고 재배하는 것이 특색이다。 星州수박은 참호지에 기름을 발라 고깔을씌워 早期재배에 손을 먼저 댄것이 성공한것 같고 1965~1969년의 全盛期에는 7、8만톤이나 출하됐다。

▼포도는 安城포도를 알아준다。 불란서 선교사 공안국신부가 1930년에 비봉산 기슭에 과수원을 개간、블랙함부르크、마스카트함부르크、골드핀등을심었다。 알로 먹는 포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가공용포도에도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올 여름과일은 지난해의 흉작으로 흉작이면서도 불경기를 타 잘 안팔린다는데 秋夕과일은 풍작이라고 하니 과일 왕국에 태어난것을 새삼 다행하게 생각하는 이도 많을것이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397
은 : 온스당 US 8.61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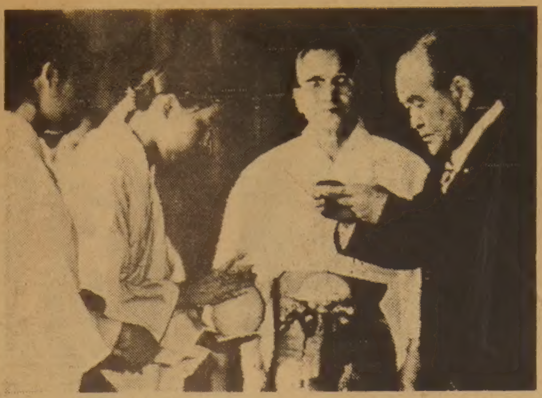
한국관

새로운 메뉴로 여러분의 식탁을
풍성하게 서비스하고 있아오니 꼭
왕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연말연시 각종연회, 동창회, 결혼피로연,
환갑잔치등 각종모임, 단체손님 대환영

※특별메뉴
곱창전골백반
생선초밥
꼬리곰탕
즉석불고기
민어매운탕
육회, 어초회

•영업시간• 오전11시~새벽1시
대표 : 나 옥 녀
628 BLOOR ST. W. ☎ : 536-0290, 531-0277



◇神社 참배하는 日수상 스즈끼 일본수상이 지난해 8월15일 전몰軍民의 위패 2백50만位가 안치돼있는 東京야스꾸니 神社를 참배했다。【AP】

韓日관계 새 轉換期

光復36年에 다시본 오늘의 日本 <2>

不快한 「8·15」

贖罪없이 敗戰아픔만 強調

蘇위협속 防衛分擔을 認識

우수한 工業力바탕 最新武器 자체개발 박차

일본에서 맞이하는 「8·15」는 불쾌하다. 光復을 안겨준 8·15는 우리에겐 둘도없는 기쁜날이지만 일본사람에겐 敗戰을 갖다준 슬픈날이다.

그래서 「8·15」를 전후한 일본의 행사는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보다는 패전에 대한 憤痛이 강조된다. 하루라도 더빨리 광복을 안겨준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끼(長崎)에 투하된 원폭에대한 증오만이 강조되고 군국주의 일본이 아시아에 저지른 죄과에대한 속죄의식은 전혀 찾아볼수 없다.

매년 8월6일 아침 8시15분 원자폭탄이 떨어진 지점인 히로시마 평화공원에서는 위령제와 기념식을 갖는다.

마치 미국이 가공할 살인무기를 아무죄도없는 일본에 던져 무고한 사람을 죽인것처럼 나무란다. 이원폭투하가 침략전쟁을 종식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일본제국주의 밑에서 신음하던 많은 아시아사람을 구할수 있었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8·15」가 다가오면 NHK를비롯, 각방송·TV는 희루연 필름에담긴 종전을 전후한 일본의 참담한 모습을 자주 비춰준다.

군가를 배웅으로써 독기서린 일본군의 행렬과 미군기의 폭격의 처참한 모습에서 전쟁을모르는 일본국민에게 고난의 과거를 일깨워준다기보다● 패전의분함을 더느끼게한다.

영화관도 復古調의 전쟁물이 대히트여서 작년 이맘때 개봉한 明治시대 마지막 사무라이인 노기·마레스께(乃木希典) 대장의 旅順요새 함락작전을그린 「203고지」가 2백만명의 관객을끌었다.

금년엔 일본의 전함야마또(大和)의 최후를그린 「連合艦隊」가 공전의 인기를 끌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復古무드와 右傾化의 물결과 더불어 首相과 각료가 군국주의의 상징처럼 돼있는 야스꾸니(靖國)신사에 참배하는것이 어느덧 상식처럼 됐다. 三木, 大平내각때는 개인자격으로 참배했던 것이 80년7월25일에 열린 스즈끼(鈴木)내각의 각의에서는 공식참배를 의결하기까지했고 81년에들어선 한달 더나가 82년부터 「8·15」를 「전몰장병의추도일」로 제정할것을 심의, 연구키로 했다. 75년이전까지만해도 軍備의 「軍」字도 꺼내지못했다. 그러던것이 이젠 再軍備를 금지시킨 일본 헌법을 고쳐야한다는 주장을 각료가 할수있게끔 됐다. 78년 가을엔 A급 전범자인 도오조(東條英機)를 靖國신사에 합사까지했다.

일본 정국의 保守回歸속에 소련의 極東군사력 증강은 일본국민에게 재군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좋은 계기가 됐다.

일본은 이젠 미국만의 힘으로는 전세계를 지킬수 없으며 적어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은 일본주변의 해역만이라도 지킬 책무가 있다는것을 깨달아가고있다.

5월의 레이건美대통령과 스즈끼(鈴木) 일본수상과의 공동성명이 바로 對蘇위협에 대한 공동인식과 역할분담을 의미한 것이었다. 西方진영의 일원으로서 일본이 확고한 인식을 갖이 한다면, 自衛隊의 再軍備증강은 쉽사리 달성할 수 있다.

일본자위대는 한국동란으로 駐日미군 4개사단이 한국전선에 出動함에따라 일본방위의 공백을 메우기위해 경찰예비대로 편성됐다.

50년8월 맥아더 사령관의 지시에따라 7만5천명의 경찰예비대로 출발한 자위대는 80년엔 육상자위대 18만명, 해상및 항공자위대 각각 4만명, 도합 26만명의 병력으로 신장했고 예산도 경찰예비비 1천3백억엔이던 것이 15배인 2조2천3백억엔으로 늘어났다.

자위대의 구성원은 졸병보다 下士官이 더많다. 일반병사는 4만4천여명으로 25%인데반해 하사관은 7만7천여명으로 전체의 40%가된다. 간부후보생과 하사관을 대량양성함으로써 언제 유사시에 증원할수 있는 예비장교양성에 역점을 두고있는셈이다.

일본의 징병적령대상자가 2천5백52만명으로 추산되어 항시 장교가 확보돼있는 상태에서는 시간과 여건만 주어지면 2백만의 自衛隊兵力은 하루아침에 편성할 수 있다.

兵力의 숫자뿐만 아니라 일본의 우수한 공업력은 우수한 병기를 자체생산, 무장하고 있다.

미국제의 AA기관총대신 62式기관총을 생산대체했고, 소총 역시 일본사람의 체격에맞는 64식소총을 생산, 무장했다. 각종 박격포와 자주포는 물론 전차도 우수한 74식전차를 개발, 무장했다. 1백20밀리 박격포와 스스로 赤外線을 발사하여 박격포탄의 反射光을 포착, 敵탱크를 파괴하는 최신식 「88式전차」를 지금개발중에있다.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개발한 空對艦미사일 ASM과, 가와사끼(川崎)중공업이 개발한 지선유도 對戰車미사일 MAT는 미국제보다 그性能이 훨씬 우수하다.

전자공학과 半導體분야에서 미국을 앞지른 일본은 스위치하나로 최신식 兵器를 양산할수있다. 그뿐만아니라 하사관의 대량 양성으로 兵力을 얼마든지 늘릴수있다. 일본의 재군비는 완비태세를갖추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東京=宋孝彬특파원〉

레이건會見

美·蘇 頂上會談 기대

"유럽배치 核무기제한등 論議"

【워싱턴5日UPI=聯】 레이건 美대통령은 5일 소련이 유럽배치 核무기제한협상을 갈망하고 있으며 자신은 이문제와 관련, 소련공산당서기장 브레즈네프와 처정상회담을 갖게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때를 같이해 브레즈네프도 이날 소련은 유럽배치 중거리核미사일감축문제에 관해 한시라도 협상에 응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있다고 말한것으로 소련의 노보스티통신이 보도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날 발간된 워싱턴·스타紙와의 회견에서 자신은 그동안 크렘린측과 戰域核무기문제에 관해 「상당한 의견을 교환」해왔다고 밝히고 헤이그국무장관과 蘇외상 그로미코가 금년안에 회담을 갖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레이건 대통령은 특히 소련이 戰域核무기 및 군축등 2개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또 아직 브레즈네프와의 첫 정상회담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으나 회담이 실현될경우 戰域核軍문제가 우선적으로 논의될것이라고 전하고 미국은 對蘇협상시 카터前행정부에 의해 마련된 제2단계 전략무기제한협정(SALTⅡ)을 근간으로 삼을것이나 이를 조인할 의사는 갖고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韓人 원폭피해자 추모제 지난45년 2차대전중 日本의 히로시마(廣島)에서 美國의 원폭으로 사망한 韓國人 유가족들이 5일 이곳 평화공원 부근에 세워진 韓國人 원폭피해자 위로비앞에서 추도예배를 드리고있다。【히로시마(廣島)5日UPI=聯】

美管制士들 일부復歸

정부發表 解雇통지에 수백명罷業철회

◇성난 美관제사들 성난 2명의 美민간항공관제사(사진우측의 손든이들)가 5일 시위중인 뉴욕州 이스트 메도의 아이젠하워공원으로 그들을 설득하기위해 온한 연방법원관리를 쫓아내며 야유를 퍼붓고있다。【이스트메도5日=AP】

파업指導者 6명收監

勞組, 政府발표否認 強硬선언

【워싱턴5日聯·AP=聯】 레이건美행정부는 5일 파업중인 항공관제사들 가운데 수백명이 정부의 해고통지서전달후에 직장으로 복귀하고 있다고 밝혔다. 드루·루이스 美운수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4백71명의 관제사들이 이날로 직장에 복귀했으며 다른 93명도 정부의 직장복귀명령최종시한일인 6일이전에 직장에 복귀할것을 통고해왔다고 밝혔다.

解雇에 전체勞組타격우려

그러나 로버트·폴리 美직업항공관제사기구(PATCO) 노조회장은 이날 이러한 정부측발표를 부인하면서 PATCO의 조직은 전과같이 튼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미국정부는 6일0시(한국시간)를 기해 레이건 대통령의 직장복귀명령을 어긴채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美직업항공관제사기구(PATCO) 소속 관제사들을 해고하기 시작했다.

이와함께 美연방地法당국도 PATCO의 버지니아州 및 캔자스州지부소속 지도자 6명을 「法廷모독」혐의로 수감조치했다.

美연방항공국(FAA)의 호놀룰루주재 대변인은 레이건 대통령의 직장복귀명령을 어긴채 5일상오11시(현지시간)로 돼있는 출근시간에 항공관제사들이 직장에 복귀하지않았기때문에 이날 상오의 근무조원들에게 『해고용의』를 표명하는 통지서를 전국地方FAA지부에서 발부하고있다고 말했다.

【뉴욕5日聯=聯】 레이건행정부가 파업중인 美항공관제사들에 대해 해고조치를 단행한것은 노조지도자들로부터 레이건대통령이 이같은 일련의 노조격파정책을 계획할수 있는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사고있다.

노조전문가들은 레이건대통령이 파업중인 공인노조원들을 해고시킨 조처는 美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대변인들과 노동사연구가들은 레이건대통령이 항공관제노조의 권리자체를 박탈하게 될것을 더욱 우려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대학의 스탠리·애러노위츠교수는 상식적인 관념에서 레이건대통령이 항공관제사들은 해고할수없는 위이라고 말하고 이조처로 항공산업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수도있다고 우려했다.

애러노위츠교수는 항공관제노조의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레이건 대통령의 위협이 실행에 옮겨질경우 이것은 전체 노조에 대한 일대 타격을 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같은 위협이 실행될경우 현재 레이건행정부와 새로운 노동계약을 추진중인 다른 공익노조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라고 우려했다.

美정부고용인연맹 대변인도 공익노조들이 레이건대통령의 항공관제노조에 대한조처를 초조히 관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정부고용인 연맹은 현재 레이건행정부와 새 노동계약을 교섭중이다.

波사태 일단終熄 再協商결과 注視

【바르샤바5日AP=聯】 지난 3일 공산당사·인근거리의차량봉쇄로 고조됐던 폴란드 노동위기는 5일정오 자유노조(솔리다르노스크)에의한 2시간의 총파업과 3시간의 운수노조파업이 휴식됨과 동시에 수백대의 차량이 가두봉쇄50시간만에 바르샤바市외곽으로 철수함으로써 일단 진정되었다.

그러나 6일 재개될 정부와 자유노조간의 협상이 결렬될경우 노동분규는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노조의 제2인자인 안드레지·그비아즈다는 이날 차량해산에 앞서 연설을통해 『우리는6일 정부측과 협상을 개개한다』고 말하고 『협상에서 아무런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경우 오는10일다시 이자리로 돌아올지 모른다』고 밝혔다.

레이건, 사다트에

美, "이스라엘生存權 인정않는限 PLO와協商안해"

【워싱턴5日UPI=聯】 레이건 美대통령은 5일 미국이 中東평화협상의 「완전한 당사자」로 남을것임을 선언하고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가 이스라엘의 생존권을 인정하지않는한 PLO와는 협상하지 않을것임을 재확인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대통령취임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안와르·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을 맞아 백악관에서 행한 환영식연설에서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中東평화에 대한 우리의 공약과 캠프 데이비드 협정의 기반을 계속 공고히 해나가겠다는 우리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 美國이 카터前대통령에 의해 시작된 中東평화협상의 「완전한 당사자」로 남을것임을 명백히 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그러나 미국이 포괄적인 中東평화해결을 위해 PLO를 인정해야 한다는 사다트 대통령의 對美촉구에는 아무런 언급도하지않아 미국의 對PLO정책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메아리

鳳凰의 그라운드

「좋은 스코어는 이겼느냐 졌느냐 보다 잘싸웠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기록한다」(GL라이스).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며 힘차게 날아가는 흰공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통쾌감을 준다. 힘과 技 그리고 두뇌의 삼위일체로 벌어지는 야구경기는 플레이어도 즐거웠지만 보는 이들이 더 신바람이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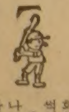
다른경기에비해 야구는 그역사가 별로 오래지 않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야구기록은 1744년께다. 당시 발간된 포키트북에 야구를 묘사한 목판화가 실렸다.

초기 카틀라이트 규칙에따른 첫경기는 1846년6월19일 미국뉴저지주의 호보켄에서 벌어졌다. 이때 뉴욕 나인팀은 니커보커즈를 4이닝시합에서 23대1로 물리쳤다.

야구는 역시 아메리칸스포츠다.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로 나뉘어 펼쳐지는 프로경기에선 숱한 스타와 영웅이 탄생한다. 베이브·루드가있었고 행크·아론이나왔다. 홈런왕 베이브·루드는 행크·아론에의해 대기록이 무너졌지만 그가 메이저리그서 세운 최장거리 홈런기록은여전하다. 1919년에 1백78m9의 장쾌한 홈런을 터뜨린것이다.

월드·시리즈의 관객동원도 엄청나다. 1959년 여섯게임을 벌여 43만여명의 관객을 그라운드로 불러 들였다. 그래서 미국야구하면 당연히 프로야구를 연상하게 된다.

일본의 프로야구도 대성황을 이루지만 고교야구 열기 또한 대단하다. 매해 여름마다 大阪의 甲子園에서 열리는 고교야구대회는 프로 못잖게 온국민을 들썩이게 한다.



우리나라엔 프로야구가 없으나 고교야구만큼은 다른스포츠종목이 부러워할만큼 인기가 대단하다. 발랄한10대가 치고달리는 구장은 언제나 초만원의 그라운드가 된다. 고교야구 수준은 세계정상급임에 틀림없다. 지난번 미국에서열렸던 세계대회의 우승이 이를 입증한다.

어제부터 서울운동장에선 또 한번 야구의 연기가 피어 올랐다. 올해로 11번째 맞는 봉황대기고교야구에선 과연 어떤 화려한 게임이 연출될지 기대가 가득하다. 좋은 수비는 만들어지고 훌륭한 타자는 탄생한다고 한다. 봉황의 그라운드에서 또 많은 스타가 태어나기를 바란다.

低燃料·높은 안전성의 美·日·伊 3國合作 보잉767機…벌써 3백대注文

지난5일 새벽(한국시간) 미국의 보잉항공社는 시애틀 격납고에서 처음으로 제작완성한 보잉767機를 공개했다.

이 신종여객기는 전세계 여객기의 45%판매점유율을 갖는 보잉社가 오는83년부터 주종상품으로 내놓아 하늘을 누비게 된다. 민항전문가들은 보잉767의 뛰어난 성능으로 「점보제트」 보잉747의 全盛의 막을 내리게 될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보잉767의 특징은 저연료와 저소음, 높은 안전성에 있다. 보통 제트여객기의 35%까지 연료를 절약할수 있다. 연료는 적게들지만 속도는 점보제트 747과 비슷한 수준으로 빠르다. 연료비를 줄일수 있으므로 항공료도 그만큼 낮출수 있다.

제트엔진의 양쪽날개에 하나씩 2개로 설비되어있고 방음설계가 완벽에 가깝다. 높은 안전성은 각종 계기의 혁신으로 이루어졌다. 비행기의 조종석계기는 복잡하게 마련. 보잉767은 조종실로부터 모든 계기를 쫓아냈다. 계기대신 조종석앞에는 소형 TV화면이 하나 들어선다. 조종사가 필요한계기를 보고싶을때 단추를누르면 계기의 상태가 영상화되어나온다. 이상이 있을때는 자동적으로 TV화면이 그것을 알린다. 조종사는 복잡한 계기로인한 주의력분산을 피할수있다.

◇보잉767 合作분포。

보잉767은 英·佛합작 초음속여객기 「콩코드」에이은 항공사상 두번째 합작품이다. 미국 보잉社와 일본·이탈리아가 제작개발에 참여했다. 그러나 합작은 형식이다. 항공기개발에 가장 중요한 주익의 설계와 조종실은 보잉社가 맡았고, 일본·이탈리아는 동체와 가변익등 각각 제작공정의 15%씩을 맡았다. 일본과 이탈리아는 「미(尾)·동체만을 맡았다」고 불평을 해왔다.

1대당 제작비는 3백억원가량. 이미 각국으로부터 3백대의 주문을 받았다. 일본의 젠니찌(全日空)社는 40대를 주문했다.

全長은 48.5m, 70.5m의 보잉747보다 크기는 3분의1정도이다. 객석은 2백11석, 747(4백90석)의 반에도 못미친다. 그러나 좌석배치가 「2-3-2」시스팀으로 객석을 마음대로 조절할수있는 이른바 「러버플레인」(고무비행기)형의 특색을 갖고있다.

순항거리는 4천7백㎞(보잉747은 9천㎞), 순항속도 시속8백73㎞의 중거리용 여객기이다. 보잉767이 하늘의 왕자로 군림할 날도 멀지않다. 【UPI】

이란, 佛대사追放令 사드르送還 거절에

【파리5日AP=聯】 이란정부는 5일 프랑스정부가 최근 이란을 탈출, 프랑스에 망명한 아볼·하산·바니사드르前이란대통령과 이란국회파인 최고 합크파지도자 마수드·라자비에 대한 이란송환요구를 거부한데 항의, 기·조프지駐이란 프랑스대사에게 추방명령을 내렸으며 이와 동시에 프랑스와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도 이날 조르지 이란대사를 즉각 소환하고 이란에있는 모든 프랑스거류민들에게 잠정귀국명령을 내렸다.

蘇製무기購入타진 쿠웨이트美製대신

【쿠웨이트5日AP=聯】 쿠웨이트는 美製신형 對空호크미사일을 구매하라는 미국측제의를 거절하고 대신 소련으로부터 이와비슷한 성능을지닌 각종 무기의 구매가능성을 타진중에있다고 살렘·알·사바 쿠웨이트국방상이 5일 밝혔다.

알·사바 국방상은 『美製호크미사일의 가격이 너무 비싸고 이와같은 종류의 무기들이 이미 쿠웨이트에 많이 들어와있기때문에 미국측의 對쿠웨이트 新型 호크미사일 구매제의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일본스테이크 집

전형적인 일본식

"In a class by itself"
444 Yonge St.
at College Park
597-1255-6
Reservations accepted!

STORE HOURS
평 일 :
스페샬점심시간
11 : 45AM～2 : 30PM
5 : 00PM～11 : 00PM
토요일 :
5 : 00PM～11 : 00PM

일요일은 문을 닫지만 예약에 한해서는 언제든지 일을 합니다.

※파티, 단체예약등 환영함.

NORTH YORK AUTO BODY
20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 사고차량 완전수리
● 페인팅(oven baked finish)
● 수리중 차량대여
● 각종차량 일체취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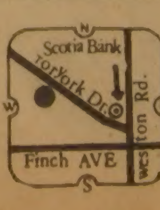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Oven Baked Finish

교포우대

(B) 749－0555
(R) 881－4053

215 TORYORK DR.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송 대 헌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7旬「독신女甲富」일가 의문의被殺

가정부·養女도 慘變

둔기로치고 나일론끈·철사로 목졸라

조카內外가 2週후發見

◇숨진 尹貴花씨

◇가정부 黃貞姬양

갑부인 독신의 불교여신도가 수양딸, 가정부와 함께 피살된지 2주만에 발견됐다. 4일하오 9시께 서울龍山區元曉路1街128의12 尹貴花씨(72) 집에서 尹씨와 양녀 수경양(6), 가정부 黃貞姬양(19·경북迎日郡興海邑 曲川洞)등 3명이 나일론끈과 철사로 목이졸리고 둔기로 맞아숨져 있는 것을 尹씨의 조카 尹永焙씨(48·서울지검북부지청보결계장·서울城北區貞陵4洞190의41)와 부인 高淑鍾씨(46)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尹씨가 10억대의 재산을 갖고있으며 평소 외부인이 찾아오면 문구멍으로 신분을 확인한후에야 문을 열어주었던 점, 나어린 수양딸까지 잔인하게 죽인 사실등으로 미루어 尹씨의 재산을 노린 면식범에 의한 범행으로보고 尹씨주변인물을 중심으로 수사중이다. 경찰은 이와함께 현장발견당시 방문이 모두안으로 잠겨있었고 안방반닫이에있던 20여종류의저금통장과 도장이 모두 없어졌으며 상당수의 패물도 없어진것같다는 조카며느리 高淑鍾씨의 진술에 따라 단순한 침입강도일 가능성에대해서도 수사중이다.

안방등 엉겨붙은 피흔적… 양녀는 佛像앞에

垈地百坪 2층 방12개 선풍기·TV켜진채

[현장] 피살된 尹씨의 조카 尹永焙씨에 의하면 이날 잠겨 있는문을 박차고들어가보니 尹씨는 1층주방옆 피아노가 있는안방에서 나일론끈으로 목이졸린채 엎드려숨져있었고 가정부 黃양은 오른쪽이 마루문기로맞아 피부성이가 된채 나일론끈으로 목이졸려 尹씨옆에 누워있었다. 또 양녀 수경양은 2층불상앞 방의침대밑에 전선으로 목졸려 숨져있는 시체로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형체를 알아볼수 없을 정도로 부패해 악취가 심하게 풍겼다.

2층계단 중간에는 黃양이 흘린피가 엉겨붙어있었고 피묻은 슬리퍼자국이 안방과 2층계단등에 나있었다. 또 안방에는 20인치 컬러·TV가켜져있는채로발견됐고 선풍기와전등도켜져있었다.

尹씨집은 대지1백평, 건평 50평의 2층 저산가옥으로 1, 2층에 크고작은방이 12개로 정문과 철제펏문은 모두 안으로 잠겨있었고 길가로난 1, 2층창문은 모두쇠창살로 차단돼 있었다. 尹씨는 지난46년부터 이집에서살아왔다.

[발견] 조카 尹씨 부부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달23일 낮12시께 서울中區忠武路4街 진고개식당으로 숨진 尹씨를 초대, 양녀수경양과 운전사 李文甲씨(50)등 6명이 점심식사를한뒤 尹씨와 수경양은 서울1바3725호 구형 크라운승용차로 돌아갔는데 그뒤 여러차례 전화를걸었으나 받지않았다는것.

조카尹씨는 지난 2일하오 1시께 尹씨집에 갔다가문이 잠겨있어 그냥돌아갔는데 3일다시찾아왔는데도 문이 잠겨있어 하오1시께 龍山경찰서 직할파출소에 무단가출신고를했다.

다음날인 4일하오 9시께 조카尹씨부부가 다시 찾아와 잠긴문을뜯고들어가 참사현장을 발견했다는것.

[수사] 경찰은 현장검증결과 尹씨집 현관에 23일자 조간신문과 주간종교, 수도요금고지서, 7월25일자 반상회보등 14종류가 쌓여있어 尹씨가족이 참변을 당한것은 지난달 22일밤이나 23일새벽인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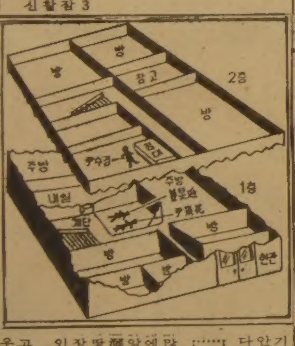
경찰은 ▲대문이 열쇠로만 열게돼있고 ▲철제펏문 근처에는 거미줄이 쳐져있었고 ▲장롱과 서랍등을 뒤진흔적이 없어지지만 통장등이 없어진점으로 미루어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또 마루와 방등에 난 슬리퍼자국이 동일한것으로보아 일단 단독범의 소행으로 보고있는데 尹씨를 잘 아는 범인이 문을따주자 안으로 들어와 1층尹씨방에서 尹씨를 목졸라죽인뒤 비명소리를듣고 2층에서 내려왔다가 놀라 다시올라가던 가정부 黃양을 뒤따라가 계단중간에서 둔기로 이마를 때려 숨지게한뒤 다시 2층으로가 수경양마저 살해한것으로 보고있다.

이에따라 경찰은 조카 尹씨부부와 운전사 李씨등을불러 주변인물에 대한수사를벌이는 한편 지난3일과 4일 高씨의 남동생 高鍾旭씨(37)가 회장으로 있는 서울창교청년회사무실에 4차례나 전화『하이야트호텔인데 尹보살이나 高회장을 만날수없느냐』고 말한 사람의 신원을 찾고있다.

또 尹씨가 다닌적이 있는 서울城北區城北洞 모사찰에있는 승려 金모씨(34)가 3일낮 조계사앞 후원다방에서 尹씨의 조카며느리 高씨를만나 尹보살의 안부를묻자 高씨가『멀리가셨는데 1개월후에나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는 진술에따라 高씨도 환문했다.

그런데 피살된 尹씨는 평소 필요할때만 운전사를불렀기때문에 운전사李씨는 그동안 피살사실을 몰랐다는것이다.



[尹씨주변] 고향이 전남 順川인 尹씨는 젊을적부터 돈을 많이벌었으며 또 서울濟進洞에서 여관과 다방도 경영, 알차게 재산을모아 현재佛光洞과 千戶洞에 1천여평의 땅을 갖고있고 미국에도 목장이있는등 재산이 10억원대인것으로 알려졌다.

함께숨진 수경양은 2년전 고아원에서 데려다 양녀로키우고있었고 가정부 黃양은지난7월초 직업소개소를통해 데려와 큰집에서 여자3명만 살아왔다.

주간女性

레이건독트린과 새亞洲

더이상「美의後退」는 없다

「對蘇연합」封鎖網을 구축

잔건몰라도 큰方向 잘잡아…「經濟바탕 강력한外交」 內·外政 이미大路에

【워싱턴=曺淳煥 특파원】레이건 美대통령은 외교에 약하다고 흔히 미국언론이 평해 왔다.

지금까지 레이건은 사실 외교에 주력해온 것은 아니다. 분명히 레이건은 미국경제회복에 온힘을 쏟아왔다. 10단위 숫자의 인플레이션을 한단위 숫자로 내려 미국경제를 반석위에 올려놓아 달러를 다시 강한 국제기축통화로 만들려는 것이다.

금년말의 인플레이션은 한단위 숫자인 9%로 내려올것으로 전망되고있다.

「레이건정치」는 성공해 가고 있다.

레이건은 미국경제회복에만 전력투구하고 외교에는 등한히 해 온 것일까.

레이건은 지난1월 대통령으로 취임했을때 13%의 인플레이션아래 비틀거리는 미국경제로서는 강력한 미국의 힘, 미국외교가나올수 없다는것을 굳게 믿어왔다. 레이건의 「아메리카제1주의」는 강력한 미국경제가 뒷받침 해야 한다는 것이다.

헤이그 국무장관등 공화당 동부중도파들이 「歐洲제1주의」에 기울어져 있다면 레이건등 공화당 서부보수파들은 태평양주변의 반공체제를 중시하는 「아메리카제1주의」에 치우쳐있다.

레이건의 외교정책은 국내정치에 뿌리를 두고있다. 국내정치는 바로 경제정책에바탕을 둔다. 경제정책은 減稅정책으로부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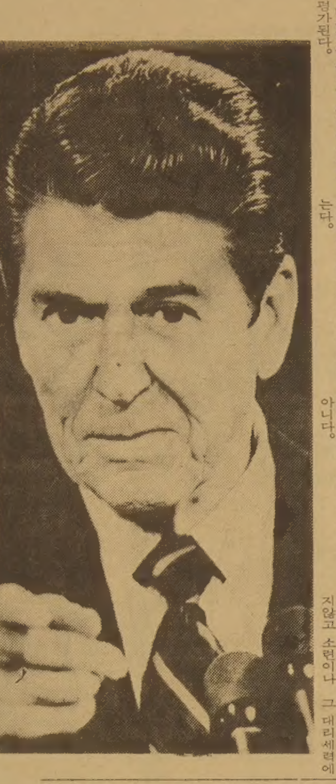
레이건의 減稅일괄안이 지난주 민주당지배하의 下院에서 2백38대 1백95로 통과되었을때 레이건정치는 성공을 향한 탄탄대로에 들어섰다.

레이건은 땅에 떨어졌던 미국 대통령의 위신을 되찾고 있다고 평가된다.

린든·존슨 대통령이 베트남전쟁으로, 리처드·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사건으로, 지미·카터 대통령이 이란사태로 실추시킨 미국 대통령의 권위를 레이건대통령이 일으켜 세우고 있다고 저명한 언론인 제임즈·레스턴은 말한다.

레이건은 미국경제가 좌표를 다시찾아 안정될때 미국외교가 위력을 발휘한다는신념아래 외교에도 차근차근히 손을 써왔다.

레이건은 서두르지 않았다. 레이건은 카터처럼 이것저것 한꺼번에 다성사시키려고하지않았다. 취임한지 3개월만에 밴스국무장관을 모스크바로 보내 SALTⅡ협상을 조급히 서두르다가 소련에게 일축당한 그런 카터의 어리석음을 레이건은 저지르지않는다.



레이건정치를 의술에 비유해보면 漢醫의 오묘한 원리에 통달해 있는것같다.

가령 폐를 치료할경우 당장 폐에 대한 약을 쓰기보다는 위장을 강하게 만들어 원기를 회복하고 그 원기에 힘입어 폐에 대한 약을 써 그병을 아무부작용없이 조용히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漢方의 妙를 레이건은 터득하고 있는 것같다.

그래서 레이건정치는 巨視的이다. 그의 외교도 거시적이며 원대하다.

레이건에게는『외교가 없다』고까지 말해온 미국언론은 레이건은 아무말도 하지않고 있는데 아시아에서 「레이건독트린」이 형성되어가고 있다고 풀이하기시작했다.

미국언론은 정치, 경제면에서 「레이건혁명」이 조용히 일고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아시아에서 「레이건독트린」이 형성되어가고 있다는 미국언론의 평이 의회에서 레이건減稅案이 통과된 직후 그러니까 레이건의 경제회복에 서광이 비치기 시작한때 나온 것은 결코 우연한일이 아니다.

「경제력강화 곧 외교위력」이라는 레이건의 단순공식이 주효해가고 있다는 것을 미국언론이 내다본데서 나온 것이다.

美언론도 민주당지도층처럼 레이건의 지도력을 재평가, 재인식한 것이다.

레이건은 세계구석구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카터 대통령처럼 소상히 알지는 못한다.

또 그렇게 소상히 파악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점에서 외교정책수립이나 추구에 필요한 정보파악에 약하다고 한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외교에약하다는 것으로 바로 직결되지는않는다.

카터가 잔것들을 자세히 알고 큰방향은 잡지못했다면 레이건은 잔것들은 일일이 모르나 미국외교가 나갈 방향을 크게 바로잡았다.

그방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反蘇연합, 힘의 외교다.

韓·日·中共·아세안中心 새介入·힘의 增強 추구

太平洋치중의 巨視的접근…盟邦에 安定感

「레이건독트린」은 ①反蘇연합 ②새개입 (공약) ③힘의 증강의 세기둥위에 서있다고 유에스·뉴스·앤드·월드·리포트誌는보도했다.

아시아의 反蘇연합국가로 일본, 중공, 아세안5개국및 한국이꼽혀졌다. 호주와 뉴질랜드가 언급되지 않았으나 이두국가가 反蘇연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며 주축이 아니라는 뜻일 것이다.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새개입 (공약)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를 유에스·뉴스誌는 말하지않고 소련이나 그 대리세력에 의한 침략의 희생자를 도우는 것이라고 했다.

레이건은 이미 중공과 손잡아 베트남의 침략을 받은 캄보디아의 민족주의자들과 소련의 침략을 받은 아프가니스탄게릴라들을 정치, 심리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존슨 대통령의베트남정책처럼 직접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베트남에 위협을 느끼고있는아세안국가들을 돕는 형식으로 캄보디아를 지원할것이다. 이런방식이 레이건외교스타일이다.

全斗煥대통령의 아세안5개국순방으로 한국과 아세안국가간에 상호협력관계가 증대되었지만 이것역시 레이건 대통령의 원대한 反蘇연합전략에 의식하든않든 얽혀있다고 봐야할것이다.

중공에의 미국무기판매를 미국의 새아시아개입으로봐도 좋을것이다.

「레이건독트린」의 세번째 기둥인 힘의 증강은 레이건외교의 기본철학이되어있다고하겠다.

미국이 통상 2척의항공모함을 서태평양에두어오다가페르시아만의 긴장으로 1척의 항모를 빼내 인도양으로 보냈으나 앞으로는서태평양의 해군력을 줄이지 않고 인도양에 주요해군력을 상주케하겠다는 것이다.

레이건행정부는 4백60척 해군에서 7백척이상의 해군력으로증강할 계획을 추진중이다.

미국은 군사력강화에 스스로박차를 가하면서 일본에 페르시아만 석유를 구입하는 해상통로 확보를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라고 조용히 압력을 가하고있다.

레이건대통령은 지난5월 스즈끼일본수상이 워싱턴을 방문했을때 일본을 가장 「중요한 우방」이라고 불러 일본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할것을 은근히 요구했다.

한마디로 아시아에서 형성되어가는 「레이건 독트린」은 베트남전쟁후 소련팽창주의앞에 아시아에서 동요하고 후퇴해온 미국이 더이상 후퇴하지않고 오히려 봉쇄로 나가겠다는데 역점을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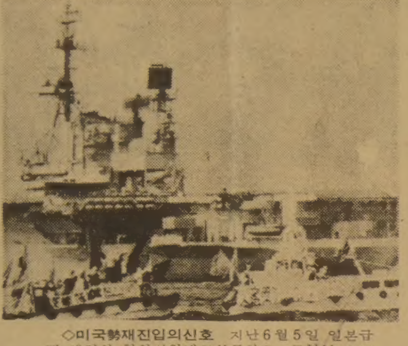
69년에 나온 「닉슨독트린」은 미국이 핵우산만 아시아우방들에게 펼쳐주고 지상전에는 개입치않으며 우방들 스스로의 지상병력으로 자국을 방어할 것을 선언한 것으로 베트남전쟁 종결에 이론적 근거를 마련했다.

「닉슨독트린」이 나온후 한국에서는 미제7사단이 71년에 철수하여 한국에 큰충격을 주었다.

레이건은 카터의 주한미군철수를 백지로 돌렸지만 「레이건독트린」은 소련의 아시아팽창주의에 정치 경제 군사협조로 反蘇聯合을 구축하여 봉쇄적으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쉽게말해 카터행정부때 北의위협에 대해 어딘가 불안한 구석이 있었던 한국안보가 레이건행정부에 들어와서 그불안이 씻어지고 긍정적 안보의 분위기가 잡혀지게 된것이 이 「레이건독트린」의 위력으로 보면 된다.

「레이건독트린」은 對蘇힘의 우위를 확보했던 50년대의 소련봉쇄정책인 「트루먼독트린」이나 아이젠하워대통령의 「롤·백(ROLL BACK)정책」에는 미흡하나 닉슨독트린보다는 아시아중시, 아시아개입에로 기울어져있다.



◇미국勢재진입의신호 지난6월5일 일본급진 세력의 항의시위에도불구하고 모항인 요코스까(橫須賀)港에 입항하고있는 美항공모함 미드웨이號【UPI】

영기號 돌아왔다

蘇피납 15일만에 東草港에

【東草=聯】지난 7월23일 동해 대화퇴어장에서 오징어잡이하던중 2백해리 수역침범혐의로 소련 나호트카항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영기호(33·99톤 선장 박수백·42)와 어부 11명이 나포15일만인 6일하오 4시45분 속초항에 무사히 돌아와 그리던 가족들의 품에 안겼다.

영기호는 지난7월23일 동해에서 소련배에나포되어 12일간 소련에 억류됐다가 지난3일 하오 4시30분 소련·나호트카항을 떠나 귀항길에 올라 다음날인 4일하오 6시15분 동해 대화퇴어장 조업자체선인 북위40도를 혼자넘어와 957의 7해구(북위39도50분·동경134도46분)에서 대기하고있던 수산청소속 지도모선(1천3백40톤)과 무궁화52호(5백톤)의 마중을 받았다.

무궁화호는 영기호와함께 6일 상오1시30분께 울릉도근해에 도착, 대기중인 해경 303경비정에 인계됐으나 울릉도근해가 격랑으로 3~5m의 파도가일어 귀항시간이 예정보다 다소늦어져 나포15일만인 6일하오 속초항에 도착했다.

어부 11명은 모두건강한모습으로 돌아와 속초외항에서 보사부검역반의 검역과 수색을마치고 다음 상륙, 그리던 가족들과 재회의기쁨을 나누었다.

속초항에는 이날 영기호가 도착하기 2~3시간 전부터 1천여시민들이 몰려나와 부두와언덕 고층건물 옥상에서 영기호의입항을 지켜보다 영기호의모습이 수평선에 나타나자 발돋움을해가며 왔다고 함성을지르며 환호했다.

영기호가 30분간의 검역을 마치고 항내로 들어서자 가족과 시민들은 일제히 『돌아왔구나』며 박수를치며 기뻐했고 온 항구는 환영 무드에 휩싸였다.

영기호의 귀환을 지켜본 시민 조인상씨(42·속초시 영랑동3통2반)는 북괴도 아직 억류중인 납북어부들을 빨리 돌려보내도록 각성하라고 흥분하기도 했다.

수협부두에 오른 어부들은 달려나온 가족들과 재회하고 아버지, 어머니 모두 안녕하시냐, 집에 별일 없노냐라는등 가족들의 안부를 물으며 대기중인 버스에 올랐다.

속초시 청호동 431의1 선주 김명수씨(36)의 집에는 이날 이른 아침부터 어부 가족들과 이웃 친지 30여명이 몰려와 함께 기쁨을나누었고 선주 김씨는 신속하게 대처해 배를 돌려보내게 해준 정부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송환영기호어부 명단(11명) ▲선장 박수백(40·속초시 청학동3통2반) ▲기관장 김시봉(26·속초시 금호동185) ▲어부 이춘섭(69·속초시 청호동3통2반) ▲하익준(53·속초시 청호동5통4반) ▲전영춘(48·청호동8통3반) ▲이종남(34·속초시 청호동4통3반) ▲김경식(29·속초시 청호동2통4반) ▲윤용구(21·속초시 청호동9통2반) ▲이형근(42·속초시 청양동1통5반) ▲조두현(24·속초시 청양동6통3반) ▲장해룡(24·속초시 청양동188)

한국일보 詩壇

立秋 前後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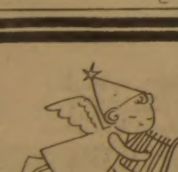
朴成龍

立秋前後해서
꽃같은 화사함은 이제 그만,
果汁의 體重들을 갖춘 때다.
지난 겨울 그 혹독한 추위는
누가 만들고,
올여름의 그 暴暑는
누가 마련하고,
이젠 또 그 뉘가
이 虛한 몸에
무게를 마련해 줄 것인가.
그, 攝理를 알 수 없는 나는
神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아직은 푸른 술을/貫通해가는
휘파람새의 그 高性能音波 옆에
반짝 반짝 마른 햇볕에
바래지는 여치소리….

종합보험

- 생명보험 • 자동차보험
- 상해보험 • R. R. S. P
- 빌딩 · 상점

※10년이상의 경험
※모든 보험에 관한 문의 환영 최저의 프레미엄 보장
Stan Herman
(B)425－4994
(R)293－1708



할렐루야 찬양의 밤

주님을 찬양드리는 성가와 밴드, 무용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려 하오니 바쁘신 중에라도 오셔서 한마음으로 주님께 영광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 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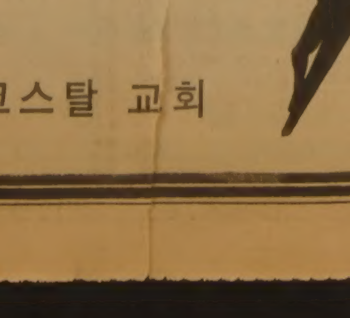
무 용 : 할렐루야 무용단 10명
밴 드 : 6인조 밴드(지휘 : 옥 성 빈)
성 가 : 본교회 찬양대
찬조출연 3명
특별출연 : 조 광(한국무용가협회 이사)
구성, 안무 : 옥 후 현

곳 : 300 QUEENS, DR. TORONTO, ONT. M6L 1M5
때 : 1981년8월23일(일) 오후4시
주 최 : **연합한인펜티코스탈교회**
교 역 자 : 심 상 대

성가대지휘및 반주자 청빙 :

믿음과 소명감을 갖고 봉사코자 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대우는 잘해 드리겠읍니다.

제출서류 : 이력서 1통, 사진 1매
기 간 : 1981년8월31일까지
연 락 처 : 300 QUEENS, DR. TOR. ONT.
전 화 : 223－1914, 226－2583
교 역 자 : 심 상 대
밴 드 부 : 음률로 주께 영광 돌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악기든지 다 환영합니다.
밴드부담당 : 옥 성 빈
전 화 : 274－8439(R), 278－4867(B)



"하늘에선 주께 영광!"

연합한인 펜티코스탈 교회

홈런에는 홈런으로

——첫날 첫게임부터 불꽃튄 大攻防戰

光州商、14安打 퍼부어 馬山 격침 8-5

張彩根(光商)1호 金龍權(馬山)2호

鳳凰大旗 고교野球

光州商高가 6일 개막된 제11회 봉황대기쟁탈 전국고교야구대회 첫경기서 승리、2회전에 진출했다。光州商高는 4번 張彩根의 대회1호 좌월 솔로호머를 포함한 14안타로 馬山高에 8-5로 낙승、11일 2회전서 大光高와 대결한다。張彩根에 이어 馬山高의 金龍權도 9회말 대회 2호솔로 홈런을 기록했다。이어 벌어진 清州高와 心石綜高의 경기는 9회까지 3-3으로 비긴채 시간 제한(3시간)일시 정지 게임이 되어 7일상오 9시30분부터 연장 계속 경기를 갖게되었다。이 대전서 心石綜高는 金正洙 金載基두 투수가 번갈아 등판하며 9회까지 기록적인 17四死球를 허용했다。

清州·心石 一時停止게임 3-3 오늘續開

光州商-馬山高

안타수 14-7이 말해주듯 타력에서나 투수력에서나 光州商은 한수 위에 있었다。초반에 강하다는 일반의 평처럼 馬山은 1회에 적실에 힘입어 선제리드를잡아 기세를 올렸다。1회말 1사후 2번 金鍾國이 포볼로 나간후 후속 땅볼을 잡아 병살을 노리던 光州商 유격수 金元의 악송구와 나구등 잇단 2실책을틈타 홈인、선제점을 올렸다。

안타없이 적실로 획재했던 馬山도 2회초 어처구니없는 수비실책으로 光州商에 동점을 허락했다。2사후 7번鄭榮民의 땅볼을 잘잡은馬山의 3루수 余淳秦이 서두르다가 1루에 악송구、화를 자초했다。光州商은 이기회를 살려 8번馬承龍이 포볼을 골라2사1、2루의 찬스를 만들고 9번徐寅洙의 중전 안타、1번李在赫의좌전적시타로1-1의 동점을 만들었으며 3회초 4번張彩根의 좌중월2루타와 6번孫文坤의 중전적시타로 자단히 2-1로전세를 뒤집었다。

이후부터는 光州商의 일방페이스-。4회초 馬承龍의 좌전안타、2사후 2번金元의 좌월2루타、3번柳佑錫의 우전안타、4번張彩根의 좌월2루타、5번朴聲鉉의좌전안타등 집중5안타로 4득점、승리를 굳혔다。이날의 스타 張彩根은 9회초 1사후1회전 통과의 祝砲로 좌월솔로 호머를 날렸다。

馬山은 대세가기울은 9회말 3번金龍權의 우월솔로호머를 포함한 2안타 1적실로 3점을 만회했다。

清州高-心石綜

타력에서만은 자신이 있다면 양팀은 3회까지 모두 타선 불발로 애를 태웠다。

清州는 4회초 선두 4번 金鎭圭의 포볼에 이어 5번李相明이 첫 안타인 좌월 2루타를 때려 1점을선제했다。6회초에는 선두 6번張定淳과 7번許光憲의 연속데드볼、8번南敎祐의 포볼등 心石綜선발 金正洙의 난조로얻은 연속3四死球로 무사만루의 찬스를 만들고 9번 李換晃의 스퀴즈번트가 야수선택으로 처리되는사이에 1점、心石투수의 견제악송구로 또 1점을뽑아 3-0으로 리드했다。心石은 6회말 1사후 9번 李英濟의 좌월2루타、2사후 2번金憲泰가 清州유격수의 실책으로 살아 2사1、3루를 이룬후 3번 李浩元의 우중월 적시2루타로 2점을 만회했으며 8회말 1사후 1번 金榮贊으로부터 金憲泰、李浩元가 연속3안타를 빼내 자신히 3-3의 동점을 만들었다。清州는 9회까지 心石의 두투수로부터 기록적인 17개의 四死球를얻어 내면서도 적시타 불발로 결승점을 만들지 못했다。선두타자인 李重和는 1회와 8회초 2、3루를연속스틸、4도루를 기록하며 준족을 과시했으나 홈문턱서 잡혀 득점에는 실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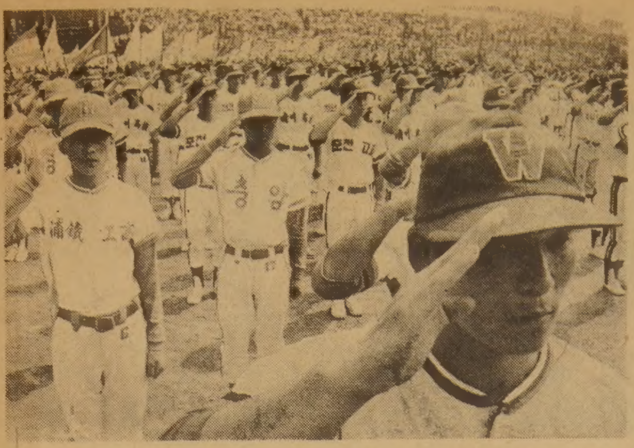
◇제1일1회전

광주상	011	400	101	8
마산고	100	100	003	5

▲光商투수=馬承龍 ▲馬山투수=鄭銘(4회)安性洙(4회)姜源中(2회) 포수=金鍾國 崔光植(4회) ▲홈런=張彩根(9회초·광주상) 金龍權(9회말·마산)

청주고	000	102	000
심석종	000	002	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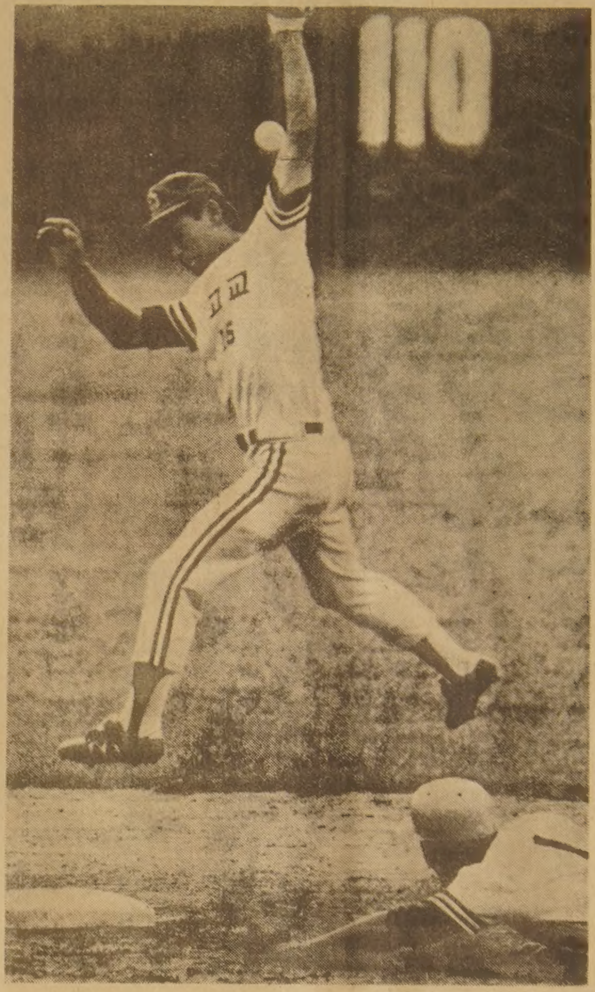
〈시간제한일시정지게임〉 ▲清州투수=張定淳(1、8회)金鎭圭(6、9회) 포수=南敎祐 ▲心石투수=金正洙(1、8회)金載基(6、9회) 포수=崔光信



◇49개팀 鳳凰건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구리빛 얼굴에는 必勝의 기개가 넘쳐 흘렀다。개회식서 질서정연히 도열、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개회식에 이어 始球하는 林英秀 서울특별시장。

◇대한항공 여승무원이 참가팀 주장에게 하와이·레이를 걸어주고있다。



◇光商거뜬히 2盜성공 光州商高와 馬山高의대전。1회초 馬山포수의 2루견제구가 유격수의 왼쪽관목을맞고 빗나가는사이 光州商의 柳佑錫이 2盜에 성공하고있다。

49개 선수단 大行進

鳳凰大旗입장식 어제 서울運動場 수놓아

朴英秀시장 始球

영광의 초록 鳳凰대기를 향한 젊음의 힘찬 퍼레이드가 盛夏의 녹색구장에 펼쳐졌다。11번째의 주인공을 가리는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는 在日동포를 포함、전국49개팀 건아들이 참가한가운데 6일 서울운동장서 성대하게 막을 올렸다。이날 상오10시에 거행된 입장식서는 경찰악대의 취주악에 맞추어 고기를 앞세운 49개 선수단의 대행진이 그라운드를 수놓았으며 대회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許宗萬 대회위원장(野協전무이사)의 개회선언에 이어 張康在 한국일보회장겸 대회장은 대회사(洪惟善부회장대독)를 통해『바야흐로 새로운 연대에 열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 참가선수들은 향토의 명예와 한국야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우승팀 天安北一高의 주장 金相國은 참가선수들을 대표해서『정정당당히 싸울것』을 다짐했다。

대회는 상오11시 朴英秀서울특별시장의 시구로 플레이볼 되었다。

19일奬忠코트서 데杯테니스선발

대한테니스협회는 82년 데이비스컵 테니스대회 본선진출결정전에 나갈 남자대표선발전을 오는 19일부터 7일간 서울奬忠코트서 갖기로 했다。

이번 대회에는 모두 8명의 대표급선수가 출전、풀리그로 대전한뒤 상위4명이 최종대표로 선발될 예정이다。

韓國은 이탈리아와 오는12월 밀라노에서 본선진출을 놓고 대결한다。

◇출전 선수명단=李宇龍 金春浩 田昌大(이상명지대) 金奉洙 宋東昱(이상육사공대)周昌男 金榮煥(이상대우)

光云電工 2승

中高축구 仁川體꺾어

【議政府】光云電工은 6일 議政府 공설운동장서 벌어진 추계 전국중고축구연맹전 10일째 고등부6조경기에서 金道連 崔光志 金運鶴의 득점으로 仁川體高를 3-1로제압、2승으로 결선에올랐다。

이날 7조의培材高는 FW 金진의가 골을넣어 高陽綜高를 1-0으로 물리쳐 1승 1패를기록했으나 2승의 鶴城高에 결선진출권을 빼앗겼다。

◇제10일전적

◆고등부 ▲7조 배재고 1(1-0 0-0)0 고양종고 ▲동순위=①학성2승②배재1승1패③고양종2패 ▲6조 광운전공 3(2-1 1-0)1 인천체고 ▲동순위=①광운전공2승②대신1승1패③인천체2패 ▲3조 문일고 7(6-0 1-0)0 농안고 (1승1패)(2패)

梁正模選手 은퇴식

【釜山=聯】76년 몬트리올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금메달을 차지한 梁正模씨(29)의 은퇴식이 6일상오 이곳 九德체육관서 거행됐다。(사진)

KBS盃쟁탈 전국레슬링대회가 개막된 이날 梁씨는 각계에서보내온 화환에 파묻혀 5년전의 감격을 되새겼다。

梁씨는 현재 조폐공사팀 트레이너로 활약하고 있다。

海峰、大宇눌러 방한경기 2次戰

【釜山=聯】홍콩의 海峰팀은 5일밤 釜山 九德구장에서 열린 방한2차전에서 大宇를 2-0으로 물리쳐 방한전적 1승1패를 기록했다。海峰은 전반9분 HB朴炳徹이 강슛을 성공시켜 취골을얻고 후반17분 金顯福이 추가골을 올렸다。

◇제2차전 海峰2(1-0 1-0)0大宇

월드게임 選手團귀국

美國샌타클래라서 거행된 제1회 월드게임에 출전했던 한국선수단이 6일상오 KAL便으로 귀국했다。선수단은 金浦공항장서 간단한 환영식을 가진후 카퍼레이드를 벌였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鳳凰스타

大會 1호홈런…관록과시

5打席3安打에 3득점 張彩根(光州商)

대회 첫 홈런의 주인공 張彩根(3년)은 장타력과 훌륭한 어깨를 겸비한 光州商의 간판스타다。1m83、80kg의 좋은 체격으로 금년시즌 공식대회서 6개의 홈런을 기록하고 있다。馬山高와의 대전서 3、4회초 연속 좌중월 2루타를 날린 張은 9회초馬山의 세번째 투수 安性洙의 제6구를 통타、왼쪽 파울·홈의 중간을 마치는 솔로·홈런을 기록했다。이날 張은 5타수 3안타、2타점、3득점을 올려、금년 각종대회서 3할대의 높은 타율을 유지、光州商 부동의 4번타자 자리를 지키고있다。주전포수인 張은 2루 투 견제송구가 빠르고 정확해 상대도루를 철저히 견제、대형포수로서의 성장도 기대되고 있다。

全國女子테니스

브니엘·東萊 쟁패

中央女中은 6일 장충코트서 벌어진 제17회 전국여자테니스대회 여중부 결승전서 安養西女中 A팀을 2-0으로 완파하고 우승、2連霸했다。

여고부에서는 브니엘 女高가 결승에 올랐다。

◇최종일전적 ▲여중부결승 중앙 2-0 안양서A ▲여고부준결승 동래 2-0 영광 브니엘 2-0 경북A

大陸間컵 야구

한국팀現地도착

【에드먼턴(캐나다)=聯】7일 상오(한국시간)막을 올리는 81년도 대륙간컵 국제야구대회에 출전하는 한국대표팀이 5일하오 대전지인 에드먼턴에 도착、주립대학 기숙사에 여장을 풀었다。이번대회는 각 대륙대표 8개팀이 풀리그를 벌인후 상위 4개팀이 결승토너먼트로 패권을 가리게된다。한국대표팀은 8일 상오10시30분 美國팀과 첫 대전을 갖는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鳳凰관람석

전국高校 수준 平準化는 鳳凰大會의 공로

野協 馮圭明경기부장의 회고

『봉황대기가 탄생하기까지에는 우여곡절이 꽤나 있었지요。한참 더울때 어떻게 경기를 하느냐。5월이나 9월로 대회일정을 정하자는 야구인들도 많았읍니다。그러나 막상 뚜껑을 여니 기대이상의 성과였지요。특히 2회대회부터는 지방에서 올라온팀들이 운동장앞 운동구점에서 장비를 구입하는바람에 야구용품이 품절되는등 대성황이었읍니다』

대회 개회식 및 폐회식 사회를 도맡아오며 11년간 봉황주장을 지켜온 대한야구협회 馮圭明경기부장(59)의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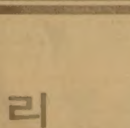
국내 고교야구 수준이 규격히 향상되고 팀수가 급증한것 역시 봉황대기의 덕분이라고 馮부장은 봉황기 예찬론을 편다。1회와10회를 제외하고 9번씩이나 在日동포 야구팀이 이대회에 출전、수준높은 경기와 여러가지 자극을 주었기때문에 국내 고교팀의 경기수준이 향상되었다는 것。또한 다른 대회와는 달리 참가할 의사가있는 팀이면 모두 지역예선없이도 서울운동장을밟을수있고 매회마다 대진 추첨을 하기때문에 대진운만 좋으면 우승까지 바라볼수 있다는 봉황대기의 매력때문에 지방팀들이 많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馮부장은 분석했다。

지방의 재학생 응원단이 조직적으로 스탠드를 차지 하기 시작한것도 따지고보면 봉황대기때문이며 지방팀들이 서울응원단에주눅이 들지않는것도 봉황대기의큰 특징이라고 馮부장은 주장한다。

대회가 방학중에 열리므로 학생들이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기때문에 서울로원정응원、마음놓고 고함을 지르고 애교 심을 발휘할 수 있는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는 것。늘 일방적인 응원에 주눅이 들었던 지방팀들이 이런 배경때문에 좋은 성적을 내곤 한다는것이 십수년간 고교야구 대회를 지켜온 馮부장의 비교론이기도 하다。

봉황대기에 얽힌 사연중 가장 기억에 남는것은 1회대회 3회전 慶北高-群山商高와의 야간경기。당시 모방송국에서 직접중계를하다 정규방송관계로 경기도중 중계를 중단하자 群山의 한 팬이 운동장 기록실로 찾아와 외전화를 한것。馮부장은 이팬의요구에 따라 전화통에다 대고 20여분간 하나 경기를 중계하느라 진땀을 뺐다고 당시를 회고했다。【金】

FRANCHISE베이커리



총 투자액 95,000달러
DOWN PAYMENT 40,000달러
융자액 55,000달러
※자신이 없는분에 대해서는 년봉 18,000달러
개런티(한사람일 경우)
(Wife가 같이 일할 경우 8,600달러 추가)
(부부 총계 26,600달러)

문 의 처 : Bread-Man Ltd.
240 Humberline Dr. Rexdale, Ont.
M9W 5X1
전 화 : 416-675-8930(MR. 오)

BREAD-MAN LTD.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REAL ESTATE BROKER
MORTGAGE BROKER 이 대 환

금주의 새 리스팅
도나스 샾
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4년+5년
주매상 $7500, 렌트 $2800, 리스21년 Asking $279,000,
다운페이먼트 $160,000
버라이어티
주매상 $7,200, 렌트 $1120, 리스3년+5년(3베드룸포함)
주매상 $5,500, 렌트 $1,300, 리스2년+5년
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4년+5년
DRIVE IN햄버거 SHOP(3주전에 Open)
주매상 $8000, 렌트 $3000, 리스10년, Asking $269,000
다운페이먼트 $80,000(스토아 오픈시간 10시-10시)
일요일 쉬는 백화점안에 있는 Fish & Chip
주매상 $7,000, 리스6년반, 렌트 $2350+Common경비
오픈시간 오전10시-오후9시, 토요일10시-6시,
일요일·공휴일은 문닫음, Asking $250,000
다운페이먼트 $120,000
세일즈맨 신 영 하 R) 423-3114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R) 536-4250

올 벼農事 76年이래 大豊예상

收穫 앞으로 한달…전국의 作況

3千8百萬섬 훨씬 웃돌듯

빠른 移秧·최적의 氣象 힘입어

올해 벼농사는 조기이앙·충분한 강우량·최적의 기상 상태등에 힘입어 전례없는 대풍이 예상되고 있다. 이앙기의 가뭄, 뒤이은 긴 장마로 한때 병충해가 만연하는등 전망을 흐리게 했었으나 7월중순 이후 계속되고 있는 최적의 기상상태로 평야지·중간지·산간고냉지 등 두루 작황이 좋아 앞으로 1개월가량 날씨가 순조롭고 병충해방제만 제대로 행해진다면 올추곡 목표량 3천8백만섬을 훨씬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金海·羅州·金堤등 곡창지대 농민들및 郡·面 관계공무원들은 한결같이 『경험으로 보아 지난 76년의 대풍을 능가하는 최대의 풍작』이라고 입을 모았다.

民·官합심 農藥살포·방제萬全 효과

이같이 작황이 좋은것은▲예년보다 5~10일가량 빨리 이앙을끝냈고▲당국의 施肥중점지도가 주효했으며▲일선공무원·농민들이 모두 예찰요원이돼 적기에 농약을 살포, 방제에만전을 기했고▲기온·일조시간·강우량등 최적의 기상상태▲다수확일변도 영농에서탈피, 기후·풍토에 알맞는 품종선택등 안전영농을 피했기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6일 전국취재망을통해 종합한 도별 벼농사작황실태는 다음과같다.

京畿 총17만6천9백93ha에서 단보당 4백32kg을수확、모두 5백31만9천섬의 수확을 목표로하고있다. 잎도열병·문고병등 병충해의 발생면적이 지난해 보다 훨씬 적은데다 적절한날씨로 벼가 매우 건강해 기상이변만없으면 평년작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江原 추곡생산목표량은 1백52만9천섬。초장(76cm) 유효분얼수(16·6개)등 모두 평년작보다 좋다. 특히 곡창인 鐵原평야의작황이 예년에 보기힘들정도로 호조를 보이고있는데다 橫城·高城·寧越등 고냉지대작황도 좋아 20여일동안 현재와같은 기상이 계속돼준다면 대풍을 기록할것으로 보고있다.

忠北 은 이날현재 草長은 마식벼 81·3cm、유신비 78cm、아끼바레 79·4cm로 평년보다 2~4cm가량크나 유효분얼수는 평균16개로 1~2개 적은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벼생육에 필요·충분조건들이 충족되고있어 단보당 4백76kg 총2백56만8천섬 수확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忠南 초장 75·4cm로 지난해의 65·8cm、평년의 73·3cm에 비해 월등히 좋고 유효경수도 17·1개로 작년 16·7개、평년 16·4개를 상회하고있어 목표량 5백46만2천섬 달성은 어렵지 않을듯。한편 고냉지대인 天原郡北面大坪里 일대의 경우 조생종 오소다등의 작황이 매우 좋아 지난해와 대조를 이루고있다.

全北 金萬평야를 비롯, 고냉지인 南原지방에 이르기까지 도내 전역에 걸쳐 벼가 고루 잘돼 일선 농정관계자및 농민들은 한결같이 지난 76년이래 최대의 풍작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현재 70%를 차지하는 일반벼의 경우 평균 초장이 82·9cm、유효분얼수 19·6개등으로 평년에 비해 키가 1~4cm 크고 경수도 1·4개가량이 많은데다 병충해발생도 우려할 정도가 못돼 작황이 매우 양호하다.

全南 많은 재배면적(20만7천6백ha)을 보유하고있는 전남도는 이날 현재 통일계가 초장73·4cm、유효분얼수 16·9개、일반계가 81·2cm、16개로 평년에 비해 모두 초장은 1~2cm、경수는 2~3개가량 많아 앞으로 기상이변이 일어나지않는한 목표량 6백76만1천섬 달성은 무난한것으로 전망된다.

慶北 이앙기의 혹심한 가뭄과 7월초까지의 장마에도 불구, 생육기인 7월중순 이후의 기상호조로 이날 현재 작황은 평년작을 웃돌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초장은 통일계 61·4cm、일반계 65·6cm로 평년작에 비해 1·5~2·5cm가 크며 유효분얼수는 통일계 16·4개、일반계 15·8개로 평년과 비슷하다.

慶南 매종 주내호와 이상 저온등으로 지난2년간 흉작을 기록, 피해를입었던 곡창 金海등 도내농가에서는 금년에는 꼭 대풍이 들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있다. 이날 현재 밀양23호의 경우 초장이 81cm、유효분얼수 17·5개로 초장은 평년의 76·1cm보다 크고 경수는 평년 21개에 비해 상당히 뒤지고 있으나 벼가 건강해 알찬 열매가 기대되고 있다.

濟州 추곡목표량은 2만2천83섬。도열병·문고병등 병충해발생이 예년에 비해 현격히 줄어들어 풍작이 예상된다.【地方綜合】

◇농부얼굴에 웃음꽃 활짝　8월불볕에 조생종벼가 익어가고있다。풍년을 내다보는 농부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聯合】

勞組간부 巨額횡령 外遊

龍山 青果物시장 作業관할구역 팔고 사

서울지검특수1부 安大熙검사는 6일 서울 龍山 청과물시장내 하역인부노조인 배양노조 조합장 許鋼씨(42)와 청과노조조합장 丁淳浩씨(39)등 2명을 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의하면 許씨는 지난3월 청과노조 丁씨에게 배양노조 하역인부들의 작업관할구역가운데 9개 청과물점포를 청과노조측에 넘겨주고 그댓가로 청과노조의 신규조합원 4명의 가입비 1천2백만원을받아 자신의 빚갚을 갚고 외국여행비등에 써버렸다는 것이다.

또 丁씨는 지난3월초부터 4월말까지 신규조합원 7명으로부터 가입비로 1인당 3백만~3백20만원씩 모두 2천1백95만원을 받아 그중 3백32만원을 멋대로빼내 자신의 집수리비등에 유용한혐의를 받고있다.

오늘立秋 ==週末께 暴炎==

7일은 立秋。지난20여일 동안 전국적으로 30도를 오르내린 무더위가 일단 고개를숙이고 아침저녁의 선들바람속에 가을의 청명한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한다。7일새벽은 전국적으로기온이 예년보다 2~3도씩떨어져 선선한 초가을의 날씨를보였고 서울지방은 최저기온이 섭씨19·6도로예년보다 2·9도가 낮았다。중앙관상대는 立秋인 7일은 전국적으로 저기압권에 들어 중부지방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며、남부지방은 가끔 흐린날씨가되겠고 주말께부터는 다시 무더운여름날씨가될것이라고 예보했다。

間諜혐의 1명체포 日警서、北韓人추정

【아끼다(秋田·일본)聯合】북한인으로 보이는 한 젊은 남자가 지난 5일밤 아끼다(秋田)縣에서 스파이혐의로 체포돼 신문을 받고있다고 이곳 경찰이 6일 발표했다。

일본 북부지방 아끼다縣오가경찰서는 지난 5일 아침 『오가해안가에 2~3명의 수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익명의 전화를 받고 출동, 바다속으로 뛰어든 2명중 1명을 체포했다。나머지 1명은 바다에떠있던 고무보트로 헤엄쳐 달아났다。

체포된 남자는 자신이 코리안임을 밝혔으나 외국인이 소지해야할 「外國人登錄증명서」는 갖고있지 않았으며 계속 묵비권을행사、이름도 밝히지 않고있다。

研修교육 20일부터 韓國言論研究院

韓國言論研究院(원장 尹王遇)은 20일부터 전국 언론기관의 修習기자를 대상으로 기초研修교육을실시한다。언론연구원開院이후 첫사업으로 벌이는 이번 研修교육에는 전국언론기관의 수습기자96명이 참가、4주간에 걸친 교육을 받는다。

白磁만들며 避暑　젊은여름

피서를위해 山行에 오는 바캉스族이 아니다。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실기를 통해 응용하기위해 陶窯地를찾은 대학생들。경기도 廣州郡東部面 下山谷里山74「姜壽華陶磁연구소」에는 대학교의 방학이 시작된 지난7월초부터 1주일씩 단위로 10여명의 美大生들이 그룹으로 찾아와 묵고간다。내일의 陶藝家를 꿈꾸는 학생들은 흙으로 원하는 형태를 빚어 가마속에 넣고 섭씨2천도의 열기속에서 純白의 白磁가 구어져 나올때 마다 새삼 우리문화의 精華에 탄성을 발한다。지난25일 1주일예정으로 이곳을 찾은 張仁媛양(21·漢陽大응용미술과3년)은 『실기응용을위해 친구 12명과 함께 묵고있다』면서 지금까지 무심히 지나쳐온 옛 磁器에 다시 陶工들의 恨과땀이 얼마나 서렸었는지 이제 알만하다고 말한다。張양은 또 작품제작에 열중하다보면 무더위를 잊는다면서 작업중에 가끔 계곡의 물에 발을담그고 있노라면 절로 바캉스기분도 만끽한다며 웃는다。 <사진·글朴泰弘기자>

◇더위씻은 3萬喊聲　개막식부터 스탠드를메운 3만여 관중은 경쾌한 타구에 환성을울리며 더위를 잊었다。

白球熱 충천

鳳凰大旗야구 첫날부터 超滿員

초가을처럼 맑게갠 하늘아래 마산에서 제11회鳳凰대기쟁탈전국고교야구대회는 첫날부터 야구팬들이 스탠드를 모두 메우는 열기속에 진행됐다。첫번째로 격돌한 馬山一光商전에서 2개의 홈런이 터지자 팬들은 함성과 열띤응원속에 무더위도잊은듯 열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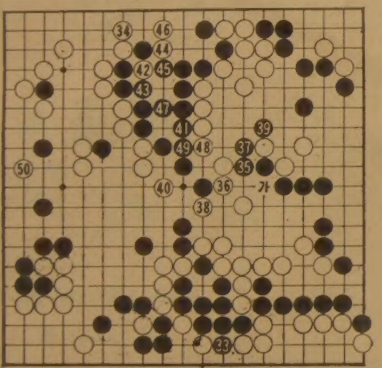
대한야구협회 洪主明경기국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입장식은 상오10시부터 35분동안 진행됐다。1천1백여명의 선수들이 경찰악대의 주악에 맞추어서 입장한후 許宗萬대회위원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지난해 우승팀 天安北一高에서 우승기를 반환했다。

이날 朴英秀서울시장이 멋진폼으로 시구、스트라이크가 선언되자 장내는 우렁찬 박수갈채로 뒤덮였다。열광속에 홈런을 1개씩주고받은 光州商과 馬山商의 대전은 8대5로 光州商이 승리。

목이 터져라 응원을 한 光州商의 동창 金亨洙씨(24·회사원)는 『9회말에서 8대5까지 추격을 당하자 몹시 불안했었다』며 앞으로 모교의 경기는 하나도 빼지않고 나와 응원하겠다고 뜨거운 모교애를 보이기도했는데 하오부터 야구팬들이 점점 몰려들어 연전18일간의 봉황대기쟁탈전은 첫날부터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제12기 名人戰 挑戰5番棋

第4局 第9譜 133~150 (각5시간 덤5집반)



白(名 人) 曺薰鉉〈2勝1敗〉
黑(挑戰者) 徐奉洙〈1勝2敗〉

자세가 좋아하는 패싸움도 黑이33으로 후퇴할수밖에없었던 모양인데 이때 도전자는 비로소 둑직한 입을 열더니 『아주 많이많이 어리석었어』하고 애통한 독백。그동안 패갈을 겸한 白의 추격이 날카로와、약간 앞서가던 黑이 대세를 뒤져가고 있기 때문일세。

名人은 여전히 입 꼭다물고 5분간의 숙고끝에 상변을 白34로 내려섰네。그리고 적이 당혹한표정。그럴노릇이 여기를 黑이 선착하는것과 비교하면 이득말할수없이 크기만하니、아마名人은 이순간 역전승을 확인했을지 모르지。

그렇지만 이수가 그만 패착이될줄이야 꿈에도 예측하지 못했을께세。다음순간 거의 노타임으로 떨어진 黑35가 통렬무쌍。이것으로 최소한 우

曺名人 放心의 敗着

측 白3점이 커다랗게 黑의 품안에들어가고 겸하여 하측白일단도 위험천만。

名人은 확실히 당황했네。한껏긴장된 낯을 더욱굳히고서 고민또고민。白36의 비상수단을 발견하기까지 자그마치 62분이나 소비해야 되었네。

이동안 검토실에 쫓아가보았더니 바둑은 『黑의 결정적승리』라 단정하고 『어째서 白34로 「가」에 급어잡지 않았을까。그래서 승패불명이었는데』하면서 名人의 착각을 우적 의아스러워 하더군。

黑35에 白36、38、40으로 역습을 감행、다까쳐이 있을뿐인데 상변黑은 49까지、필연의과정으로 완성。도전자는 결국 白3점을 싸놓은만큼 크나큰 획적을하여 대세는 완전히 再逆轉일세。

그래서 白50이 일종의 승부수같은데 어떨는지。

【一九】

趙治勳名人 도전자 가또9단이 有力

趙治勳9단이 안고있는 名人位에 도전할 기사는 가또9단(加藤正夫)이 꼽히고 있다。

가또9단은 9명이 겨루는 名人戰본선리그에 현재 5승으로 단독선두를 유지하고있는데 2위를 오오다께9단(大竹英雄)이 4승1패로 쫓고있으나 가또9단의 최근 전적으로 보아 가또9단쪽으로 기울고 있다。

그러나 가또9단은 앞으로 오오다께9단과의 대전을 남겨놓고 있어 이 대전이 고비가 될듯。

현재 가또9단은 天元·王座등 2개타이틀을 지니고있는데 바둑이 호방한 스타일이어서 전형적인 실리위주의 趙9단과 재미있는 바둑이될것이라는게 일본바둑계의 예상이다。

바둑소식

棋士16명 海外파견　한국기원

한국기원은 올여름에도 8명의 전문기사와 8명의 아마기사등 16명을 해외에파견할 계획으로있다。

해마다 바둑을 통한 국위선양에 힘써온 한국기원은지난달21일 高在熙6단 洪鍾賢6단과 아마유단자3명을 유럽에 파견했다。이들기사들은 오스트리아 린츠市에서 열리는 제25회 유럽바둑선수권대회에 초청을받아 떠났는데 이달말까지 유럽각국을 돌면서 친선대국을 가질예정。

이밖에 오는20일 姜哲民6단과 아마유단자 1명이 오스트레일리아 아마바둑 초청으로출발할 예정이며 이달말엔 자유중국 바둑계와 정기교류를위해 金鶴洙4단을 단장으로 金熙中6단 梁相國5단 白成豪5단 金秀壯5단과 아마유단자 4명이 출국할계획으로있다。

전국 아마最强者戰 29일부터 馬山지원

제8회 鶴初盃쟁탈전국아마最强者戰이 29일부터 30일까지 한국기원 馬山지원에서 열린다。

참가자격은 아마2단이상으로서 참가금은 4천원、신청마감은 28일까지 馬山市창동64의2 한국기원 馬山지원(⑧1075)。

자전거타던 姉妹 後進트럭에 死傷

5일 하오6시20분께 서울江南區大峙洞 銀馬아파트 9동102호앞길에서 이아파트10동301호趙英埈씨(32)의 장녀 윤수양(9·대도국교2년)과 차녀 소연양(4)이 자전거를 타고 놀다 해태음료동부영업소소속 서울8다7487호 2·5톤 트럭(운전사 菊潤根·29)에 치여 소연양은 그자리서숨지고 윤수양은 중태다。

한국인 原爆희생자 추도식

Y중흥당서 유가족등1백명 참석

제14회 한국인 원폭희생자추도식이 유가족、전교회여성연합회회장 孔德貴여사 부또(武藤大八) 주한일본대사관참사관등 1백여명이 참가한가운데 6일상오11시 서울明洞 YWCA중흥당에서 열려 희생자들을 추도하고 병고에 시달리는 생존자들을위해 일본이 보다성의있는자세를 취해줄것을 촉구했다。

孔德貴여사는 이날 기도를통해 『3만이 넘는 원폭피해자들이 의료혜택을 받지못한채 죽어간다고지적하고 『이들에게 용기를주어 어처구니 없는 원한을 극복할수 있게 달라』고 말했다。

이날 추도식은 기도、분향 및 弘益中、東丘여중학생들의 위령가합창순으로 1시간동안 진행되었다。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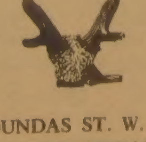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약은 없읍니다.

中国商業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 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大中華藥材行

482 DUNDAS ST. W. TORONTO, ONT. M5T1G9
P.O. BOX 5181
STATION 'A' TOR.,ONT.
(Spadina와 Dundas북동 코너)
OPEN : WEDNESDAY
CLOSE : TUESDAY
* 영업시간 : 9 : 00AM~9 : 00PM

977－8858～9

KUSA캠핑

장　소 : SKUGOG KOYU수양관
날　자 : 8월21일～23일(일)
회　비 : 30달러
연 락 처 : 장 수 련(241－5438)
집합장소 : 한인연합교회 파킹 LOT.
오후6시30분까지

※정원50명이내 이므로 선착순 접수.
개인교통편은 허용 안됨.

KUSA학생회

IATA

서울왕복 $1,180!
●여름철 SEAT SALE
●KAL뉴욕경유 귀환 자유

★방문초청 특별요금(초청장 작성)
★저렴한 국내선 요금(SKYBUS·CHARTER)
★월부·크레딧 카드 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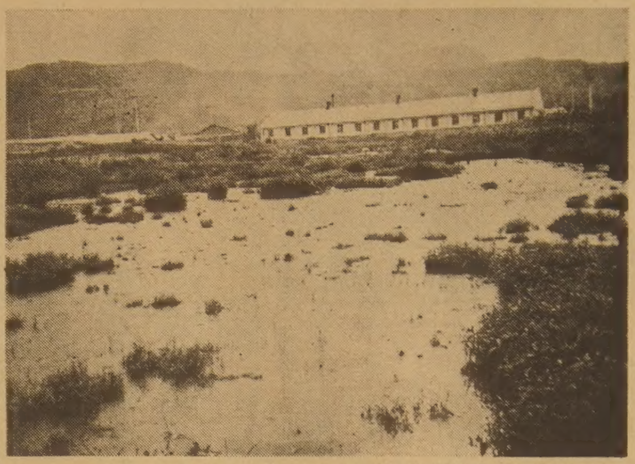
신세계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NEW WORLD TRAVEL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김창범 536-2155·2156 (R)492－7525

절대農地 1만5천坪 황폐

楊州郡 德溪1·2里 일대 1백30개 工場서 廢水뿜어

벼成長않고 까맣게타

물고기 전멸…地下水도 오염


◇경지정리를 마친 논 1만5천여평이 인근 공장에서 흘러든 폐수로 못쓰게됐다。

【東豆川=黔】경지정리까지 돼있는 경기楊州郡 檜泉面 德溪1、2里일대 15만여평의 논 가운데 10%인 1만5천여평이 인근 1백30여개소의 각종 공장에서 배출하고 있는 폐수로 완전히 황폐됐다。德溪 2리에서 5천여평의 논에 벼농사를 짓던 安順男씨 (60) 安順七씨 (44) 등 2명의 형제와 李格老씨 (45)의 경우 지난봄의 모내기때 극심한 한발로 논옆에 흐르는 청담천지류인 서두물개울물을 논으로 끌어들였는데 1개월후부터 이논의 벼가 생장을 중지한채 시들기 시작, 지금은 벼가 모두 새까맣게 죽어있는 상태다。

安씨 형제에 따르면 지난 79년까지만해도 이 개울물은 그럭저럭 농사를 지을수 있었으나 지난해에는 농토가 눈에띄게 크게 오염돼 수확량도 예년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올해는 그나마 완전히 망쳐버렸다。

또 지난78년까지 德溪1리에서 집안대대로 1천5백평의 논에 벼농사를 지어왔다는 池鍾和씨 (32) 도 공장폐수로 농토를 완전히 망친후 농사일에서 손을떼고 실직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池씨는 폐농된 자신의 논에 먹물같은 새까만 폐수가 깊숙이 스며있는데도 지난봄의 모내기때에는 당국이『모를 심으라고 강요하기도 했다』면서 씁쓸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이들 논외에 인근의 8천5백여평에 이르는 논도 공장폐수등으로 크게 오염、벼가 이미 죽었거나 시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일대에는 지난76년부터 입주한 S도계、S 요르트등의 각종 공장들이 폐수를 배출하고 있으며 인근에 밀집된 주택가에서도 분뇨등 각종오물을 청담천등에 흘려보내고 있어 농토를 오염시키고있다。

이지역일대는 지난해 11월초부터 금년5월중순까지 7개월여간에 걸쳐 경지정리사업이 펼쳐졌던곳이다。

이곳 농부 金常玉씨 (67) 는 개울물등이 공장폐수에크게 오염된 이후 논주변에 펌프를 박아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쓰려 했으나 이것마저 냄새가 나는등 오염돼 있다고 말했다。

농민들에 따르면 이곳 청담천 일대에는 지난 77년까지 만해도 물고기가 많아 매운탕을 끓여 먹어가며 농사를 지을수 있었다는것。

그러나 요즘은 물고기는커녕 심한 악취가 나 논옆에서 밥도 지어먹을수 없는 실정이란다。

高校生전출 逆流현상

大田、都市줄고農村늘어 內申성적비율 높아져

【大田=黔】대학입시에서고교내신성적의 반영비중이 높아짐에따라 도시로 몰려오던 시골학생들이 다시 시골학교로 되돌아가는 역류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있다。

이같은 현상은 忠南교위가 지난6월12일 실시한 평준화지역인 大田시와 天安시의 고교전입학지원추천에서 시골지역으로 전출한학생은 7백71명인데 반해 전입학생은 6·2%에 해당되는 49명으로 7백22명이나 결원상태를 보임으로써 밝혀진것이다。

大田시의 경우 전출학생수는 모두 5백43명으로 이중 96%에 해당되는 5백21명이

薄俸털어 심장병 앓는 弟子구해

釜山大渚국교 閔泳恩교사 誠金모아 手術해줘

【金海=黔】꺼져가는 제자의 생명을 박봉까지 털어 구해낸 국민학교사가 있어 화제。

釜山市北區 大渚국교 5학년1반 담임 閔泳恩교사 (45) 는 자기반학생인 양미영양 (11) 이 조금만 달려도 심장이 몹시뛰고 입과 코에서 피를 흘리는 희귀병「심실충격결손증」을 앓고있으나 아버지 양완이씨 (50) 가 막노동으로 집안식구 7명의 끼니를 겨우 이어가는 어려운 형편인것을 알고 지난6월분 봉급 30만원을 선뜻 내놓고 양양돕기에 나섰다。

시한부 생명인 양양을 구하자는 閔교사의 호소가있자 大渚국교직원들도 호주머니를 털어 25만원을 閔교사에게 전달했으며 양양 급우들의 어머니회에서 33만원、大渚동부녀회와 유관기관·단체등으로부터 모두 2백만원의 성금이 모아져 지난 7월20일 大邱東山기독병원에서 양양은 수술을 받게됐다。

이같은 주위사람들의 성원에 보답하듯 양양은 10일뒤인 지난달 30일 건강한 몸으로 퇴원, 새삶의 보람을 찾게됐다。

閔교사는 「자계의 전성과 보살핌으로 양양이 새삶을 찾게된것에 감사한다면서 양양을 끝까지 돌보아 훌륭히 키우겠다고 말했다。

몽타지作成배포 10代용의자검거 稅務員피살사건

【서울=黔】서울 北部세무서 주사 姜貞根씨 (40)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지난달 19일 하오8시께 범행현장에서 20여m 떨어진 만물상회앞에서 갈옷은 청년 1명에게 담배를 빼앗겼다는 金모씨 (28·회사원)의 진술에 따라 金씨사건이 姜씨피살사건과 관련이 있는것으로보고 범인의 몽타지를 작성、인상이 비슷한 宋모군 (17·경기南楊州郡漢金邑)을 검거하고 당일의 행적을 캐고있다。

경찰은 梨花洞 鍾路5街忠信洞 등지의 불량배인 宋군의 키가 1백67cm이며 얼굴이 예쁘장한점이 金씨진술과 같고 지난 6월12일밤에도 梨花洞에서 길이 20cm가량의 재단칼로 행인을그은후 도주한 일이있어 이번사건이 宋군의 우발적인 범행일 가능성도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꽃도매상
437 CARLAW ST.
☎ : 465-8167

나의 이력서

〈題字·尹致暎〉

윤치영 ⑭

日本留學

형님과함께渡日 正則영어학교 입학

文法위주불만…美人부인에 會話배워

1917년 봄 어느날 釜山에서 배를 타고 현해탄을 건넜다。 서울을 떠날때 어머님께서 옷깃을 붙들고『아무리 좋은 공부라도 몸가짐을 바로하지않으면 만사를그르친다』고 하신 말씀이 자꾸만 머리를 스쳤다。

배를 타고 일본땅 下關에 도착한 뒤 다시 기차를 타고 東京으로 갔다。 집을 떠난지 3일만이다。 일본유학이 시작된 것이다。 말로만 듣던 東京。 우리 민족에게는 미움의 敵都였으나 우리가 배워야할 새로운 학문과 지식이 가득쌓인 동양제1의 근대도시였다。

나의 전공목표는 국제법과 외교학이었다。 당초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서 공부하고 싶은게 꿈이었으나 집안에선 일본유학을 권했다。

특히 세째 형님 (尹致晟) 은 내가 전공하고 싶은 국제법등의 학문 수준은 일본의 대학이 우수한 데다 먼저 일본을 통해 동양정세를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을 안뒤 그다음 歐美지역으로 가서 폭넓은 공부를 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이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병합한 뒤 3·1독립운동이 일어날 때까지를 암흑의 시기라고 한다。

헌병과경찰을앞세운武斷정치라는 日帝의 강압통치가 이 민족의 숨통을 잔뜩 틀어막던 시기였다。 惡名높던 조선총독 하세가와 (長谷川)가 言路를 봉쇄하고 민족문화의 正氣를 뿌리뽑으려 했던 시기였다。 그 탄압속에서도 신지식을 배운 지식층사이에선 교육·문화운동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反日지하운동이 전개되면서 자주·독립을 위한 민족의 저항의식이 점점 쌓여가고 있었다。

秘密結社에의한 抗日운동은 날이갈수록 대중속에 파급되었다。日帝는 비밀결사들의 뿌리를 찾으려고 혈안이 됐다。

밖으로는 1차세계大戰이 극에달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세째 형님은 나에게 1차세계大戰의 자세한 배경을 설명해주는 등 국제정세를 열심히 풀이해주면서 萬國公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나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점차 나 자신 國權회복을 위해선 외교와、외교를위한 국제법의 공부가 긴요하다는 생각으로 굳어졌다。

YMCA에서 들은 李承晩박사의 萬國公法강연과 형님의 충고는 국제법과 외교를 공부해야 되겠다는 나의 결심을 더한층 굳게해주었다。

致晟형님은 나를 데리고 일본으로 갔다。 致晟형님은 앞서 일본에서 유학을했기때문에 그 형님의 가르침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먼저 기초공부를 튼튼히 해야된다는 생각에서 東京의 正則영어학교에 들어갔다。

서양의 새로운 학문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배우려면 일본어가 아닌 영어로 부딪쳐야했다。 그러나 正則영어학교에서의 영어교육엔 좀 불만이었다。文法위주의교육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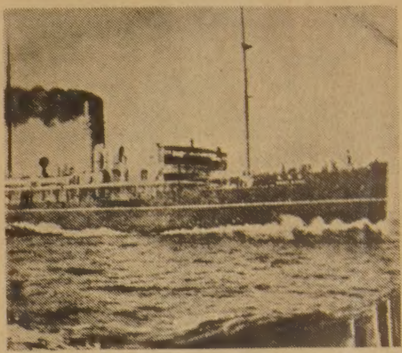
좀더 실질적인 영어를 배울수 없을까 궁리하던 끝에 일본YMCA에서 총무일을 보고있던 미국인 잭·메이비스씨를 찾아갔다。이비스씨는 從兄 (尹致昊) 과 절친한사이로 일찍부터 그의 이름을 들어 알았다。

메이비스씨를찾아가從兄애기를하니 그는 무척 반가와했다。 나의 고충을듣고 메이비스씨는 YMCA간사인 라이언씨의 부인을 나의 영어개인교수로 소개해주었다。

그로부터 1주일에 2번씩 라이언부인에게 개인교습을 받았다。난 文法만 파고드는 죽은 영어가 아닌 산 영어공부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절감했다。 날이갈수록 라이언부인도 놀랄만큼 나의 영어실력은 크게 향상되어갔다。 때로는 라이언 부인집에서 저녁대접을 받으며 많은 애기를 나누기도 했고 함께 기도를 하기도 했다。 영어를 통한 신앙공부도 겸해 一石二鳥의 효과를 보았다。

나는 東京 神田區 三崎町에 있는 雄鳳館에서 하숙을 했다。 그하숙집은 致晟형님이 유학중 하숙을 했던 곳이다。 하숙집주인은 형님의 애기를 듣고 나에게 시종 극진한 대우를 해주었다。 하숙집주인은 친절하고 예의바른 사람이었다。

아침과 저녁은 하숙집에서 먹고 점심은 학교근처에서 사먹곤 했다。 세탁은 돈을 주고 별도로 했다。 서울에서는 매달 학비를 보내주었는데 하숙비를 대고 남은 돈은 절약해 책과 운동기구등을 사곤 했다。


◇1920年代前後 釜山과下關사이를 왕래하던 連絡船。

教育稅…補完策 마련키로

정부예산 大幅삭감

농어촌育成·교육投資 力點

中小企業활성화·社會福祉도

民正黨은 6일 政策委산하 豫決委를 처음열고 내년도 예산심의의 기본 방향으로농어촌육성、中小企業活性化 사회복지 및 교육투자에 力點을 두기로했다。

豫決委員長을 겸하고있는 李珍雨 정책위의장은 이날회의가 끝난뒤 『정부재정을 가능한 한도까지 긴축하도록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말하고 『정부의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不要不急한 예산은 최대한으로 삭감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投資擴大를 위해 교육세외 시설은 시급한 당면과제이긴 하지만 多角度로 합리적인 補完策을 마련해야 한다는데의견을 모았다고 한참석자가전했다。

한국業體 進出

한국·빈센트 兩國首相 회담

南悳祐국무총리는 6일하오 중앙청에서 中南美 세인트·빈센트國의 로버트·밀턴·케이토首相과 만나 양국수상회담을 갖고 두나라간의 공동관심사와 협력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특히 세인트·빈센트國이 지난해부터 벌여온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대외적으로 추구하고있는 非同盟 中立路線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한 양국간의 경제·외교적 협력방안이 중점 협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총리실에서 1시간동안 계속된 양국수상회담에서 한국측은 전자제품과 의류제조분야에 한국업체의 진출가능성을 타진했으며 최근 한반도의 정세、특히 1·12및 6·5제의의 취지와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담에는 정부측에서 盧信永외무、高建농수산、徐錫俊상공、琴震鎬총리비서실장、金奭圭외무부 美洲국장이、세인트·빈센트국에서는 이안·비치농업상공相、앨턴·폼푸수상실차관、싱클레어·배로우외무차관이 각각 배석했다。

케이토수상은 南총리의 공식초청을 받고 6일상오7시 부인과 함께 來韓했으며 오는11일까지 滯韓하는동안 全斗煥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지도자들과 요담하고 板門店、現代造船등을 시찰할 예정이다。

케이토수상은 이날 양국수상회담에 앞서 하오4시 중앙청광장에서 베풀어진 공식환영행사에 참석했다。

韓·印尼協力委

【자카르타5日AP=黔】한국인도네시아 협력위원회가 오는10월부터 3일간 자카르타에서 연례회의를 열고 양국간의 광업및 석유부문의 협력문제를 논의한다고 인도네시아 광업에너지성이 5일 밝혔다。

지난79년에 구성된韓·인도네시아협력위원회는매년1회 정기회합을 갖고있는데 광업에너지성 대변인은 이번 회의가 이싸에 전기부문에관한 양국간의 협력및 82년도 위원회운영계획도 아울러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청 환영식에 참석한 케이토 수상내외(左右)가 花童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있다。중앙은 南총리。

●北韓뉴스●

中共에선 처음으로 朝鮮文學 학술討論

○…中共에서 처음으로 朝鮮文學에관한 학술토론회가 최근 吉林省연변 韓人自治洲에서 열려 20여편에 달하는 주제논문발표와 함께 성황을 이루었던것으로 中共의 北京방송이 4일 보도。

○…이제1차朝鮮文學학술토론회에는 北京大學·延邊大學·遼寧大學을 비롯、社會科學院의국문학연구소·중앙민족학원·吉林省통신학원·중앙민족출판사등 中共각지의、대학·연구기관등에서 온 학자·연구원과 교원·편집관계자들이 참석、자유로운 학술토론분위기속에서 20여편의 주제논문발표및 이에대한 토의가진행된한편 특히 中共에서 朝鮮文學연구사업을 보다널리깊이있게 보급하기위한 朝鮮文學연구회의 설립발기및 규약등이 채택되기도 한것으로 中共의 이방송은 전했으나 발표논문내용등 더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않았다。【서울=黔】

非同盟代表團 招請 父子권력 世襲선전

전세계로부터 거센 비난과 조소를 받고있는 金日成·金正日 父子권력세습에대한 변명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北傀는 최근 일부 亞阿비동맹국들의 각종 대표단을 平壤에 초청、이들을 대상으로 父子권력 승계책동에대한 宣撫선전을 펼치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서울=黔】

韓國의 經濟성장에 對南비방선동 加熱

北傀는 5일 黨기관지 로동신문을통해 韓國의 경제를 최악의위기운운으로 터무니없이 모략하고 나서는등 韓國이 제5공화국출범과 함께 한때의 슬럼프를딛고 안정세를회복、착실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있는 사실에 嫉視와 焦燥感을 감추지못했다。【서울=黔】

共產圈 국제體操서 金메달2個등 獲得

北韓의 체조유망주인 李철헌은 지난4일 平壤에서 폐막된 共產圈청소년친선 국제경기대회의 종목별개인 결승전경기 男子도수부문에서 우승한것을 비롯、안마(鞍馬)및 평행봉종목에서 각각2、3위에 입상함으로써 금메달1개와 은1·동1개를 획득했다고 5일 北傀방송들이보도했다。【서울=黔】

流星의 賦 <151>

李炳注作 李友範畵

山空花自紅 ①

계미년 (癸未年) 이 저물어가는 어느날의 일이다。그러니까 이이가 죽기 한달쯤 전이다。

그날 함박눈이 내리고 있었다。

정철과 홍성민 (洪聖民) 이 대사동 (大寺洞)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다。 함박눈속을 서슴없이 걷고 있는걸보면 그들은 그 길에 매우 익숙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들은 와병중에 있는 이이를찾아가는길이었다。

『설경 (雪景) 에 감회가 없는가』

정철이 물었다。

『경외관설 (景外觀雪) 이라야만 감회가 있지、경중공설 (景中空雪) 인데 무슨 감회가 있겠는가』

홍성민의 대답이었다。

『눈에 경중이고 경외가 있는가。 비엔 그럴 수가 있겠지만』

정철이 나직이 흥얼거렸다。 시심 (詩心) 을 가꾸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일화일시 (一花一詩)、일경십시 (一景十詩) 하는 경할이니 설편 (雪片) 하나에 시 한수가 되려나보다』

하고 홍성민이 빈정댔다。

『아니야』

정철이 웃음을 머금었다。 그리고 덧붙였다。

『함박눈이 내리니 우릴 뒷밟아 오는 놈이없어서 그전 어떻게 시체 (詩體) 로 만들어 보려는 거다』

『그렇다고 해서 눈이 사심 (邪心) 을 덮으니 세상이 그저 아름답다고는 하지못할 것 아닌가』

『선 (善) 과 사 (邪) 는 맞질 않아。 아니 어울리질 않아。

『설하경무사 (雪下景無邪)』 라고 하면 어때』

성민이 두번 말했다。

『눈이 내리니 경치에 더러움이 없다? 되었어。 역시 성민은 졸옹 (拙翁) 이 아니라 교옹 (巧翁)이군』

하고 정철이 [illegible]을 올렸다。 졸옹이란 홍성민의 호이다。

『아닌게 아니라 뒷밟아 오는 놈이 없는 것 같군 이것도 눈의 공덕인데』

하고 성민이 웃었다。

정철과 홍성민은 막역한 사이다。 그런만큼 이이와도 친하다。 이이와 성혼이 단짝인것처럼 정철과 홍성민이 단짝인데 이 네사람은 당대의 사재 (四才) 로 그 명성이 자자했다。

백인걸이 한 말이 있다。

『세상이 세상 같으면 정 (正) 과 홍 (弘) 으로 이 (理) 성 (成) 할 것이어늘!』

즉 정상한 세상이었다면 정철과 홍성민의 뒷받침으로 이이가 그 뜻을 성취할수 있었을것이란 뜻이다。

『설하경무사 (雪下景無邪)!』

감격성이 강한 정철은 홍성민의 그말이 무척 마음에 들었던 모양으로 몇번인가를 되풀이 했다。

『그러나 저러나 숙헌의 병이 빨리 나아야 할건데』

홍성민이 탄식했다。

『신생 (申生) 은 원래 장수하지 않는가? 그러고보니 자네도 병신생 (丙申生) 이지?』

정철이 물었다。

홍성민은 이에 대답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좇았다。 알고 묻는 것에 일일이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이와 홍성민은 동갑 (同甲) 이었다。 동갑으로 같이 준재 (俊才) 의 이름을 얻어 같이 조정의 요직에 있으면서、그위에 뜻을 같이 하니 이른바 삼동지우 (三同之友) 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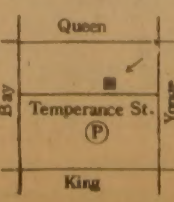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거 구 장
— 특 별 메 뉴 —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영업시간 : 11A. M. ~ 새벽2시 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곽 정 철, 김 선 남

意安飯店 (의안반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랍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해 있습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PM~4AM
토요일 일요일 : 12PM 부터
171 DUNDAS ST. W.
(Spadina동쪽으로 Chestnut코너) ☎ : 977-9734

SALESMAN REQUIRED
TOP SALARY
ALL BENEFIT
DOMINION CITRUS & DRUGS
THE ONTARIO FOOD TERMINAL
CONTACT MR. JAY ZELIKOVITZ
TEL : 259-5481 ext. 17

오사까 .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 · 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 11 : 00AM~10 : 30PM
금요일 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OPEN 7 DAYS
12 TEMPERANCE ST.
☎ : 368-2470



SHANGHAI RESTAURANT
메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등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소 : 334 SPADINA AVE .
(NEAR KENSINGTON MARKET)
☎ : 864-9347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Willowdale Office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전화 : (416) 222-9480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THE KOREA TIMES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
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535-3520, 630-8491

구 인

밤12시에서 아침 8시 까지 일하실 여자분 구함.
1468 QUEEN ST·W 도너츠 샵에서
☎: 531-2689

버라이어티 스토아에서 일할
경험있는 남자 헬퍼 구함
☎: 532-6160

스토아 헬퍼구함 (영×휜치지역)
☎: 222-2848

출퇴근 하시면서 여아 돌봐 수실분
☎: 921-5684(B) 921-8102(R)
(BLOOR·SPADINA서브웨이 옆)

재봉사 약간명 모집
보통 공장에서 하는 일들이며, 또한 재단실에서
헬퍼하실분도 구합니다.
연락처: 952 QUEEN ST. W. (오싱톤×퀸)

웨이트레스와 웨이터, 주방에서 일하실분 구합니다.
CALL: MANAGER ☎: 977-9519
MASA JAPANESS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급 구
주방헬퍼구함 628 BLOOR ST. W.
☎: 536-0290
한 국 관

일본식당 부엌에서 일하실분 구함
(오후3시~5시 사이)
☎: 924-7501 459 CHURCH ST.
MICHI JAPANESE RESTAURANT

급 구
20세에서 35세, 영어하실 수 있는
웨이트레스 구함
☎: 224-1060, 221-1507

전자제품 만드실분 약간명 모집
잘 건설된 전자공장에서
경험있는 전자제품 만드실 분과
전자 기술자를 모집 합니다.
오전, 오후, SHIFT WORK.
직접 내방 요합니다.
DORCHESTER ELECTRONIC CO.
40 FINA CRESCENT
(Q·E·W· 427지역)

매매및 양도

카페테리아 급매:
5일 오픈
☎: 532-5966(오후3시이후 전화바람) 미스터. 리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 233-2576

벡커매매
년매상 $300,000이상+로타리오
☎: 783-1984

작은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스카보로 지역
가격: $30,000+스탁
☎: 266-5715(오후6시 이후 연락바람)

머니 메니컬스
(1)과일+야채-번잡한 몰
(2)버라이어티스토아-주택가
(3)AUTO BODY SHOP-발전된 비지네스

대지
(1)타운하우스
(2)아파트 빌딩
(3)단독 가족 LOTS

☎: 336-2121·827-8300
LOUIS BATTISTA, JIM STALFORD

미시사가 매매 TOWER REALTY LTD.
리스 20년 코너에 위치 드라이빙 레스트랑이나
도넛샵 하기에 이상적인 위치.
집주인이 새 건물을 짓는데 도와줄것임.
FRED MARTEZOS ☎: 536-5000

드라이빙 레스트랑 매매
새로 시작한 비즈네스이며 앞으로 발전성 있음.
가족 비즈네스 혹은 파트너 둘이 할 수 있음.
아스킹: $185,000 IHOR DZIADYK
☎: 763-5555
R. CHOLKAN CO. LTD. REALTOR

〈매 매〉
"가정 형편상 그로서리 스토아 급매"
528 더프린 스트리트〈자세한 것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 531-4165

남녀 운동복점 매매
또한 재봉틀도 있고 재단업도 할수있음.
☎: 531-2611
1552 BLOOR ST. W.
SMITH SPORTSWEAR

GIFT & VARIETY STORE
연평균 주매상 $5000이상, 주 $300~$400
+EXTRA인컴.
3200 ERINMILLS PARKWAY, 미시사가
(MILLWAY SHOPPING CENTRE, 1 BLOCK N. OF DUNDAS)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프렌차이스)
주매상: $7000이상 렌트: $1200
리스: 5년+5년옵션
주5일영업. 다운페이먼트 5만불
관심 있으신 분은 직접 내방 요망.
169 QUEEN ST. E

좋은 가격의 하우스 세일
개인세일: 넓은 현대식 가옥, THORNHILL에 있는 2층집, 방 네개, OAK으로 만든 용수철식의 계단, WALK OUT베이스먼트, 화장실 4개, 벽난로 2개, 센트럴 에어콘디쇼닝, 현대식 조명장치및 등등 실지로 와서 보세요. 오픈하우스 오늘합니다.
☎: 881-8436

렌트

세놓음: 2 베드룸 베이스맨트
WARDEN×LAWRENCE
☎: 751-9286

윈치정부아파트 3베드룸 서브렡
8월중순 입주가능 렌트 $215
☎: 239-7267 미세스 신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란을 이용하세요

533-2361-4
1025 Dupont St. Tor.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님파·김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웅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미 용

스 타 미용실 미세스·김
남녀 커트, 파마 전문. 9 AM~8 PM 휴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027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킴 스 미 용 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한 방 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매일10AM-8PM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뜸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630-6602 나 라 운 수

시설및 수리

TV출장 수리
☎: 431-0102 MR. 박

KIMBO ELECTRICAL CO.
ELECTRICAL CONTRACTOR
METRO LICENSE E-725
RESIDENTIAL, COMMERCIAL, INDUSTRIAL
TEL: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김 부 원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악기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781-0200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이인식)

식 당

大 生 園
찐빵, 각종만두, 두부탕, 닭튀김, 왕새우 볶음,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볶은밥, SEA FOOD.
월~목 11:30AM~1:00AM, 화: CLOSE
금, 토 10:30AM~2:00AM, 일 2:00PM~12:00PM
☎: 929-5048, 961-3539

인 쇄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 746-0675 박 종 남

자동차수리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B) 245-1978 (R) 248-6032 김용환

L & K AUTO COLLISION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주소: 346 MUNSTER AVE. (BLOOR & KIPLING)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 651-9324(B), 226-5430(R) 변 달 원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서비스 (B)255-2111 (R)231-2822
95 PORTLAND ST. ETOBICOKE.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기 타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액자, 오일페인팅(유화)판매 조 혜 숙
32A Rexdale Blvd., Rexdale ☎: 746-2120

새한칼라 현상소
630 BLOOR ST. W. TORONTO. ☎535-7772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Can-Am Coin Investments Ltd. - 25년간 경력 -
금동전, 은동전을 최고가격으로 드립니다.
329 QUEEN ST., WEST · TORONTO, CANADA · M5V 2A4
Telephone: (416) 366-3061 - 366-3062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畫

"사장님, 머클 계약건에서 실수를해서 2천달러쯤 손해를 보게됐는데요"
"우선, 자네 봉급을 올려주고 승진시켜 주겠네…"
"그리고 나선 자넬 해고할거야!"
"그렇게 해야 자네가 지금보다 더좋은 일자리를 잃은 셈이 될테니까!"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
2390 LAKESHORE BLVD. W.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美상영「슈퍼맨Ⅱ」 興行성적 年中최고

현재 美國전역의 영화관에서 상영되고있는『슈퍼맨Ⅱ』와『레이더스·어브·더로스트·아크』의 흥행성적은 연중 최고수준에 달한것으로 보이고있다。

『슈퍼맨Ⅱ』의 경우 하루 3백만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레이더스…』도 그와비슷한 흥행성적을 올리고 있다。【할리우드=AP】

「그때 그사람」의 가수 沈守峰(27·본명 沈玟卿)이 아들을 낳았다。

지난5월17일 임신 8개월로 심령연구가 鄭錫씨(34)와 약혼、江東區둔촌동 아파트에서 함께 살아온 沈守峰이 지난 7월9일 신림동소재 송규석산부인과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아들을 낳았다。이름은 아직 짓지 않았다고。

沈守峰은 당초7월말께 결혼식을 올릴예정이었으나 1시간에걸친 수술분만으로 산후의 건강이 좋지않아 결혼식을 연기했다。아들까지 낳은 사실상의 부부여서 이제 결혼식이 급하지않게 되었다는것이 그들 두사람의 생각이라고。

가수 沈守峰 아들을 낳아

◇생후 한달이 채못된 아들을 안은「그때 그사람」의 가수沈守峰。

새회장에 金遇鐸씨 한국 영어영문학회

한국영어영문학회는 올해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金遇鐸(成均館大) 부회장에 李敎(梨花女大) 총무이사에 孔英一교수(慶熙大) 등을 새로 선출했다。

교민의 벗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그림자놀이 ⑦⑦

趙善作 禹慶熙畵

나의 존재를 그렇게 그의 또 다른 여자, 미스 노를 은폐하는 도구로 이용했다면 그는 이번의 청주에서도「그 여자가 또 나타났어。자다가 뭔가 섬뜩한 느낌이어서 깨어보니 그 여자가 옆에 누워 있는 거야。그것도 알몸으로…처음에 난 당신인줄 알았어。깜깜하기는 하고、하마터면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어。가자구。가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지 안 되겠어」하고、교활한 변명을 하면서 아내를 재촉했을 수도 있었다。

뭔가 그가 대책을 강구한다면、하고 나는 생각해 보았다。설혹 그의 부인이 나의 존재에 관해 까맣게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뭔가 항구적인 대처를 강구할 수는 있었다。

나를 피해 도망치는 일에 그는 이제 진력을 낼만도 했다。그렇다면 그는 우리 가족들중의 누구와 만나고자 할는지 모른다。아버지나 어머니、또는 동생 세호라도。어머니의 뜻밖의 접근에 당황하셨던 아버지께서 은밀히 나를 만나고자 하셨던 것처럼、그도 은밀히 누군가를 만나 나를 정신병원 같은 데서 쉬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의를 해올는지 모른다。그렇게 되면 내가 비밀하게 도모해 오던 일은 백일하에 공개되고、그는 나에게서 도망치는 일에 손을 떼도 좋게 될 것이다。

옷을 벗자고 간밤에 아주 최악의 방법을 머리에 떠올릴때도、더 멀리는 노영지에게 그의 여관방에 침입했었다는 고백을 장난삼아 했을때도 나는 어렴풋이 이런 미래의 일을 염려했었다。남자의 방에 몰래 침입해서 그남자 옆에 나란히 누운 여자。이런 수법는 가장 먼저 아버지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우리가족중 누군가를 그가 의논의 상대로 선택한다고 생각한다。막연히나마 첫째는 아버지일 거라고 생각했다。남자들 끼리니까。그리고 아버지에게만 나를 병원에 보낼 수 있는 뚜렷한 경제력이 있으니까。아니 이유는 아무래도 좋았다。아들은 아버지께서 이 일을 아신다면…아버지께서…어머니와 나。두 여자를 보는 남신의 시선。지탄(指彈)의 손가락질。아、하고 나는 짧게 비명을 올렸다。

아버지께 달려가야 한다고 나는 서둘러 생각했다。달려가서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얼마나 긴장한 정신을 소유하고 있는가 보여주어야만 한다。그에게 선수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

나는 멍청히 서서 등이다 보고 있던 그의 방문을 재빨리 닫았다。그러나 나는 아버지에게 달려가는 일을 실제로 서두르지는 않았다。방문을 닫고 돌아서며 그가 아버지를 만나 의논한다는 생각도 모른다는 생각이 한갓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다。한 몇 시간 전에 그는 내 몸에 손을 댄 것이다。여간 강심장의 남자가 아니고는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녀의 부친을 만나러 가는 뻔뻔스런 행위를 벌일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좀 안정된 걸음걸이로 방장로의 주인 집을 향해 내려갔다。혹시 그가 그곳에 무슨 전갈이라도 남기지 않았나 하고 나는 기대했는데、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다。주인 여자와 나는 몇마디의 대화로 나는 그가 앞으로도 두달을 더 있기로한 예정을 바꾸어 느닷없이 철수해 버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이었다。

주인 여자는 그가 새벽에 부탁해 두었던대로 내게 죽을 만들어 주었다。나는 그것이 마치 그가 나에게 남긴 최후의 메시지이기라도 한 것처럼 조금씩 음미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마시었다。그리고 소중음갔던 소녀처럼 혼자 따박따박 걸어서 산을 내려왔다。

모눈종이 위의 生 <168>

한국기원
영업시간: 낮12시~밤12시
653A BLOOR ST. W
☎: 533-0168

재카나다 대한체육회 1981년 8월15일
제1회 카나다 한국인 체육대회

8.15경축

제1회 재카나다 전 한인 체육대회 와 기념 쇼

경기프로

경기시간	경기종목	경기 구분	경기장 구분	선수(팀)
	유치원생 경기			
11:30	과자 따먹기	개인	F	제한없음
	바구니 터트리기	단체	F	10명
13:30	세발자전거 리레이	단체	T	4명
	국교생 경기			
11:30	200m 리레이	단체	T	남녀 각4명
12:30	바구니 넣기	단체	F	20명팀
16:00	줄다리기	단체	F	18명
	중학생 경기			
12:30	100m 경기	개인	T	남여각 4명
16:00	장애물 리레이	단체	T	4명
17:00	400m리레이	단체	T	4명
	고등학생경기			
13:00	200m 경주	개인	T	무제한
14:00	800m 리레이	단체	T	남여각 4명
	일반부 경기			
16:30	줄다리기(남)	단체	F	15명
17:30	다리묶고 달리기	단체	F	8명
18:00	바늘귀 꺼기(여)	단체	F	부인4명
13:30	공굴리기	개인	F	부인, 무제한
	노년부 경기			
13:00	통치기	단체	F	10명
14:00	공나르기	단체	F	10명
14:30	장년축구	단체	F	
17:30	마라톤	개인	T	무제한

인기가수 송대관
장미라
정렬의 가수 서유미
장미애
김숙희
박력의 가수 토미킴
최정민
태진아
인기코메디언 이순주
지미김(MC)
특별출연 백화전속모델

장소 LAMPORT STADIUM

일시 1981.8.15. 9:00 AM

우리 모두 참여하여교민 단결 과시하자